

박사학위논문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본 동물권운동의 의미 변화 과정

A Study on the Social Meaning of Animal Rights Movement

Seen through the Activists' Experiences

조 중 헌

한양대학교 대학원

2013년 2월

박사학위논문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본 동물권운동의 의미 변화 과정

A Study on the Social Meaning of Animal Rights Movement

Seen through the Activists' Experiences

지도교수 심 영 희

이 논문을 사회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3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조 중 현

이 논문을 조중현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3년 2월

<u>심사위원장</u>	<u>전 성 우</u>	<u>(인)</u>
<u>심사위원</u>	<u>김 명 수</u>	<u>(인)</u>
<u>심사위원</u>	<u>이 소 희</u>	<u>(인)</u>
<u>심사위원</u>	<u>임 운 택</u>	<u>(인)</u>
<u>심사위원</u>	<u>심 영 희</u>	<u>(인)</u>

한 양 대 학 교 대 학 원

< 차 례 >

[국문초록]..... iv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1
2. 연구 방법 및 대상.....4

II. 이론적 배경

1. 타자 이론.....9
1) 타자와 소수자.....9
2) 인간중심주의와 동물의 타자화.....12
3) 공감의 이론.....14
4) 성찰의 이론.....16
2. 동물권 이론.....19
3. 분석의 틀.....22

III. 동물권 운동 논의의 사회적 배경

1. 동물들의 현실.....25
2. 동물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29
3. 동물의 복지·권리에 관한 법.....31
1) 해외 동향.....31
2) 국내 동향.....33
4. 동물권 운동의 현황.....34

IV. 동물의 타자화와 활동가들의 공감

1. 동물에 대한 차별과 배제.....	38
1) 인간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	38
2) 동물의 추방과 배제.....	41
2. 타자로서 동물에 대한 공감.....	46
1) 상상적 동일시와 마음쓰임의 경험.....	46
2)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 확대.....	52
3. 도덕 공동체로의 포용.....	59
1) 편견 바로잡기.....	59
2)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62

V. 동물지배에 대한 활동가들의 성찰과 저항

1. 동물 지배의 유지기제.....	68
1) 동물 고통의 은폐.....	69
2) 현실의 불편함과 외면.....	75
3) 육식 대상의 일관성 논리.....	80
2. 인간의 기득권에 대한 성찰과 저항.....	84

VI. 동물권 활동가로서의 자기성찰

1. 공감적 고통에 대한 성찰.....	94
1) 인간관계의 상처와 끝나지 않는 현실.....	95
2) 우울증과 무력감.....	98
3) ‘자기희생’에 대한 성찰.....	101
2. 운동의 대상·내용·방법론에 대한 성찰.....	104
1) 운동의 대상에 대한 성찰 : 반려동물 편향성.....	104
2) 운동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성찰 : 동물학대의 예.....	109
3) 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성찰 : 이상과 현실 사이.....	115

3. ‘누구의 입장에서 운동하는가’에 대한 성찰.....	122
1) ‘의인화 비판’의 함정.....	123
2) 보살핌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고려.....	127
3) ‘무엇이 그들을 위한 판단인가’에 대한 고려.....	130
VII. 타자 중심의 소수자 운동으로	
1. 소수자 운동으로서 동물권 운동.....	134
1) 동물권 운동과 소수자 운동의 유사점.....	134
2) 인간중심적 소수자 정치를 넘어.....	138
2. 대리적 운동의 타자중심성.....	144
VIII. 결론	149
참고문헌.....	153
ABSTRACT.....	158

<표 차례>

그림 1. 활동가들의 경험에 따른 동물권운동의 의미 변화 과정.....	22
표 1.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6
표 2.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	26
표 3. 2011년 한국 도축현황.....	27
표 4. 2011년 한국 동물실험 실태.....	27
표 5.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수.....	114

[국 문 요 지]

이 논문은 동물권 운동(Animal Rights Movement)에 관한 연구로서, 오늘날 인간이 동물과 맺고 있는 관계의 속성을 권력관계의 맥락으로 파악하고, 또한 활동가들의 경험에 따른 동물권운동의 의미 변화 과정과 그 사회·정치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현재 활발하게 동물권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에서 ‘우월한 인간’과 ‘열등한 동물’이라는 위계적 차이관에 기반한 타자화를 통해 동물은 우리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이익은 우리 인간에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들이 겪는 ‘고통’은 인정되지 않고 외면 받고 있다. 그러나 동물권 활동가들의 경우 ‘공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역을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상대에게 본인의 입장을 대입하는 동일시를 해보며 동물들의 고통을 유추한다. 이렇듯 고통 받는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느낄 것 인지를 상상하는 과정으로 동물들에 대한 공감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동물의 고통에 대해 맺어졌던 공감은 동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염려로 확장되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낳게 된다. 이러한 공감의 과정을 통해, 활동가들은 동물들을 이익이 무시되어 마땅한 - 고통 받아도 상관없는 - 차별받고 배제되는 타자에서 우리 도덕공동체의 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동물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긍정적인 시각을 전파하면서 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우리가 아닌 집단에 대한 위계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강조하며 이루어지는 차별과 타자화는 그들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한 관계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끔 한다. 사람들은 동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서 - 예컨대 도축과정을 숨기는 방식 등으로 - 현실을 은폐한다. 또한 - 그러한 현실의 은폐에도 불구하고 - 알게 되는 동물들의 고통에 대하여 개개인은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합리화 기제로서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데도 우리는 풀을 먹고 있으니, 다른 모든 동물 역시 다 먹어도 된다’는 일관성·하향평준화의 논리를 견지한다. 동물권활동가들은 타자화된 그들을 우리의 도덕공동체 내로 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물에 대한 지배구조와 그 권력관계에서 인간이 누리는 기득권을 성찰하고 그것에 저항한다. 그 저항은 우리의 일상이 동물을 지배하는 구조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리고,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면서도 관심을 벗어나 자신에게 질문의 화살표를 던질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동물을 지배하는 구조와 그 유지기제를 깨닫고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성찰 외에, 활동가들은 저항을 하며 ‘내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과 자신이 몸담은 동물운동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자기성찰을 하게 된다. 먼저 활동가들은 동물들이 받는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보살피면서도 그 안타까움에 자기를 희생하고 상호관계를 왜곡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한다. 또한 그들은 감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동물운동의 대상·내용·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타자화되고 목소리 없는 - 심지어 인간과 언어·인식체계가 다른 - 존재의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자기만족이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하고 있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나’가 아닌 ‘타자’를 중심에 놓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을 차별하고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성찰하고 저항하는 과정을 밟으며 활동가들의 시각은 동물권 운동을 ‘단순히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만이 아닌 ‘권력관계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들은 차이에 근거해 차별과 지배의 대상이 되며 아무런 사회적 권력을 갖지 못하는 동물들을 ‘소수자’로 인식하면서도, 동물은 사회적 지위와 목소리 면에서 ‘소수자 중의 소수자’임을 비판

적으로 인식한다. 또한 끊임없이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활동가들의 ‘타자중심적 사고’는 - 다른 소수자 운동들은 집단·소속의식을 가진 피억압집단이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에 반해 - 동물권 운동은 전적으로 제삼자 집단에 의한 대리적 운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동물들이 겪는 문제가 타자의 입장을 배척하는 인간중심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동물운동은 사회적으로 목소리 없는 존재를 대신해 타자의 입장에서 성찰하고 사유하며 그들을 권리의 주체로 만드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타자와 진정으로 소통하는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자기중심적 입장이 아닌, 그들이 처한 상황에 자신의 입장을 놓고 사유하는 타자를 향한 열린 관점이다. 또한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타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자기반성 역시 요구된다. 타자와의 관계에 작동하는 차별과 지배의 기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써만 주변의 존재를 억압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저항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 단어 : 동물권, 동물권 운동, 타자, 소수자, 공감, 성찰, 고통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확대해가고 있는 동물권운동(Animal Rights Movement)에 관한 연구로서, 인간과 인간 외 동물(non-human animals)¹⁾이 맺고 있는 관계의 속성을 권력관계의 맥락으로 탐구하고, 또한 활동가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동물권운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논의하고자 한다.

인권 개념이 탄생한 18세기에 서구사회에서 그것은 백인 남성의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나, 이후 흑인·여성·아동·장애인·성적소수자 등 다양한 주변 집단들(marginal groups)의 권리를 위한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들에 대한 억압을 종식시키기 위한 사회적 저항운동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러한 문제의식과 저항은 지금까지 모두 ‘인간’의 권리만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 적어도 서구사회에서는 - 차별·지배·권리 등에 대한 사회·정치적 논의가 인간의 경계를 넘어 조금씩 동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 대상의 확대는 기존의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었던 정치 개념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기존 질서가 배제하였던 의제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정치를 재개념화하고 그 영역을 확대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동물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를 차별과 지배라는 정치적 개념으로 규정하고, 타자·소수자로서 동물에 관한 사회학적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서구 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미 새로운 사회운동의 하나로서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억압에 관한 비판 담론을 활발히 만들어가고 있는 동물권 운동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짧은 역사에 부족한 사회적·경제적·학문적 자원으로 소수 몇몇 단체들의 활동에만 의존하여 힘들게 진행

1) 인간 역시 동물의 한 종이기에 ‘인간과 동물’은 옳은 표현이 아니지만, 편의상 이하 본문에서는 ‘인간 외 동물’을 ‘동물’로 약칭하도록 하겠다.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외국의 운동에 비해 철학이 부족하다거나 단체들이 비생산적인 논쟁에 빠져 서로 대화와 소통이 막혀 있다는 등의 비판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동물운동은 지난 10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활동하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회적 의제와 관련 논의를 생성해왔다. 2000년을 전후로 개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국의 동물운동은 이후 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전시공연동물 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및 입양·캠페인·항의·서명운동·법 청원운동·실태조사·법적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과거에 비해 많이 변하고 있어,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한 정보의 활성화, 반려동물과의 교감, 동물단체와 유명인들의 캠페인 등의 영향으로 동물의 권리 및 처우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이는 동물운동에 대한 - 과거 대부분의 인식은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한가한 봉사활동'이라는 피상적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운동에 대한 우리나라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전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몇 년 간 법학·윤리학계를 중심으로 동물의 처우와 권리에 대한 연구들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지만 해외에 비해 아직은 논의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동물에 대한 차별과 지배가 어떠한 구조로 실천되며 그에 대한 동물운동의 저항은 어떠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 학문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작업을 위해 연구자는 특히 동물운동의 행위자인 활동가(activist)들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구조적 조건에 대한 연구와 행위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과거 사회학 연구는 사회체계나 이념, 조직 형태에 대한 분석에 치우쳐 온 경향이 강했지만, 사회운동이 구조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닌 이상 변화의 주체이자 동력인 행위자의 경험 역시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

특히 행위자의 '내면'은 개인적 의미만 있는 영역이 아닌, 사회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의 공간이기도 하다. 예컨대 '감정'은 근대 사회

에서 ‘이성’에 비해 항상 열등한 가치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정치’는 이성의 논리로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러한 가치질서 속에서 고통 받는 타자에 대해 느끼는 개인들의 감정적 경험은 ‘하찮고, 사적이고, 성숙하지 못하며, (부정적 의미에서) 여성스러운’ 것에 불과할 뿐이었다. 하지만 -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 동물운동에 참여하는 많은 이들은 고통 받는 동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그 가슴 아픈 현실에 눈을 뜨며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 후 이들의 실천은 ‘케어’를 넘어 사회적 타자를 지배하는 권력관계를 인식하고 그에 저항하는 정치적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된다.

사회변화의 동력이자 주체는 개인이며 그들의 정치적 행위는 내적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변화는 개인들의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그 사회적 맥락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운동의 주체인 활동가들이 그 과정에서 겪는 내적 체험과 의미화 등 개인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운동으로서 동물운동의 실천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한 구조와 행위 간 균형 잡힌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사회에서 동물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차별되고 타자화되는가. 그리고 활동가들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 문제의식을 품게 되고 사회적 타자인 동물을 포용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하는가.

둘째,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억압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유지되는가. 그리고 동물 지배 구조에 대한 활동가들의 성찰과 저항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 외에 활동가들은 운동을 하는 이로서 스스로 어떠한 내적 성찰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자기성찰의 성격은 동물운동의 어떠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가.

넷째, 다른 소수자운동과 동물권운동이 갖는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타자관계에 있어 동물권운동이 갖는 사회적·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2. 연구 방법 및 대상

이 연구는 사회체계나 구조적 조건뿐만이 아닌 공감·성찰 등 사회운동의 행위자들이 겪는 내적 경험과 그 의미를 탐구하기 위해, 수치화하기 힘든 느낌·감정·직관·관념 등을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에 의해 진행되었다.

주된 조사방식으로는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택하였다. 질적 면접은 대체로 공식적 질문이나 답변의 형태에 얽매이기보다는 비교적 개방적인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메이슨, 2004). 주로 기본적인 테마는 놓치지 않되 열린 대화의 장점을 취할 수 있는 느슨하게 구조화된(loosely structured)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질적 연구는 가설을 검증하거나 반증하는 경험적 연구와 달리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추구할 궁극증이 형성되고 도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메이슨, 2004) 질문과 대화 내용의 방향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정되었다.

면접은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총 9개월에 걸쳐 한 명당 평균 2-3회의 횟수로, 단체 활동가의 경우 사무실에서, 개인 활동가의 경우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다. 면접참여자와의 만남은 연구자가 후원회원으로 있는 단체의 활동가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먼저 면접한 참여자를 통해 같은 활동을 하는 다른 이를 소개 받아 다음 면접을 진행하는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이 사용되었다. 동물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경우 평소 외부인의 편견으로 피로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친분 없는 연구자와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 기존 면접참여자와의 사이에 생긴 라포는 이후 참여자와 새로운 라포를 형성하는 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와 친분이 - 특히 정치적으로 다소 민감한 - 면접내용에 대한 해석을 편향되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해석을 하는 데 있어 연구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또 한 가지는 연구자의 정치적 입장이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실증주의에 기반한 ‘완벽한 객관성·가치중립성’에 대한 믿음은 허구라고 주장한다. 사회현상의 규칙을

가치중립하에서 객관적으로 밝혀내고자 한 결과 오히려 종래의 사회과학은 사회의 규칙이 만들어지는 지배기구로서 이데올로기적인 형태가 되었다는 것이다 (윤택림, 2004). 연구자로서 나는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주류의 질서에 벗어나는 주변적 존재에 대한 탐구에서 ‘객관성’과 ‘가치중립’에 대한 맹신은 기존 사회의 지배적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경계함과 동시에, “나’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의 주관성과 한계”를 성찰함으로써 객관성을 잃지 않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모두 10 명의 참여자와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그중에는 6명의 단체 활동가와 4명의 개인 활동가가 포함되어 있다. 사회운동을 이야기할 때 보통 단체 활동을 먼저 떠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동물권 활동의 경우 비교적 본인의 일상 속에서 자신의 관심사와 여건에 따라 비직업적으로 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고, 단체 활동가들의 상당수 역시 상근 활동을 하기 오래 전부터 자원 활동을 해오던 이들이었다. 면접을 진행하며,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활동가라 하더라도 그 문제의식이나 관련 지식, 그리고 활동의 적극성은 단체 활동가를 뛰어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동가 (activist)’의 기준은 단체 소속 여부가 아닌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스스로를 정체화²⁾하는가’이다.

면접참여자 중에는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가 되도록 노출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어 지나치게 많은 정보의 공개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 진행을 약속하기도 하였으며, 운동의 내외적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관련된 대화 내용의 민감성 때문에 이후 내용의 사용을 뺀 부분도 있었다. 연구의 윤리와 관련되는 이러한 고려지점들은 면접에서 기술까지 전 과정에서 섬세한 주의를 요구하는 부분이었다. 면접참여자의 나이와 소속을 구체적

2) 과거 다른 사회운동을 하며 동물운동을 지원하다가 지금은 채식주의의 활동과 동물권 소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 7>은 이와 관련하여 '단체에서 일을 하지 않아도 동물문제가 삶의 중심이라면 그는 (individual) activist'라고 이야기한다.

“운동이란 것이 어디 가서 구호를 외치는 것만 운동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거기서 관심을 갖게 되고 문제의식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따라하게 되고... 그 씨앗을 딱 던져주는 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난 그것 또한 어떤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individual activism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활동가라고 거창한 의미로서가 아니라... 내 삶의, 생활의 중심이 동물 문제가 됐을 때는 나는 이미 동물 활동가가 돼 있는 거예요.” <사례 7>

으로 적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며, 참여자의 개인사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경우 본문의 해당 부분에서 그때그때 보충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1>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나이	성별	소 속	비 고
1	30대 초반	여성	동물운동 단체	상근 활동가
2	30대 후반	여성	동물운동 단체	상근 활동가
3	40대 후반	여성	동물운동 단체	동물단체 이사
4	30대 중반	여성	동물운동 단체	상근 활동가
5	20대 중반	여성	동물운동 단체	상근 활동가
6	40대 초반	여성	동물운동 단체	상근 활동가
7	50대 초반	여성	개인 활동가	채식주의 활동 동물단체회원활동
8	40대 초반	여성	개인 활동가	다큐멘터리 감독
9	40대 초반	여성	개인 활동가	‘캣맘’ 활동 동물단체회원활동
10	50대 초반	여성	개인 활동가	동물보호 매체

면접참여자들이 모두 여성인 것은 ‘동물운동 진영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헤르조그(H. Herzog, 2011)에 따르면 미국 동물

운동의 경우 여성의 참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개 구조자의 비율, 윤리적 이유로 고기를 포기하는 경우도 여성이 훨씬 많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동물보호를 위해 단체에 후원금을 내는 이들의 상당수가 30대 여성이며,³⁾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면서 관심을 기울이는 케어테이커(caretaker)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의 상당수 역시 여성이다.⁴⁾ 이와 같이 현재까지는 남성보다 여성이 동물운동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젠더 경향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한데, “억압받아 본 사람의 시각, 불편함을 겪어 본 사람의 시각, 아픔을 느껴본 사람으로서 소수자는 다수자와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 (박경태, 2008)”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또한 “여성과 동물 모두 남성 착취의 피해자이고 따라서 남성보다 여성이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라고 주장 (헤르조그, 2011)”하는 입장도 있다. 보라(2007) 역시 “남성과의 관계에서 억압을 경험해 온 여성들은 그만큼 약자인 동물에 대한 관계의 억압성과 폭력성을 인지하기 쉽다”고 설명하며, 또한 “남성에 비해 경쟁적이지 않고 모성을 계발할 수 있는 조건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의 처지를 더 잘 헤아릴” 수 있는 점을 지적한다.

한편 남성들의 경우 감정이입이나 보살핌 같이 ‘나약함’을 의미하는 감정적 실천을 장려 받지 못하는 사회화 과정과 연관시키는 해석이 있다. 루크(B. Luke, 2007)는 “남자아이들은 사실상 태어날 때부터 동물의 고통에 무감각하도록 주입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라이더(R. Ryder, 1998) 역시 “남성들은 동물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접했을 때 감정이입을 하지 않도록 사회화되며 이는 동물의 고통에 냉담한 태도가 그 사람의 ‘남성성’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렇게 성별에 따라 동물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의 경향이 다른 것은 기

3) 동물사랑실천협회를 후원하는 정회원 3500명 중 50% 이상이 30대 여성이다. 동물운동단체 카라 역시 후원회원 1089명 중 30대 여성이 366명이며 남성 회원은 대부분 여자 회원의 손에 이끌려 가입한 이들이라고 한다. “동물은 사치품, 세금을 매기자? (남은주, 한겨레 21, 2011. 6. 27)”

4) 따라서 이러한 일을 하는 여성들을 흔히 칭하는 표현인 ‘캣맘’이라는 단어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러한 남성들을 칭하는 ‘캣대디’라는 표현은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존의 젠더 질서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여성들만이 보살핌의 영역에 관련되어 왔고, 특히 가족 영역 내에서 보살핌은 여성의 역할로서 ‘강제’되어 온 부분이기도 하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로 규정되어 온 보살핌 노동의 가치는 저평가되어 왔으며, 전통적 여성 역할을 거부한 여성들은 비난을 받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과 보살핌의 관계’만을 본질적 특성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은 여성을 억압하는 기존의 젠더 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통적 남성성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다양한 남성성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동물들에 공감하고 관심을 갖는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⁵⁾ ‘보살핌’이 타자를 배제하는 기존 사회질서에 균열을 줄 수 있는 대안적 가치라면 남성들 역시 동참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실제로 그러한 경향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듯하다.

5) “독신남 ‘바가지 굵는 고양이’에 빠지다 (조민준, 한겨레, 2010.04.07)” 등 참조.

II.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권력관계와 그에 저항하는 동물권 운동에 관한 논의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먼저 동물에 대한 차별과 지배의 기초가 되는 타자의 정치학을 소수자의 개념과 연결하여 소개할 것이다.

위계적으로 만들어지는 차이관에 근거하여 주변 집단에 가해지는 타자화 논리는 비단 사람의 범주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어서, 동물의 경우 인간중심주의의 질서 속에서 사회적 타자로 구성된다. 이어 억압적 관계를 넘어 동물과 소통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대안적 관계성으로서 공감과 성찰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며, 마지막으로 동물에 대한 차별과 지배구조에 대한 저항의 논리적 기반으로 동물권 이론을 피터 싱어와 톰 리건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타자 이론

1) 타자와 소수자

인류는 오랜 역사에 걸쳐 타자를 만들어내고 그들을 차별·배제해왔다. ‘우리’와 ‘타자’를 구분하는 인간사회의 대립 구조에 관한 초기 논의는 주로 인류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구조주의 문화인류학자인 레비-스트로스(C. Lévi-Strauss, 1955)는 오지 부족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집단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인간/초자연, 청결/지저분함, 삶/죽음 등과 같이 이항적으로 구조화된 상징적 개념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레비-스트로스의 통찰을 발전시켜, 더글라스(M. Douglas, 1966)는 복잡하고 무질서한 사상을 이항대립으로 범주화하는 질서의 근본에 ‘순수와 위협’으로 대비된 상징체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즉 세상에는 질서와 규칙을 부여하는 ‘순수’와 그 외부에 존재하는 오염된 대상인 ‘위협’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각각 정돈되고 절제하는 ‘우리’와 일

탈적이고 파괴적인 ‘타자’의 세계를 표상한다.⁶⁾

특정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규범을 바탕으로 타자를 바라보는 방식은 서로 다른 문화 및 지역 간의 관계에도 적용되고 있다. 유럽인들이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권력 하에 행한 타지역의 침략, 정복 및 그를 둘러싼 문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 사이드(E. Said)로 대표되는 - 탈식민주의 이론가들도 이러한 시각과 맥락을 같이 한다. 서양은 중심·주인·과학·이성 등과 관련된 우월한 곳이고 동양은 주변·노예·야만·자연과 연관되는 열등한 곳이라는 식의 인식 하에 유럽인들은 타자로서 동양의 문화적 이질성을 거울로 삼아 서양을 권위화하고 동양을 지배하며 서양적 가치관에 의해 세계를 조작하는 주체를 편성해왔다 (고모리 요이치, 1996).

식민주의·제국주의 담론을 고찰하는 방식은 그동안 유럽이라는 중심부와 비유럽이라는 주변부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대립적 구도에 계급과 성별 등 다른 요소들이 첨가되며 타자의 개념은 재정립되고 있다. 유럽의 백인 남성 부르주아를 주체로 상징할 때 상대 개념은 비유럽·유색인·여성·프롤레타리아 등을 모두 포괄하는 범주로 풀이된다. (박형지·설혜심, 2004)

이러한 타자 개념의 확장은 다양한 주변 집단들에 대한 논의로 연결될 수 있다. 피지배집단이 경험하게 되는 타자화는 젠더·인종·계급·민족 등과 같은 일상의 주요 권력관계 속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유색인종의 사회적 정체성이 백인 집단의 관점을 대척점으로 해서 그 의미가 형성되듯이,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 장애인에 대해서는 비장애인, 자국민에 대해서는 이국민, 부르주아지에 대해서는 프롤레타리아, 이성애자에 대해서는 동성애자가 타자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만들어짐’의 기반에는 ‘차이’가 주요개념으로 존재하고 있다. 즉 타자란 차이 그 자체이며 우리와 동일 범주로 취급될 수 없는 다른 존재를 말한다. (양정혜·오창우, 2008; 문성훈, 2011)

이상과 같은 타자 논의를 기반으로 ‘인간의 기본 권리’라는 측면에서 탄

6) 더글라스의 맥락으로 볼 때, 우리 사회에서는 에이즈나 한센병과 같은 전염병 환자·성소수자·성매매 여성·노숙자 등이 이러한 ‘위험’을 표상하는 존재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IV장에서 동물을 인간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존재로 재현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생한 개념이 바로 ‘소수자(minority)’이다. 1990년대 이후 - 특히 다문화주의의 등장과 함께 - 이론적·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소수자’는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여겨지고,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권력의 열세와 함께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되며, 스스로 차별받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의식을 가진 자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박경태, 2008).

신문수(2009)는 인종주의(racism)와 성차별주의(sexism)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사회적 차별의 구조는 상동적”이라고 지적한다. “인종주의가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을 그들의 인종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념적·구조적·행동적 체계’라고 한다면, 성차별주의는 여기에서 ‘인종’이란 말을 ‘성별’이란 말로 바꾸기만 하면 큰 무리 없는 현실적 정의로 통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차이에 근거한 소수자 지배의 기제를 아래와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인종·성별 집단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
2. 그 차이는 특정 인종·성별 집단이 다른 인종·성별 집단에 비해 우월하다는 차이의 정치학으로 전용된다.
3. 그 우월성을 근거로 특정 인종·성별 집단의 지배와 복속을 정당화한다.

즉, ‘흑인은 원래 지적으로 열등하다’거나 ‘여성은 남성보다 논리적 사고력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지배집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조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자신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인구 집단에 대한 배제와 차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더 나아가 그러한 배제와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윤인진, 2000; 박경태, 2008).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를 차별하는 상황에서 차이가 그것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차별 관계에서 만들어진 차이가 객관적인 특성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 한다’는 당위나 ‘다르길 바란다’는 희망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준다 (박경태, 2007).

요컨대 인간의 사회집단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적 ‘타자’로서의 소수자를 만들어내며, 그 타자/소수자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출발

점은 ‘차이’이다. 우열에 근거한 이항적 구도 속에서 피지배집단이 경험하게 되는 타자화는 젠더·인종·계급·민족 등과 같은 일상의 주요 권력관계 속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특히 종(species)관계에 있어서의 타자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인간중심주의와 동물의 타자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의 패러다임은 인간 이외의 존재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때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고 인간의 이익·행복·복리 증진만을 위하여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다 (정인석, 2005). 자연의 일부인 동물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만 받아들여지고 본래적 가치가 아닌 도구적 가치만을 인정받는다.

이러한 면은 동양 문명과 달리 자연을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 여긴 서구 문명의 역사에서 더 강하게 드러나는데, 서구 비평가들은 동물에 대한 현재의 인식과 태도의 뿌리가 된 것은 구약성서의 <창세기>라고 지적한다. <창세기>에 따르면 지구와 그 위에 사는 모든 동식물은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해 창조된 것이다. 그 1장에서 신은 인간을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만듦으로써 동물과 구별하고 또한 인간이 ‘지구상에서 살아움직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만든다. 이는 땅에서 사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따르게 하는 권리를 인정한 ‘인간 헌장’으로서 유대교도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에 의해서도 그리고 이슬람의 무슬림에 의해서도 신봉되어 왔다. (서펠, 2003)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 역시 인간중심주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프로타고라스(BC. 485~BC. 414)는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BC. 384~BC. 322)는 ‘인간이 사다리의 맨 꼭대기에 있고 동물과 식물은 그 아래 단계를 차지하는 계층적 체계’로 자연 세계를 파악했으며, ‘낮은 등급 생물체(동물)의 목적은 높은 등급 생물체(인간)의 먹이가 되거나 봉사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스토아 학파·에피쿠로스 학파·신플라톤주의 학파 등이 ‘동물에게는 이성이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

장을 계승하여 발전시켰으며, 이러한 주장은 동물에 대한 중세의 부정적 시각에 일차적 영향을 끼쳤다. (정인석, 2005)

이후 중세의 기독교 세계관에 이어 계몽주의 사조는 인간이 자연계에 대해 가진 지배권을 존재의 사슬 속 위계질서 때문이라고 해석하며 인간중심적 사고를 강화시켰다⁷⁾(박형지·설혜심, 2004). 데카르트(R. Descartes)는 이성적인 불멸의 영혼과 언어 능력을 갖춘 인간과 달리 동물은 본질적으로 생각과 영혼이 없는 ‘자동기계 (automata)’와 같으며 동물과 사람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주장했다.

인간 이성의 확산적 힘을 강조하고 이성의 인간해방능력에 기대를 걸었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그 과정에서 자연에서 ‘인간’을 떼어내는 것을 강조했다. 계몽주의는 자연이 사납고 위협하고 원시적이며 심지어 사악한 힘으로 간주하였으므로, 그것은 길들여지고 생산적이 되어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대상이었던 것이다. 자연에서 인간을 분리해 내려면 먼저 인간이 동물적 본성에서 탈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길들이기는 인간 자신의 길들이기로 시작되었다 (리프킨, 2005). 17세기 이후 서구 문화의 급속한 도시화 역시 사람과 동물 사이에 남아 있던 연결고리를 단절시킨 배경이었다. 인간의 동물적 본성은 극복되어야 할 어떤 것, 즉 억제하고 쳐부쉬야 할 어둠의 세력이 된 것이다 (리프킨, 1996).

계몽주의 시대의 후반기에 이르면 동물은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더 이상 거리에서 동물과 마주칠 일도 없어진다. 동물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락한다. 이 시대는 동물을 무엇보다도 경제적·물질적 용도에 복종시켰다 (임옥희, 2003). 이렇듯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라는 인식을 낳은

7) 중세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아우르는 절대적 지배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반면, 계몽주의 사조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가진 지배권을 존재의 사슬 속 위계질서 때문이라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흑인 혹은 야만인에 대한 담론은 이들을 ‘원숭이’에 비유하고 이들 사이의 유사성을 찾는 데 집중되어 갔다. 원숭이가 놓여 있는 거대한 ‘동물계’의 위치에 흑인을 밀어 넣고자 한 것이다 (박형지·설혜심, 2004). 이후 계몽주의 시대는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확실히 분리함으로써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우월감을 확실히 한, ‘짐승 같다’는 표현에 서처럼 인간에게서 동물성을 보는 것이 모욕인 시대가 되었다. 동물로 취급되었던 흑인 혹은 야만인은 인간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사냥하고 죽이고 우리에게 가뉘놓고 가축화(domestication)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정당화하게 되었다 (임옥희, 2010).

계몽주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현대까지 이어져오는 근대과학기술문명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서펠, 2003).

이상과 같이 살펴본 동물-인간 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인간 역시 한 종의 동물임에도 동물과의 유사성은 부정하고 차이를 발명·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그 차이의 내용은 ‘동물에게는 이성·영혼·의식·언어가 없다’는 우월함과 열등함의 이분화된 가치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해왔다.

3) 공감의 이론

이상과 같이 나와 다른 존재를 ‘차이’를 근거로 차별하고 지배하는 폭력적 관계를 거부하고 양자간에 진정한 소통의 다리를 놓기 위한 관계적 도구로서 3)과 4)에서는 각각 ‘공감’과 ‘성찰’의 이론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공감(empathy)의 개념에 관한 이해는 학자들 간에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 그동안 학자들은 연구에 따라 인지적 요소, 의사소통적 요소, 정서적 요소 등 각기 초점을 달리 하고 다양한 정의들을 제시하며 많은 논의를 거쳐 왔다. 공감 자체가 단일 차원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복합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공감’의 어원은 19세기 말 만들어진 독일어의 ‘Einfühlung’이라는 단어이다. ‘Einfühlen’은 ‘ein (안에)’과 ‘fühlen (느낀다)’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들어가서 느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즉 타자의 안으로 들어가 (feel into) 함께 느끼는 (feel with)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박성희, 2004)

본문에서 연구자는 인간중심주의와 동물의 타자화로써 형성된 우리(인간)와 그들(동물) 사이의 차별적 경계가 공감을 통해 허물어질 수 있음을 - 동물운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 살펴볼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논의로써 타인에 대한 정서적 공감(affective-empathy)이 이타적 행동 동기의 기초가 된다는 호프만(M. L. Hoffman, 2011)의 이론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그는 공감을 - 다른 사람의 정서 상태에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보다 부합하는 대리적인 정서적 반응으로 정의하면서 ‘대리적 경험’으로서 공감의 의미를 강조한다. 즉 상대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상상하는 ‘역할 또는 관점 채택 (role or perspective-taking)’을 공감 발생의 주요 양식으로 규정하며, 이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와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상상해보는 것’으로 설명한다.

호프만은 특히 친사회적 도덕적 행위의 동기로 공감적 고통, 공감적 분노 등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들이 작용함을 주목한다. 공감적 고통 (empathic distress)이란 사람들이 실제적인 고통 상황에 있는 누군가를 목격할 때 느끼는 고통을 말한다. 그것은 타인의 실제적인 고통을 목격함으로써 유발되며 고통을 받고 있는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다시 경감되거나 해소된다. 공감에 바탕한 돕기의 주목적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공감적 고통은 친사회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호프만, 2011)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공감은 개인적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타자의 처우나 권리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중요성을 갖는다. 18세기 유럽과 미합중국 인권의 기원을 설명하며 헌트(L. Hunt, 2009)는 사람들이 계급·인종·성별의 구분을 뛰어넘어 공감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만민평등사상을 성취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공감을 확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18세기 서한소설⁸⁾의 등장이었다. 서한소설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주인공과 동일시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책을 읽으며 전통적인 사회적 경계, 즉 귀족과 평민, 주인과 하인, 남성과 여성, 성인과 아동 간의 경계마저 넘어 공감했고, 그 결과 타인들을 - 그들이 개인적으로는 모르던 사람들을 - 자신처럼, 마치 동일한 내면적 감성을 지닌 존재로 보게 되었다. 이러한 배움의 과정이 없었다면 ‘평등’은 깊은 의미를, 특히 정치적 성과를 전혀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헌트는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공공 전시장의 그림 감상부터 사랑과 결혼에 관한 대중 보급판 서한소설 읽기에 이르는 당시로서 새로운 경험들은 새로운 개인적 경험(공감)을 창출했고 그것은 다시

8) 허구의 서신교환.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관념(인권)을 낳았다. 공감은 찰나의 믿음, 타인이 자신과 같다는 상상이 필요한 만큼,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상상되는 것이었다. (헌트, 2009)

요컨대 타자와의 공감은 대리적으로 상대와 동일시하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상대의 입장에서 그들이 어떻게 느낄지 상상해보고 그들의 고통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공감의 경험은 타자 집단의 처우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의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반려동물과의 관계나 고통 받는 동물과의 개인적 경험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공감은 동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타자와 공감함에 있어서도 한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타자와 같은 사람일 수는 없고, 타자가 되어보는 상상을 할 때도 ‘나’를 버리지는 못하며, 결국은 타자의 관망자(spectator)에 머물 수밖에 없다. 공감하는 주체가 타인의 관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타자는 언제나 나의 밖에 있고 또 자신은 타인이 겪고 있는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스미스, 2009; 민은경, 2008). 이러한 공감의 한계는 그 이후에 따르게 되는 ‘실천’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 바바렛(J. M. Barbalet, 2007)은 - 아직은 자아의 외부에 존재하는 - 감정은 행위자가 그에 따라 움직인 결과 주체에 통합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자아 밖에 원인을 갖는 감정은 존재의 적극적 활동으로 인해 마침내 내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면접 참여자들은 동물운동에의 참여라는 적극적 활동을 통해 타자-나 사이의 간극을 좁히며 공감을 내적으로 경험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성찰의 이론

근대적 자아와 주체는 타자를 자신의 동일성 속으로 전유하고 착취하는 위험한 존재가 되었지만, 실제로 자아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한다. 타자를 배제하고 상호인정을 하지 않는 일방적인 자아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추측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게 된다.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을 구축해 온 미드(G. H. Mead, 1934) 역시 타자의 의미가 반영된 관계성을 중시하여, 타자가 부여한 의미와 내가 나에게 부여한 의미가 일치할 때 스스로 사회적 객체로서 인식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미드는 자아를 ‘I’와 ‘me’로 구분하고 있는데, ‘I’는 타자의 의미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능동적이고 자연적인 자아로, ‘me’는 타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대상 혹은 객체로서 성찰적인 자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드의 자아 구조를 통해 김홍중(2007)은 다음과 같이 ‘성찰’의 속성을 설명한다. 즉 성찰은 자연적 자아가 대상과 인식론적 관계를 맺는 과정 그 자체(<자아→대상>)를 성찰적 자아가 새로운 대상으로 포괄함으로써 <자아→<자아→대상>>이라는 관계를 창출하는 이중적 시선의 운용법이다. 이러한 메타적 관계 속에서 성찰적 행위는 ‘시선에 대한 시선’, ‘재현에 대한 재현’, ‘성찰에 대한 성찰’, ‘판단에 대한 판단’과 같은 반복적이고 재귀적 구조를 갖게 된다. (김홍중, 2007)

‘성찰’은 명료하게 정의되기 어려우며 학자마다 그 의미가 다른 개념이기는 하나, 이러한 속성을 고려할 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으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행위의 주체가 자신의 사고와 행위를 되돌아보는 과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기든스(A. Giddens, 2010)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매 순간 혹은 정기적인 간격으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면에서 자기심문을 하도록 요구된다”며 자아성찰을 “연습된 자기관찰 기술”로 설명한다.

성찰은 크게 사회구조의 규칙·자원 등에 대해 성찰하는 구조적 성찰과 행위자가 자신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자아성찰의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래쉬, 1998), 특히 본 연구의 내용에서는 동물권 활동가들이 실제적으로 ‘상대(동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의 자아성찰이 강조되고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고통 받는 동물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통해 실천을 하게 되는 동물운동가들은 강고한 인간중심적 지배 구조와 동물과의 의사소통 등의 문제에 맞부딪히며 ‘그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렌트(H. Arendt)가 강조하는 ‘자신의 입장을 고통 받는 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에 놓고 상상할 수 있는 성찰적 판단 능력’은 동물운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성찰적 판단 능력과 관련하여 아렌트는 1961-1962년 사이에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아이히만⁹⁾ 재판 참관기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1963)』을 통해 ‘왜 아이히만과 같이 평범한 사람이 중대한 정치적 악행을 했을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다. 아렌트는 인간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전락시키는 장소인 나치수용소를 두고 지구에 존재하는 지옥이라고 규정하고 그곳에서 진행되는 조직화된 대량학살을 ‘근본적 악’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재판과정에서 아이히만의 언행을 보고 ‘말과 사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을 확인하게 된다.

그녀는 아이히만이 행한 악행의 이유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의 총체적인 사유 부재 (thoughtless)”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고유한 진부하고 판에 박힌 문구, 관습적인 언어 규칙들”에 너무나 깊이 사로잡혀 “타자의 입장에서 사유하는 데 있어 무능력”했던 것이다. (아렌트, 2006)

아렌트는 이렇듯 타자의 입장에서 진정한 사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성찰적 판단력, 즉 공통감각(common sense)으로 설명한다 (아렌트, 2002). ‘공통감각’이란 나와 다른 타자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간관계의 복수성 속에서 타자의 관점으로 확장된 사유방식을 말한다. 즉 이것은 타자와 함께하는 현실적 상황에 자신을 개방하고 자신의 위치를 타인의 위치로 전도시켜 생각할 수 있는, 자신에게서 타인에게로 확장되어가는 사유방식이다.

우리가 고통 받는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그의 입장에 놓고 사유할 수 있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고통 받는 자의 신체적 지각과 시선·표정·몸짓·비유적 표현에 주목하면서 타인이 처한 총체적인 삶의 현실과 곤경상태를 자신에 비추어 상상하여 성찰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진정 그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공병혜, 2008)

9) Karl Adolf Eichmann (1906 ~ 1962) : 독일의 나치스 친위대 장교.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및 독일 점령하의 유럽 각지에 있는 유대인의 체포·강제이주를 계획·지휘했다.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타자의 입장으로 바꾸어 생각해보는 아렌트의 성찰적 사유는 앞서 살펴본 공감 형성의 기본 구조이기도 하다. 상대의 처지와 정서가 나의 그것들과 동일하지 않은 것임에도 상대의 입장에서 나를, 그리고 나의 입장에서 상대를 상상하는 공감과 성찰은 자아와 타자 사이에 폭력이 아닌 다리를 놓는 관계성의 실천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동물권 이론

동물권(animal rights)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동물복지론(animal welfarism)에서 진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0세기 들어 인류 문명사회가 부작용을 일으키며 여러 반성적 학문과 목소리가 등장하게 되었지만, 1970년대 이전까지 동물을 위한 목소리는 ‘동물은 인간의 재산이고 인간의 동물에 대한 책임은 동물에 대하여 불필요한 죽음과 고통을 금하는 것’ 정도였다. 이러한 전통적 의미의 동물복지론 입장에서 있는 이들은 인간이 책임 있는 자세로 동물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동물이 인간 사회에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대신 동물을 최대한 인도적으로 다루자는 입장인 것이다. (유선봉, 2008; 그랜트, 2012)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출현한 동물권 운동은, 동물들은 지각·감각 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도덕적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론가는 싱어(P. Singer)이다.

싱어(1999)는 한 존재의 본성이 어떠하든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고통과 평등하게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그는 - 개혁적 공리주의 학파의 창시자인 - 제레미 벤담(J. Bentham)이 한 존재에게 동등한 고려의 권리를 부여하려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특징으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capacity for suffering)’을 들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이익(interests)을 갖는다는 것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다. 특히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과 관련된 이익은 한 존재자가 이익을 갖는다고

할 때의 필요충분조건이다.¹⁰⁾ 지능이나 합리성 등과 같은 다른 특징으로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임의적이라 할 수 있다.¹¹⁾ 설령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한다고 해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자신이 속한 인종의 이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평등 원리를 위배하고 있듯이, 종차별주의자(Speciesist)들은 스스로 속한 종의 이익이 다른 종의 보다 큰 이익을 능가해도 그것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물의 이익과 인간의 이익이 비슷할 경우 - 특히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 - 이러한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지 않는 태도를 상어는 종차별주의(Speciesism)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동물의 이익에 거의 비중을 두지 않았던 과거의 전통적인 동물복지론보다는 분명 진일보한 이론이지만, 그가 동물의 이용 또는 동물착취관행의 철폐까지 주장한 것은 아니다 (G. L. Francione, 1996; 유선봉, 2008). 그런 면에서 상어의 입장은 - 동물권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고전적인 동물권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동물권 입장을 정초한 사람은 리건(T. Regan)으로서, 그는 동물들을 삶의 주체(subjects of a life)로 생각하고 이들은 동등한 각자의 본래적 가치(inherent value)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Regan, 1983). 따라서 동물들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인간에 대한 유용

10) 콕스(J. Cobb & L. C. Birch, 2010)는 인권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수많은 주체들이 동물권 논의에는 부적절하다고 설명한다. 개별 인간 존재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윤리적 과제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가능한 한 그러한 풍부성을 많이 깨닫도록 서로 돕는 것이다. 하지만 동물을 다룰 때는 이것이 대체로 부적당하고, 대부분의 경우 인간이 동물의 경험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따라서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과 아픔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에 동물운동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11) 이는 지금까지 지배적이었던 ‘도덕적 지위를 누리려면 인격이 있어야 한다’는 가정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인격(personhood)은 동물권을 해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데, 이성철학적 전통에서 인격은 여타 자연과 구별되는 - 자기인식 · 합리성 · 사회성 같은 복잡한 형태의 의식 같은 - 인간종의 특성을 일컫는 편협한 의미로 종종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태아와 어린 아이 또는 심각한 지적 장애인이나 정신적 문제로 심리적 · 사회적 능력이 급격히 손상된 사람의 도덕적 지위를 고려하고 있으며, 최근 동물행동학자들은 이러한 특성들이 동물들에게서도 발견됨을 보고하고 있다. (민윤영, 2011; 드그라지아, 2012)

성 여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

그는 싱어에 비해 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과학·교육·상업적인 목적에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 식품으로서 동물을 사용하는 것, 사냥이나 동물원, 애완용으로 동물을 사용하는 것 등의 동물에 대한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비난하고, 인간의 이익과 동물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에도 동물의 본래적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동물권 이론의 입장은 동물착취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폐지, 동물들의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만족하지 않고 동물의 권리 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동물은 인간처럼 존중받아야 할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재산으로서 취급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데자르탱, 1999; 유선봉, 2008). 리건의 이러한 입장은 평등주의적이고 각 개체들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인 행위 지침은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인간의 동물에 대한 사용을 본질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권 이론은 아직 시기상조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현실적 관계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허남결, 2005; 박찬운,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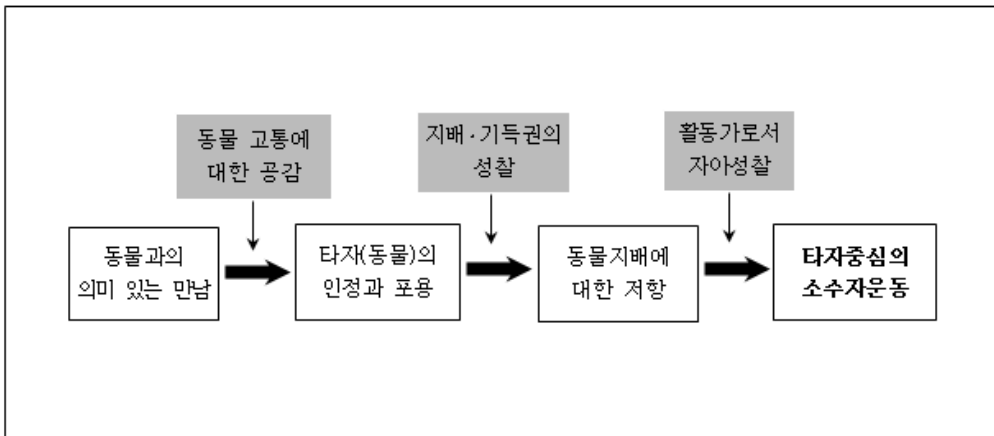
따라서 동물권 이론과 동물권 운동 간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운동 진영에서 권리라는 용어는 동물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동물권 운동은 기본적으로 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동물을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는 동물복지론과 연결되어 있어, 동물권을 지속적인 동물복지 개혁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태로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 이와 같이 운동의 장기적인 목표는 동물권이지만 단기적인 수단으로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절충적인 입장은 신복지주의(New Welfairism)라 불린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동물착취 관행의 폐지를 목표로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동물착취를 규제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G. L. Francione, 1996; 유선봉, 2008). 한국의 동물운동 역시 현실적 실천은 동물복지에 기반을 둔 상황에서 장기적 목표는 동물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최근 들어 점차 깊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신복지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분석의 틀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본문에서는 활동가들이 대략적으로 어떠한 의미과정을 통해 자신의 동물권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하겠다. 즉 행위자로서 그들이 경험하는 내적 체험 및 시스템에 대한 저항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동물을 타자화하고 지배하는 현 사회구조의 기제를 탐구하고 소수자 운동으로서 동물권 운동이 내포하는 타자관계의 함의를 읽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대략적 내용구성의 틀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 활동가들의 경험에 따른 동물권운동의 의미 변화 과정>



<그림 1>은 활동가들이 경험하고 의미화하는 동물운동의 변화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활동가들의 운동 실천은 그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변화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 등 행위자의 내적 의미화 과정과 밀접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모두의 경험이 화살표로 표현된 위의 순서로 정확하게 진행된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이 도식은 복잡한 현상의 관계적 인과성, 즉 본 연구에서는 활동가의 행위의 흐름 및 동물 억압 메커니즘을 추상화하여

구성한 이상형(ideal type)으로서 분석틀이라 할 수 있다. 전체 과정에서 각 단계가 의미하는 바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인간과의 차이를 기반으로 ‘열등한 존재’로서 타자화되는 동물은 인간중심 질서 속에서 차별 받고 배제된다.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편견임을 인식하고 그들을 타자가 아닌 우리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동물운동의 첫 단계 활동으로 보여진다. 활동가들의 이러한 실천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동물과의 관계에서 경험되는 - 특히 그들의 고통에 대한 - 공감이다.

활동의 첫 단계로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동물을 인간과 다르지 않은 존재로 인정하고 우리 도덕 공동체 내로 포용하여 그들의 이익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면, 그 다음 단계에서 활동가들이 갖게 되는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 첨예한 것이다.

즉 동물을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타자화 정치가 자연스럽게 정당화하게 되는 동물 지배 구조 및 그 속에서 인간이 얻게 되는 기득권을 성찰하게 되고, 이에 저항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 그들의 저항은 지배구조 속에서 기득권 계층이 누리게 되는 일상 속의 관성을 스스로 탈피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여기서 보여지는 동물권 활동가들의 성찰이 동물을 지배하는 사회구조와 그 유지기제를 깨닫고 드러내는 작업이라면, 이어 그들이 겪게 되는 성찰은 ‘저항하는 자’로서 활동가들이 자신과 자신이 몸담은 동물운동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자기성찰로서 ‘타자를 중심에 놓는 사고’가 강조된다. 이는 차별과 지배에 대한 저항의 맥락에서 소수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동물운동이 다른 소수자운동과 - 운동의 주체와 대상이 다르다는 점에서 - 구별되는 특수한 지점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며 동물운동은 동물 문제를 단순한 ‘케어’를 넘어 사회적 타자를 지배하는 권력관계의 틀로 바라봐야 한다는 정치적 시각이 강조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동물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타자중심성을 띠게 된다.

이상 같은 분석틀을 통해 활동가들의 경험에 따른 동물권운동의 의미 변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본문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둘러싼 권력구조와 활동가들의 실천이 맺는 상관관계 속에서 동물권운동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탐구해보도록 하겠다.

III. 동물권운동 논의의 사회적 배경

서구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인식·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입법과 운동이 처음 발생한 시점이 19세기이고 동물의 복지·권리에 관한 현대적 논의가 시작된 것이 1970년대였음을 감안한다면, 역사가 10년 조금 넘는 우리나라 동물운동은 아직 기반을 다지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물의 처우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며 동물운동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참여 또한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 속에 동물권 운동도 사회운동의 한 영역으로서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

한국사회의 동물운동에 대한 본격적 논의로 들어가기 전에 이 장에서는 먼저 동물 관련 현황과 동물의 복지·권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그리고 동물관련법과 동물운동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동물운동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지형을 그려보도록 하겠다.

1. 동물들의 현실

일상 속에서 동물을 접하기 힘들어진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가장 가깝고 친숙한 동물은 반려동물일 것이다. 최근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려동물은 가족’이라는 표현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2012)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서 2011년 현재 개나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은 17.9%로서 약 359만 세대에 이른다. 가정에서 사람과 함께 사는 개의 수는 440만 마리, 고양이는 116만 마리로서 모두 556만 마리가 반려동물로서 인간과 삶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¹²⁾

하지만 사람에 의해 길러지는 동물이 많은 만큼 버려지는 동물들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유기동물의 급속한 증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2) 조사 주체인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렇게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많아진 것에 대해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 현대인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동물과의 관계로 대체하려는 사회적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2012)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02년 1만 5000여 마리로 추산된 국내 유기동물 수는 지난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11년 9만 600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절반에 가까운 약 4만 4400 마리는 안락사 되거나 자연사했다. 그러나 이는 ‘공식’ 집계 에 불과할 뿐, 동물운동 진영은 실제 유기동물의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 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2> 2011년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

구 분	유기동물 발생 수				유기동물 처리 수							
	계	개	고양이	기타	계	인도	분양	기증	자연사	안락사	방사	기타
계	96,268	55,902	39,195	1,171	96,268	7,328	25,101	1,544	18,772	25,659	12,037	5,827

- * 인도 :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9)
- * 방사 : 고양이에 한하여 중성화수술 후 방사
- * 기타 : 보호조치 중, 미포획 등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은 10일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시·군·자치구에 귀속되어 안락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동물보호에 관심 있는 이들은 안락사 되는 동물의 수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하여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 동물들이 가장 많이 학대당하고 희생되는 영역은 단연 축산업계이다.¹³⁾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닭 7억 6627만 마리, 돼지 1083만 마리, 소 85만 마리 등 국내에서 한 해 동안만 가축 8억여 마리가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 도축된 것으로 집계되었다.¹⁴⁾

현대 사회에서 동물성 식품의 대부분은 ‘산업축산’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고

13) 매년 미국에서 죽는 동물 가운데 97%는 음식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살된다.
<http://www.animalliberationfront.com> (March 5, 2010)

14) (사)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http://www.kmta.or.kr>

<표3> 2011년 한국 도축현황

구분	소(두)				돼지(두)			닭(천수)
	한우	젓소	육우	계	암	수	계	
총수	720,508	37,890	94,397	852,795	5,832,174	5,002,514	10,834,688	766,271

(자료 :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있다. 그것은 육류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집약적인 생산라인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육하는 시스템으로서, 동물들은 고도로 기계화된 공장에서 상품이 제작되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과정으로 사육되기 때문에 ‘공장식 축산’으로 불린다. 공장식 축산의 목적은 속도와 비용을 낮추고 동물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동물은 비좁고 밀폐되고 단조로운 환경에 갇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빨리 성장되도록 약물이 첨가된 인공 사료를 공급받는다 (메이슨&피넬리, 2012; Cox, 2007). 공장식 축산의 과정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동물들이 비인도적으로 사육되고 도살되고 있다는 점에서 육식산업·문화는 오늘날 세계의 동물운동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다.

실험동물에 대한 처우 역시 열악한 것은 마찬가지여서, 매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대학, 제약회사, 상업적인 실험시설 등에서 사용된 뒤 죽어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실험동물이

<표 4> 2011년 한국 동물실험 실태

구분	국공립기관 등	대학	의료기관	일반 기업체	합계
실험기관	44	89	38	110	271
사용동물	312,623	467,726	134,924	744,544	1,659,817

* 실험기관 :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 중 실험이 이루어진 곳

(자료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2012.9)

몇 마리나 이용되는지 어떤 목적에 이용되는지에 대한 정확하고 포괄적인 통계조차 없다 (라이더, 2012).

우리나라의 경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2012)의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약 166만 마리의 실험동물을 사용했다. 실험동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물은 설치류이며 그밖에도 개·돼지·원숭이·토끼 등이 이용되고 있다.

동물운동가들은 동물들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화장품·세척제·산업용 화학물질·식품 첨가제·공산품 생산시 습관적으로 동물실험이 실시되고 있다며, 동물실험의 3분의 2 정도가 인간의 건강이나 의약품과는 거의 대부분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다.¹⁵⁾ (그랜트, 2012)

이러한 동물실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서구에서는 3R원칙¹⁶⁾이 1990년대부터 자리 잡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008년부터 모든 실험기관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물실험의 현장에서는 아직 윤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2011)

이상 반려동물·축산동물·실험동물은 그동안 동물운동 진영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온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전시·공연 동물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연간 1억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1만 개소의 동물원을 찾고 있는데 (L. Petrinovich, 1999), 거의 모든 동물원은 야생에서 거주하던 공간과 비교할 때 턱없이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동물운동의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그곳은 동물쇼가 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KAZA)에 등록된 19개 회원사 가운데 어린이대공원, 삼성에버랜드동물원, 퍼시픽랜드, 주주동물원, 한화 63시티 등 5개 회원사에서 동물쇼를 벌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쇼를 규제·관리하는

15) Canadian Council on Animal Care, 2001 Report.

16) 대체(Replacement) 수단을 강구하여 동물실험의 횟수를 줄이고, 실험에 이용되는 동물의 수를 감소(Reduction)시키고, 사육·처리 과정을 개선(Refinement)하는 것.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공연강도, 먹이급여, 휴식시간 등 쇼에 동원되는 동물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복지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¹⁷⁾

2. 동물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계속 변화해 왔는데, 특히 현대인에게 있어 동물은 일상 속 친밀한 교감의 상대로서 의미가 매우 커졌다. 기든스(2007)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로 전통적 가족 의무를 유보하는 대신 개인 행복을 추구하려는 일반적인 분위기를 언급하며, 정서적 의사소통이 가족과 사적 영역에서 우리 삶의 핵심 관건이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의 한 켠에 동물과 인간의 관계 변화 역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이는 동물과 관련한 새로운 용어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애완동물 (pet)’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애완동물이란 용어는 인간이 동물을 소유물로서 일방적으로 보거나 만지면서 즐긴다는 의미를 암시하기 때문에 요즘은 사람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여 동물을 한 가족, 반려로 인정하고자 하는 ‘반려동물 (companion animal)¹⁸⁾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오늘날 가정에서 길러지는 많은 동물은 인간에게 단순히 장난감 같이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으로 인간과 함께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며 동고동락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서윤, 2009).

또한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들을 일컫는 ‘캣맘¹⁹⁾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

17) “우탄이는 왜 쇼를 거부했나” (최우리, 한겨레, 2012.05.04)

18) 인간의 장난감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이라는 인식이 확대되며 1983년 동물행동학자인 로렌츠(K. Lorenz)가 개 고양이 새 승마용 말 등의 동물을 ‘반려동물 (companion animal)’로 부르도록 제안하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반려동물’은 장난감이란 의미를 지닌 ‘애완동물’의 대안어이다. ‘애완(愛玩)’의 ‘완(玩)’자는 ‘희롱하다’, ‘가지고 놀다’라는 뜻으로, 장난감을 의미하는 완구(玩具)의 ‘완(玩)’자이다. (전은경, 2009)

19) 남성들의 경우 ‘캣대디’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다. ‘캣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2005년 생긴 최대 조직 한국고양이보호협회에선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자비로 중성화 수술을 시키고 방사해 먹이를 주고 있다고 한다.²⁰⁾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과 함께 TV와 영화 등 동물을 친근하고 빈번하게 다루는 미디어의 영향 그리고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해 현대인들의 동물에 대한 긍정적 관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물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어찌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반려동물 문화가 일찍부터 자리 잡은 서구사회의 이야기인 것만은 아니어서, 2005년 중국·한국·베트남인 등 아시아 각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90퍼센트 정도가 인간에겐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의 대다수가 동물보호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²¹⁾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에 따르면,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응답자 대부분인 98.1%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답변이 2006년 조사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동물에 대한 의식 수준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화에 대해서도 94.1%가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동물보호 수준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응답자들의 67.7%가 낮은 수준으로 여기고 있었다.

본 논문의 면접참여자들 역시 한결같이 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최근 들어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고 있음을 지적한다.²²⁾ 이러한 흐름은

20) “길고양이의 엄마, 캣맘이 돼보실래요” (남종영, 한겨레, 2012.06.01)

21) “Asia 'Wakes Up' to Animal Welfare : Caring for Animals Is Not Just a Western Whim - Millions of People in Asian Countries Think Animal Welfare Is Important, a Mori Poll Has Discovered” (BBC News, March 17, 2005)

22) “예를 들면 저희가 연평도 포격 사건 때 그곳에 방치된 동물들한테 사료를 보내달라는, 그리고 이런 긴급상황 터졌을 때 동물들도 돕고 구조할 수 있는 조취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인터넷 서명을 받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전 같았으면 ‘사람도 위기인 상황에 동물을 구하라고 그러냐’라고 비난했을 텐데, 최근에 생각이 많이 바뀐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동물 문제와 운동에 대해 어린 학생들부터 사람들의 관심과 인식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게 느껴져요.” <사례 1>

동물 관련법과 제도의 점진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3. 동물의 복지·권리에 관한 법

1) 해외 동향

아직은 많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동물 관련 논의와 달리 그동안 국제사회에서는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우선 세계 각국의 동물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국제 선언을 살펴보자면,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천명한 ‘세계동물복지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Animal Welfare)’이 있다. 이는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동물에 대한 복지가 모든 국가의 공통의 목적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며, 동물이 당하는 고통과 잔인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 및 복지 기준을 개발할 것을 각국에 요청하고 있다. 이 선언은 국제적 동물보호 NGO들이 UN에 채택을 제안, 2003년 유럽평의회와 미국 등 19개국이 참석한 동물복지에 관한 마닐라 회의에서 동의를 받았다. (박찬운, 2010)

한편 1978년 UNESCO에 제출되고 1989년 국제동물권연맹(International League of Animal Rights)에 의해 보완·수정되어 최종 확정된 ‘세계동물권리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Animal Rights)’은 사람에게 인권(Human Rights)이 있듯 동물에게 ‘동물권(Animal Rights)’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 선언문은 동물이 자연권·평등권·생존권·존중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에 대한 착취 및 학대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가축·반려동물·사역동물·동물실험·식용동물·오락동물 그리고 동물의 대량도살 등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배의철, 2012; 샤프

“10여년 전에는 관심 있는 사람 자체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나서는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성장을 해서 우리나라 동물운동이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제가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 동물학대나 보호 이슈에 대해서 일반인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시각이 되게 많이 달라진게 사실이거든요. 지금은 동물보호단체를 알고 더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사람들이 젊은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아진게 느껴져요.” <사례 2>

티에, 2006; 유선봉, 2008)

그전까지 법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동물을 배려하는 법적 고려는 특히 유럽에서 무척 강한 편이어서, 유럽 연합(EU)은 1999년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의 ‘동물보호와 복지에 관한 의정서’에서 동물을 지각적 존재(sentient beings)로 인정하고 각 회원국들이 그에 걸맞는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60년대 이후 5개의 구속력 있는 주요 협약²³⁾을 만들어냈다 (박찬운, 2010). 특히 영국은 1979년 농장동물복지위원회(Farm Animal Welfare Council)를 두어 정부 정책 수립에 동물복지에 관한 지문을 얻기 시작했다. 1993년 이 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져 전세계 농장동물 복지의 표준이 된 원칙이 동물의 5대 자유²⁴⁾이다.

한편 동물을 단지 보호의 객체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아서 안되는 ‘삶의 주체’이자 법적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동물권론 역시 힘을 얻어가고 있으며 이는 법개혁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민윤영, 2011). 1999년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유인원에게 기본권(Basic Rights)을 부여하였고, 2002년에 독일은 동물에게 헌법상의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2008년에 스페인 의회는 유인원에 대해 생명권과 위험한 연구관행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한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하였다. (리프킨, 2010; 유선봉, 2010)

23) 동물수송에 관한 협약(1968), 농장동물복지협약(1976), 농장동물 도살에 관한 협약(1979), 동물실험에 관한 협약(1986), 반려동물에 관한 협약(1987).

24) 1. 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Hunger and Thirst), 2.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Discomfort), 3. 통증·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Pain, Injury or Disease), 4. 정상적인 행동 표현의 자유 (Freedom from Express Normal Behaviour), 5. 공포와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Fear and Distress). <http://www.fawc.org.uk> 참조.

2) 국내 동향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동물 관련법들은 전반적으로 동물에게 적정한 권리를 인정해주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동물은 - 인간중심·산업중심적 관점에서의 - 보호나 관리의 대상 그리고 실험의 객체로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목적 그 자체로서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 (민윤영, 2011).

특히 우리나라의 법제상 동물은 물건 내지 동산(動産)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재산의 소유자는 재산권의 객체인 동물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동물)은 어떠한 종류의 권리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유봉, 2012).

이렇듯 법적으로 동물의 생명체로의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에 강아지 인형의 팔을 자르는 것과 생명체로서의 강아지의 팔을 자르는 것은 동일한 ‘재물의 손괴’로 다루어지고, 자기 소유의 재물은 형법상 처벌규정이 없기에 ‘고의가 없었다’는 소유자의 진술만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이 동물학대 사례에서 반복되고 있다 (배의철, 2012).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동물을 위한 법은 동물보호법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동물등록을 통한 보호, 적정한 사육관리, 동물학대의 금지, 동물운송에서의 준수사항, 유기동물의 보호, 보호시설의 설치, 도살방법의 제한, 동물수술, 동물실험의 원칙 등을 정하고 있다.

1991년 정부 입법으로 제정된 동물보호법은 1988년도 올림픽 개최에 즈음하여 한국의 개고기 식용과 그 과정의 잔인한 모습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지고 비난 받자 동물들에 대한 처우를 고민하지 않고 ‘보여주기’ 식으로 급조한 법으로서, 그동안 아홉 차례나 개정되었으나 아직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 동물운동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동물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학대’의 경우, 과실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학대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중요한 조항들이 권고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소극적 적용의 문제 및 규정상의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배의철, 2012). 처벌은 2007년 5차 개정 전까지는 겨우 벌금 20만원에 불과했으나, 동물단체들의 지속적인 비판으로 네 차

례의 개정을 더 거친 지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격상된 상태이다.

동물보호법은 전반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동물의 개념이 - 유럽은 지각적 존재(sentient beings)라는 개념 속에서 대단히 광범위하게 인정하는데 반해 - 매우 제한적이며²⁵⁾ 동물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간단하게 규정하고 중요한 내용이 다수 결여되었다는 등의 여러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박찬운, 2010; 유선봉, 2008).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동물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4. 동물권 운동의 현황

동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은 결국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만들어져온 것이었다.

서구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기존의 인식·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세기이다. 동물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영국과 미국에서 복지와 학대 관련법이 제정되고 몇몇 운동단체들이 설립된 것이다. 철학의 부족과 인간중심적 사고로 인하여 당시 의학과 생물학계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혀 이 흐름은 20세기 중반까지 별다른 계기 없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해리슨(R. Harrison)의 『동물 기계(Animal Machine, 1964)』, 싱어의 『동물 해방(Animal Liberation, 1975)』과 리건의 『동물권의 옹호(The Case for Animal Rights, 1983)』 등의 출간을 계기로 1970년대부터 동물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논의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동물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유선봉, 2008; 2010)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천 개 집단이 다양한 사안을 다루고 서로 다른 전술을 구사하며 활동을 하고 있다. 그중 가장 영향력이 단체로는 여러 나라에 지부를 두고 수많은 회원을 두고 있는 ‘PETA’와 ‘동물해방전선’을

25) 동물보호법 제2조 제2호는 동물의 개념을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고 정하고 있다

들 수 있다. 1980년 설립된 PETA(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캠페인과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76년 영국에서 설립된 동물해방전선(Animal Liberation Front)은 동물을 구출하고 동물을 착취하는 시설을 공격하는 등 불법적인 직접행동도 불사하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그랜트, 2012)

현대 동물권 운동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채식주의 운동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늘어나기 시작한 서구사회의 채식주의는 특히 1960년대 반문화와 결합되어 1980년대에 상당한 규모에 이르게 된다. 채식 위주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사육되고 도살되는 과정에서 학대 받는 엄청난 수의 축산동물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랜트, 2012; 유선봉, 2010) 동물권운동 차원으로서 ‘채식주의’에는 동물의 희생으로부터 나오는 다양한 부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포함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 단체로서 1991년에 ‘한국동물보호협회’가 창립되어 주로 유기동물 보호를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해온 가운데, 본격적인 동물운동의 태동은 2000년을 전후로 개고기 문제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0년이 조금 넘는 한국 동물운동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 펫 산업이 부흥하며 그 반작용으로 길거리에 버려지는 개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예전부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던 개고기 문제가 논란의 대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자, 이러한 문제들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목소리들이 모여 조금씩 관련 단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동물운동은 ‘개’ 문제로 인해 출발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그 도화선이 된 것은 개고기 식용 법제화 논란이었다. 1999년 김홍신 당시 국회의원은 개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에 포함시키기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했던 것이다. 김홍신 의원은 당시 논거로서 ‘문화상대주의’와 ‘이렇게 개를 법적으로 축산물의 테두리 안으로 들임으로써 잔혹한 도살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²⁶⁾

26) 이는 그 후에도 2002년 김홍신, 오세훈 의원 등에 의해 다시 시도되었다가 2002년 월드컵을

이 논란을 통해 ‘한국의 동물운동은 곧 개고기 반대 운동’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동물권 운동 단체가 개 식용 문제에 저항하며 태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 설립되어 아직도 한국 동물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는 조직으로는 누렁이살리기운동본부, 동물학대방지연합, 동물자유연대, 한국동물보호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이상 1999년 설립), 동물사랑실천협회, KARA (이상 2002년 설립) 등이 있다.

2005년에는 정부가 ‘식용견 위생관리 방안’을 추진하여 또 한 번 개고기 반대 운동이 불붙게 되고, 그 다음해인 2006년에는 장수동 개지옥 사건²⁷⁾이 터지면서 동물보호법 개정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전까지는 형식적 틀만 유지해 왔던 동물보호법이 미약하게나마 동물을 보호하는 기본법의 모양으로 개정된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한국 동물운동 단체들의 역량은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다.

그 후 조류독감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에 의한 생매장이 거듭되며 2007년경부터는 농장동물들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와 문제제기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동물운동은 반려동물·농장동물·실험동물·전시공연동물 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구조 및 입양·캠페인·항의·서명운동·법 청원운동·실태조사·법적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태동은 개 식용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점차 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세분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고양이보호협회 (2005년)’를 중심으로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모색하며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많아졌으며, 환경운동연합 ‘하호 (2000년)’, ‘햇핑크돌핀스 (2011년)’, ‘동물을 위한 행동 (2012년)’ 등의 조직이 전시·공연동물들에

앞두고 다시 논란을 일으키며 입법되지 못했다. 그후 2005년에는 국무조정실에 의해 “개 등 동물의 보호와 식용견 위생관리 방안”이 추진되었고, 2008년에는 서울시가 개도 축산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축가공법 개정을 건의하는 방안 추진이 추진되었다. 이 모든 시도들에 대해 동물운동 진영은 동물보호법으로는 ‘애완견을 보호한다면서 식용견은 열악한 축산 시스템에 몰아넣는 모순적 태도’라고 비판한다.

27) 인천에서 개농장 주인이 이전 보상비를 받기 위해 수백 마리 개를 방치해 굶겨 죽이거나 서로 잡아먹도록 만든 사건.

대한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비판담론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운동은 서구사회에 비해 아직 역사가 짧고 사상적 배경과 운동의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들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시민들의 사회적 관심과 참여로 인해 꾸준한 발전의 단계를 밟고 있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 복지에서 진화한 개념인 동물권 이론은 동물착취를 규제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폐지, 동물들의 생활여건의 개선으로 만족하지 않고 동물의 권리 확보를 요구한다. 하지만 운동 차원에서 행위 지침이 되기에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닌 동물권 ‘운동’은 장기적으로는 동물권을 지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동물복지를 추구하는 절충적 입장을 보일 때가 많다. 동물권 이론·운동의 출현으로 일부 동물복지 단체도 급진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그랜트, 2012) 현실 속에서 동물권 운동과 동물복지 운동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동물운동도 마찬가지로 장기적 목적과 단기적 목적 사이에서 절충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과거에는 동물들의 권리보다는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다면 최근에는 동물을 ‘인간의 수단이 아닌 본래적 권리가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동물권 운동으로서의 성격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IV. 동물의 타자화와 활동가들의 공감

차별은 우리가 아닌 집단에 대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그들에 대한 억압과 지배로 이어지게 된다. 이 장에서는 인간 역시 동물의 한 종임에도 그들을 타자화하는 구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동물권 활동가들이 어떠한 경험을 통해 그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되고 실천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타자화를 통해 동물은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됨으로써 그 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못하지만, 활동가들은 동물들의 이익, 특히 ‘고통’에 대해 민감한 고려를 하게 되고 그들을 인간과 같은 구성원으로서 포용하게 된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공감’이라는 활동가들의 개인적 경험은 이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1. 동물에 대한 차별과 배제

1) 인간중심주의와 종차별주의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열에 기반한 이항대립적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타자의 구성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 관계는 자연(그리고 그 일부인 동물)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본래적 가치가 아닌 도구적 가치만을 인정하는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의 관점과 연관되어 있다.

인간도 동물인데 마치 아닌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언어화하는 순간 이미 차별은 시작되는 거고 경계짓기는 시작되는 거고 주변으로 밀어내는 거고. 인간이 중심에 있고 나머지가 동물인 거잖아요. 야생동물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아닌 애들, 문명의 범주 밖에 사는 애들인 거죠. ‘야만’과 거의 동격으로. 사실은 문명이 더 야만적인 모습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야생’의 의미는 거칠고, 열등한, 체계 없는 거, 정리하고 관리해

서 이용해야 하는 그런 아직 불모지 같은 것으로 치환되는 것 같아요. 자연이 그냥 열등한 것들 또는 문명이 아닌 것들로 범주화되면서 동시에 주변화되는 거지. 사실 문명이라면 고작해봐야 요렇게밖에 안 되는 건데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넓고 위대한 영역을 나머진 야생으로 밀어넣는 관점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사례 8>

탈식민주의 학자인 사이드(E. Said, 1978)에 따르면, 문명·기술·질서·남성·밝음 등과 같은 긍정적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는 서양은 그 반대적 속성인 야만·신비·무질서·여성·어두움 등으로 규정되는 동양의 이질성을 거울로 삼아 서양을 권위화하고 동양을 지배해왔다.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권력의 중심인 인간에게 주변부인 자연은 문명에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오리엔탈적 타자로 구성되는 것이다.

야생동물들에 대해 오래 전부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례 8>은 인간과 동물의 구분 그리고 ‘야생동물’이라는 표현에 깃든 야만/문명의 논리에서 제국주의적 역학을 읽어낸다. 오늘날 특히 선진국에서 ‘야생’이라는 말은 ‘문명’이 아닌 거의 모든 장소를 일컫는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자연을 길들여 왔고 야생인 것은 무엇이든 경계·통제 밖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베코프, 2011).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는 게 도구를 사용하고 놀이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놀이하러 인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동물도 도구를 사용하고 동물도 놀이를 하고... 인간도 동물이지만 개네들도 다 하는데 마치 그게 인간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간만 언어가 있고... 아니잖아요, 다. 다 거짓말이었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유전적으로도 연관돼 있다는 걸... 침팬지와 우리가 뭐 99%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서요.²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례 9>

28) 인간은 오랑우탄과 유전 부호의 96.4%를 공유하며, 고릴라와는 유전적으로 97.7% 똑같다. 침팬지, 보노보와는 DNA의 98.7%가 일치한다. (피터슨, 2012)

<사례 9>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 특히 과학의 이름으로 - 인간과 다른 동물들 간에는 - 인지능력·의사소통능력·감정·문화·자아인식 등에 대한 - 뛰어넘지 못할 극명한 차이가 있음이 주지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 수많은 동물행동학자들은 인간과 다른 동물들 간의 차이가 기존 관념만큼 크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²⁹⁾

이와 같이 동물에 대한 차별의 중요한 특징은 - 인간 역시 한 종의 동물임에도 - 동물과의 유사성은 부정하고 차이를 발명, 강조해 왔다는 점이다. 그 차이는 ‘동물에게는 이성·영혼·의식·언어가 없다’는 우월함과 열등함의 이분화된 가치에 기반한 것으로서, 이는 자연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로 연결된다. 이러한 ‘차이’는 소수자의 정치에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어서, 예컨대 인종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의 작동은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소한 차이를 엄청난 결함인 것처럼 과장하고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아예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행위까지 정당화해왔다 (박경태, 2009).

이렇게 인간의 우월함에 기반한 차별적 인식에 의해 동물은 우리 공동체의 바깥에 있는 자, 고통 받아도 괜찮은 집단으로 여겨지게 된다.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무시하는게 문제예요. 예전 데카르트 때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을 대부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거죠. 사람 같은 경우는 좀 멀리 있는 이도 고통에 처했을 때 그것에 대해 안타깝거나 도와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동물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주변에서 동물의 고통을 중시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거지. 그리고 옛날부터 봐온 다단식 닭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동물 키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또 더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동물은 그렇게 다뤄도 되고 물건 취급 상품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하게끔 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보게 돼요. <사례 10>

29) “동물과 우리 자신에 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인간과 동물 사이의 경계를 강조하는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동물과 인간이 서로 더 많은 연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카제즈, 2011)

<사례 10>은 ‘은폐’보다 더 큰 문제는 ‘동물은 괴롭혀도 상관없다. 그들의 고통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의식이라고 이야기한다. 김호진(2007)은 동물실험이 만연하게 된 기저에는 ‘동물은 이성도 없고 고통도 느끼지 못 한다’는 데카르트식 인식이 놓여 있지만, 그의 ‘동물기계론’이 황당무계한 논리로 밝혀진 오늘날에도 연구분야의 동물 이용 실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결국 “사람들이 동물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은 그들의 고통은 신경쓸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종차별주의적 인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호진, 2007).

종차별주의(Speciesism)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왜곡된 태도 (싱어, 1999)”를 뜻한다. 즉 사람의 피부색이나 성별이 다르다고 해서 이익을 다르게 고려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어떤 존재가 어느 동물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라 그 존재의 이익을 다르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특히 한 존재에게 동등한 고려의 권리를 부여하려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특징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capacity for suffering)’이다. 하지만 예컨대 농장 동물들은 그야말로 비참한 환경에서 잔인한 방법으로 사육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동물은 열등한 존재’라며 쉽게 정당화되는 현실인 것이다.

2) 동물의 추방과 배제

동물운동가들은 이 땅이 인간이 지배하는 영역이 되며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지 못하는 공간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반려동물마저 대부분의 공공장소·대중교통에 발을 들이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허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동물들이 인간중심의 공간에서 배제되는 현실은 몹시 심각한 정도이다.

차라리 철저한 개인주의가 나은 것 같아요. ‘너도 나 침범하지마, 나도 너 침범하지 않을게.’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피해를 다 입히면서

도 ‘너는 절대 나 침범하지 마’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하도 무분별하게 했기 때문에 동물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 된 건데 사실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공존이라든지... 예를 들면 지금 도시에서 유일하게 보는 동물이 비둘기랑 길고양이랑 개들이잖아요. 그런데 비둘기를 유해동물로 지정해버리고 길냥이도 다 시끄럽다 그렇고 더럽다고 다 죽이려고 그러고... 공존을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환경도 그렇고 다 재개발로 남루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만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갈 것인가. <사례 4>

조사팀과 함께 전국 고속도로 3천km를 완주한 거예요.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바퀴를 이틀 동안 다 돌아보자, 그러면 하루 동안에 죽은 동물의 통계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 과연 고속도로에서 몇 마리의 동물이 로드킬³⁰⁾ 당하는지 한번 처음으로 확인을 해보자... 그 결과 800마리 이상이 죽었어요. (...) 사실 대지 자체가 야생동물의 삶터인데, 우리가 거기 일방적으로 길을 낸 거잖아요. 인간만 사는 땅이 아닌데 ‘산은 다 우리 거야.’ 생태계 다양성을 위해서 저는 일정 정도 산을 돌려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부는 절대야생지구로 해서 인간이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곳으로 묶어둘 필요도 있고... 그럴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사례 8>

면접참여자들은 동물이 인간에게 ‘유해한 존재’로 규정되고³¹⁾ (사례 4), 인간에게 속도와 쾌적함의 공간인 고속도로에 ‘침범’한 엄청난 수의 동물들이 생명을 잃음으로써 추방되는(사례 8) 현실을 비판한다.

인간이 ‘동물이 아닌 존재’로 분리되며 그들이 머무는 ‘영역’도 함께 분리되었다.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구성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인간의 영역’에서 동물들을 배제하고 추방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추방이 지배 집단이 통제하는 영역에서 소수자들을 몰아내는 것으로서 영역의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이라면, 배제는 외부의 이방인들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뜻한다 (박경태, 2007). 인간 소수자 집단들이 그렇듯 오늘날 야생동물들은 얼마 남지 않은 빈약한 ‘야생’의 땅으로 추방되었고, 인간이 점유하

30) roadkill. 동물이 인간의 도로 위에서 자동차 등에 치여 사망하는 것.

31) 현재 까치비둘기·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들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법적으로 포획이 가능하다.

고 있는 넓은 공간으로 혹시라도 넘어오면 죽임을 당하거나 운이 좋다면 재추방 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 땅이 인간만의 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간중심적인 시각일 뿐이고, 동물의 입장에서는 “모두가 주인인 공간을 침탈 당한 (사례 10)”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에 가서 느낀 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동물들이 자유롭게 너그럽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었어요. 학교 매니저들이 동물들을 학교에 데려오고 고양이 산책시키고 뭐 이런 모습들이 너무 자연스러웠고, 교수가 자기 개가 아파 휴강한다는 얘기에 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또 고양이들은 집 안팎을 왔다갔다 하면서 살기도 하잖아요, 도시에서. 그곳은 그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분위기라는 점이 되게 부러웠어요. 보면 외국은 주인 없는 개나 고양이들이 지역에서 생활해도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동물들도 우리나라만큼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례 9>

동물을 무서워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작은 개인데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무서우면 무서운 걸로 그쳐야지 그게 또 공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동네에서 개나 고양이를 사람들이 삼으로 때려죽이고 그런 얘기가 심심찮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위협을 느낀다면 스스로 무슨 안전장치를 마련하든지, 동물은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피해 다니잖아요 솔직히. 그거를 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위협감을 느끼면 서슴없이 죽여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그게 문제인 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례 2>

<사례 9>와 <사례 2>는 외국의 경우 길에서 생활하는 동물들을 포획해 죽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사회의 경우 그것을 ‘안전의 침해’로만 받아들이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이들 외에도 동물 문제에 관심 있는 많은 이들이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도망가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를 가보아도 우리처럼 주위의 동물들에 대해 혐오와 공포심을 가진 나라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들은 사람들의 무릎에 고양이가 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까지 바라진 않지만 최소한의 확대는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²⁾

또한 활동가들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들에 대해 위생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소탕’하는 많은 사례들을 접하며, 인간의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동물을 지나치게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 관련하여 2008년 경기도 안산시 시화호 일대에 유기견들이 출몰하자 동물보호법에 따른 포획 및 후속 과정을 밟지 않고 즉각 ‘유해동물’로 지정, 사살한 사례 등이 있다.

최근에는 사람에게 버려진 뒤 북한산에서 등산객들에게 밥을 구걸하는 개들이 ‘북한산 무법자’, ‘야생들개 공포’, ‘들개떼 떼지어 위협’ 등과 같은 방식으로 언론을 통해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재현되며 문제가 되었다.

2008년 거문도³²⁾에 고양이 수가 늘어나 논란이 일자 이 소식을 전하는 뉴스보도를 통해서도 언론의 동물 재현 방식은 확인된다.

(...) 5년 뒤 다시 개체가 늘어나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TV 뉴스³⁴⁾는 거문도 고양이를 공포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리기도 했다. “사람을 ‘노려보는’ 눈매가 매섭습니다”와 같이 편견 섞인 멘트를 흘리거나, 고양이가 등장하는 장면에 음산한 배경음악을 깔고, 하품하는 고양이 얼굴에 뜬금없이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오버랩하는 식이었다. 뉴스들은 하나같이 ‘살처분만이 해결책’이라는 관점에서 ‘편집’됐다.³⁵⁾

생태계가 지금 파괴가 되고 있잖아요. 자꾸 무분별하게 땅을 판다거나 강을 판다거나 산을 없애고 나무를 뽑는 바람에 자연 재해도 더 쉽게 오고. 우스운 얘기 같지만 되게 중요한 게, 사람들이 도토리를 하도 주워가서 다람쥐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제 길을 들여놓는 단 말이에요. 먹을 거를 준다거나 그러면 애네는 도심 속에서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드킬 당하고 누군가의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죽을

32) “고양이가 사람을 보고 도망가는 나라는 한국뿐” (나영준, 오마이뉴스, 2011.11.05)

33) 거문도에는 원래 고양이가 없었지만, 주민들이 쥐를 잡으라고 고양이를 들인 뒤 개체가 늘어나자 2003년 길고양이 500마리를 잡아 도살처분한 바가 있다.

34) “거문도, '고양이의 역습'” (MBC 뉴스데스크, 2008.10.06)

35) “780마리 생명이 너무 무겁다” (고경원, 한겨레21, 2008.10.31)

수도 있고. 멧돼지도 마찬가지예요. 살 곳이 줄어들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오는 건데 무조건 죽이죠. 내려오는 그 원인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사회가 죽이는 것 외에 다른 해법 자체를 찾으려고 하지 않죠. <사례 4>

최근에 멧돼지가 출몰했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실제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시 출몰 횟수가 잦아지는 것은 난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와 먹이 부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눈에 떨 경우 언론은 위험하기만 한 무서운 존재로 재현³⁶⁾하는 경우가 많고 그 멧돼지는 무조건 사살된다.³⁷⁾ 공존을 위한 노력은커녕 2011년 10월에는 석달간 전국수렵장을 50% 확장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동물과 같은 “주변부의 존재 혹은 하위주체(subaltern)는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기보다는 주류사회에 의해서 말해지고 규정되어지는 위치에 놓여 있다. (Spivak, 1988)”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나 의사와 상관없이 지배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의해 규정되고, 스스로 목소리를 통해 말하기보다는 주류사회의 이해관계와 관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주류 사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대중매체에 의해 말해지는데,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재현 과정은 결코 가치중립적·탈정치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재현은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가 구동하는 방식으로 사회집단들을 구분하고 분류함으로써, 사회집단들의 불균등한 배치 자체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고 영구화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위계지어진 사회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정상화(normalize)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강내희, 2000; 양정혜·오창우, 2008; 오경석, 2011)

동물을 나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섭고 위험한 타자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구도는 인간 집단 간에도 흔히 발견되는 것이다. HIV바이러스 보균자에게 찍혔던 질병의 낙인 코드 역시 ‘불결함’이었으며,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인들은 ‘야만인’과의 차별을 통해, 그리고 19세기 유럽의 부르주아지는 더럽고 시끄러운 ‘하층’의 배제

36) “멧돼지 연일 도심 출현… 시민들 ‘충격과 공포’ (서울신문, 2010.11.05) 외.

37) “멧돼지 잡아 죽이면 피해 끝?” (남중영, 한겨레, 2011.10.26)

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였다.³⁸⁾ (유명기, 2004; 조페, 2002) 그들은 잠재적으로 순수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존재로 파악되는 것이다 (더글라스, 1997). 정돈되고 절제하는 ‘우리’와 일탈적이며 위험한 ‘타자’의 구도로 타자화는 진행된다.

2. 타자로서 동물에 대한 공감

이상과 같이 우월함/열등함의 차이 인식에 기반한 차별적 구분으로 동물을 타자화하는 사회 속에서, 동물권 활동가들은 동물을 우리 공동체 안의 존재로 받아들여 그들을 - 인간과 마찬가지로 - 이익(고통)이 고려되어야 하는 존재로 포용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로 활동가들의 ‘동물에 대한 공감’이라는 개인적 경험을 통해 촉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감 경험을 통해 그들은 동물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배제가 아닌 인정을 하게 되고 활동을 심화하고 있었다.

1) 상상적 동일시와 마음쓰임의 경험

면접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동물권 활동가들이 굶고 학대 받는 등 고통을 겪고 있는 동물과의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만남’ 뒤 그

38) 커니(R. Kearney, 2004) 역시 역사적으로 인류의 사유는 “선을 자아 정체성 및 동일성의 개념과 등치시켰으며, 악은 우리 밖의 이질적 존재와 연결시켰다”고 지적한다. 그러한 역사는 기독교도와 유대교인, 십자군 전사와 무슬림, 아리아인과 비아리아인 사이의 오래된 적대행위들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현대의 ‘문명화된’ 국가들조차 독일인과 영국인 등은 비인간(de-gens)이라 여겨지는 유대인·아일랜드인 등과의 대비 하에 스스로를 선택된 인간들로 규정하고 그들을 학살하거나 식민지화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검찰청이 내놓은 2011년 범죄분석 보고서를 보면 실제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정상인 범죄율의 15분의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신질환자 관련 범죄 기사가 최근 집중되며 그들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또한 2012년 수원 2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 등 외국인에 의한 각종 강력 범죄에 대한 보도가 잇따르면서 각종 포털사이트에는 범죄와 무관한 외국인들까지 싸잡아 비방하거나 추방할 것을 촉구하는 글들이 쏟아지는 등 외국인 혐오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고통에 정서적 공감을 하며 스스로 자연스럽게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이나 언론 등을 통해 문제의식이 심화된 이들의 경우도 과거 반려동물과의 관계라는 개인적 경험이 그 기반이 되고 있었다.

출근길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보니까 애가 정상적인 애가 아니었어요. 시추인데 눈에 백태가 하얗게 끼고 너무너무 마른 애였거든요. 저희가 출근 시간이 굉장히 엄해갖고 일단 출근을 했는데 개가 계속 생각이 나 다시 돌아왔어요. 그 길을 다시 가서 보니까 애가 정말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안 됐어서 어떻게 데려갈까 하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또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점심시간에 나와봤더니, 거기 개천 같은 곳에 애가 내려가 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돌을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애를 구해야 된단 생각만이 들어서 개를 사무실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 책상 밑에다가 개를 놓고 인터넷으로 찾았던 게 동물보호 단체 사이트였어요. <사례 1>

어떤 길고양이가 길 구석에 앉아서 식빵을 굽고 있는³⁹⁾ 걸 봤어요. 내가 “야옹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막 부비적거리는데... 너무 맘이 아파 데려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같이 살던 친구가 고양이가 싫다고 금방 원래 있던 곳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얼마 뒤 개를 또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다시 허락을 해서 또 데려와 키웠는데, 알고 봤더니 이 고양이가 임신한 거더라고요. 웬지 모르겠지만, 마치 나를 보는 것 같았고 개한테 어떤 친밀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친구가 또 안 된다고 난리를 쳐서... 나는 개가 새끼 잘 낳게 하고 애를 키우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돼 결국 보호소로 보내졌어요. 그 기억이 아직도 저를 막 괴롭게 해요. (어떤 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잘못된 거... 처음에 그렇게 데려온 거, 개를 내보낸 거, 개가 임신한 걸 모른 거, 임신했는데도 보호소에 데려간 거... <사례 9>

현재 동물보호단체에서 상근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례 1>은 2003년 어느 날 출근길에 먹지 못해 마르고 병든 한 강아지와 마주친다. 그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려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갈등하던 중 “너무 배가 고파

39) 고양이가 두 앞발을 모아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

들을 씹어 먹는 모습을 보는 순간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결국 그 개를 구조하게 되었고, 그 후 유기동물 입양업무를 중심으로 9년간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도시에서 만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표적인 동물이 ‘개’인만큼 많은 면접참여자들이 공감을 맺게 된 동물로 개를 이야기한다. <사례 6> 역시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한 개를 만나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경우로, 친구의 집에 갔다가 그의 남편이 반려견을 학대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불쌍한 마음에 그 개를 구입해오며 동물학대 문제에 눈을 뜨게 되었다. 이후 차가 달리는 도로 위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던 한 마리를 또 구조하며 그의 관심과 실천은 이어졌고, 이후 인터넷⁴⁰⁾을 통해 동물운동 관련 정보를 얻고 활동하다가 현재는 단체에 속해 운동을 하고 있다.

한편 <사례 9>는 어느 날 길에서 만난 고양이에게 측은한 마음을 느껴 집으로 데려오게 된 경우인데, 함께 살던 친구의 반대에 부딪혀 두 번에 걸쳐 그 고양이를 다시 떠나보내게 된다. 그러면서 친밀함과 감정이입을 경험한 터라 그 과정은 가슴 아픈 경험으로 남게 되었는데, 특히 두 번째 이별 때는 그 고양이가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어 큰 마음의 상처를 안게 된다. 그 고양이에 대한 기억과 죄책감은 그가 운동을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 다음 해에 그는 아파트촌에 홀로 남겨진 새끼 고양이를 발견하고 구조해 지금까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데, 이러한 길고양이들과의 만남 이후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커져 그 후 ‘캣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밖에 고양이 및 기타 동물단체의 회원 활동과 길고양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퍼뜨리기 위한 블로그 및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어요. 반려동물이 있었고 닭도 키워본적 있었고. 그런 동물과의 그런 교감을 항상 엄마가 갖게 해주셨던 것에 대해 되게 고마워요. 개네들과 같이 살면서 나는 개네들을 키운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같이 산다’, 같은 식구고 내 친구고... 개네들도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40) 특히 동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역할은 꽤 큰 것이었다. 거의 모든 면접참여자들이 동물과의 ‘의미 있는’ 만남 이후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 관련 커뮤니티를 찾았다. 오늘날 인터넷은 본인의 동물을 키우기 위한 정보를 넘어 동물들의 현실과 동물권 운동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웃음) 나를 친구로 여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되게 당연했고 좋았어요. 개네들을 키우면서 당연히 동물들이 감정이 있다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그런 나였기 때문에 이후 동물원에 가서 복극곰을 봤을 때 개가 얼마나 힘들 것인가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설명이나 이론으로써가 아니라. <사례 8>

사실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기르면서 뭐 예를 들자면, 애가 나를 하루종일 기다리고... 아기가 혼자 집에 있어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애가 집에 혼자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아, 내가 빨리 안 들어가면 애 배고플텐데’ 배고프고 졸리고 동물도 똑같이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니까. 또 사이트에 오면 그런 겪었던 글들 올라오니깐 그거 보면서 ‘아, 맞다. 애가 진짜 이럴겠구나’ 이런 생각 더 들게 되고. 서로 겪으면서 동물이 저를 파악하듯이 저도 동물을 점점 파악...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 더 알게 되는 거잖아요. ‘개는 물은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목마르는데 애는 목마르지 않을 까... 애도 살아있는 생명인데라고 똑같이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애도 그래서 물이 없으면 ‘어, 애 목마르겠다’하고 물을 주게 되는 거고 그런 거 같아요. <사례 1>

특히 야생동물의 현실에 관심이 많으며 지금까지 로드킬, 동물원, 농장동물 등의 문제를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를 찍어 온 <사례 8>은 어렸을 적 함께 지낸 동물들과의 일상을 통해 그들과 자연스럽게 교감해온 배경을 강조한다. <사례 1> 역시 강아지와 함께 하며 이해가 깊어졌음을 이야기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연구의 모든 면접 참여자들이 이전부터 반려동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며 그들은 서로 언어가 다름에도 눈빛·표정·소리·몸짓을 통해 풍부한 소통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동물도 생각하고 느끼는, 인간과 다르지 않은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고 동반자로서 깊은 유대감과 정서적 교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곧바로’ 동물들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존재를 마주하고 그들이 더 적극적인 공감과 실천을 하는 데 있어 과거 동물과 구체적·개인적으로 맺었던 친밀한 관계의 경험

이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었다.

우리가 섬진강변 도로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초입에 뱀이 치어 있었던 거죠. 딱 보니까 애가 막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허리가 이미 치인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들에 좀 멈춰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계속 지나가고, 그러는 사이에 애는 계속 아파서 몸부림치고... 그러면서 이미 개는 거의 죽음에 가까운...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었고. 그 장면을 보고 관객분들 중에 뱀에 대해서 새롭게 느끼게 됐다는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뱀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그토록 아파하는 모습 그리고 살고 싶어 하는 모습들 보면서 뱀이란 동물에 대해서 많이 측은한 마음을 갖게 됐다... 그 전하고 달리... <사례 8>

저는 모든 동식물이... 이게 활동하면서 관심이 넓어지면서 되게 환경도 생각하게 되는 거 같아요. 점점 그게 넓어지면서. 개네들이, 예를 들어 북극곰이 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더라도 환경오염이나 얼음이 너무 줄어들면서 살 곳이 줄어들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도 먹을게 없으면 배고픈 거고, 내가 지내던 환경이 완전히 바뀌면 저도 힘들어지듯이... 그런 걸로 비유하면서 동물들의 고통을 이해하는 거죠. <사례 1>

특히 동물들이 나와 같이 지각이 있고 욕구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깨닫는 것은 이들의 운동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동물 문제에 관심이 없거나 그러한 관심을 갖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은 그들을 사물화하며 욕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반해, “나도 먹을게 없으면 배고픈 거고, 내가 지내던 환경이 완전히 바뀌면 저도 힘들어지듯이 (사례 1)” 동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그들의 처지를 고려하는 것이다. <사례 8>은 본인의 다큐멘터리 상영 경험을 이야기하며, 감정이입을 통해 평소에는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동물로 인식되어 온 뱀과 사람 간에도 공감의 이루어지는 사례를 증언한다.

이러한 방식이 자칫 의인화의 함정에 빠지는 건 아닐까 경계하면서도, 그들은 ‘물건’이 아닌 동물들의 느낌에 대해 - 역시 한 개체의 동물인 - 본인의 입장을 대입해 상상적 동일시를 해보며 유추한다. 고통 받는 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혹은 그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상상하는 ‘역할 또는 관점 채택(role or perspective-taking) 과정 (호프만, 2011)’을 통해 동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동물원에 갔죠. 근데 이제는 동물원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동물원을 가지도 않지만 생각만 해도 괴로워지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아, 동물원 정말 좋은데’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갔으니까. 그런 것부터 해서, 유기동물들을 어쨌든 저도 눈으로 보니까... 떠돌아다니는데 밖에서. 길고양이들도 그렇고... 밖이 추운데 눈이 오면 눈 와서 걱정, 비 오면 비와서 걱정, 더우면 복날 있어서 걱정...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례 1>

캣맘 활동을 하다가 이사를 한번 했었는데 그곳엔 고양이가 잘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솔직히 그때 이기적이지만 매일 지나가며 어디서 고양이 울음 소리가 들리나 귀 쫑긋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폭우가 내린다든가 너무 눈이 내린다든가 너무 추워진다든가 혹은 갑자기 동네 고양이들이 안 보인다든가 그럴 때... 예전과는 달리 걱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 이상한 편견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알게 된 후 그런 것도 걱정되구요. <사례 9>

동물들의 고통에 대한 정서적 공감으로 인해 그들은 동물들이 처해 있을 좋지 않은 상황에 계속해서 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길거리 동물들을 생각하면, 눈 오면 눈 와서 걱정이고 비 오면 비와서 걱정이고 더우면 복날 오니까 걱정 (사례 1)”이고, 오히려 그들이 안 보일 때 마음 편한 감정이 느껴질 정도로 길고양이들이 걱정 된다 (사례 9). 하지만 이성·남성 중심적인 사회일수록 이러한 ‘마음쓰임’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미성숙하고 철부지 같은 태도로 치부된다. 아담스(C. J. Adams, 2003)는 “기존의 남성적 시각에서 봤을 때 채식주의자들은 정치적 해방자로 간주되기보다는 까다롭고, 특별하고, 기분 상하게 하는, 독선적이고, 반항적이고, 특히 감상적인 해방자들로 간주된다”고 지적한다. 동물을 죽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여자다운 것(womanish), 감정적인 것, 유치한 발상”으로 받아들여지

는 것이다.

고미송(2011)은 자연스런 감정에서 나온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는 칸트의 이성중심적 관점이 우세한 서구 근대윤리학의 전통을 비판한다. “역사적으로 권리의 부여는 항상 가장 가깝게 인지되고 심리적 공감이 가능했던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에서 합리주의적 윤리학이 표방하고 있는 이성적 판단의 객관적 적용 역시 실은 은폐된 또는 자각되지 않은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동물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폭력과 착취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⁴¹⁾을 생각한다면 동물을 옹호하기 위한 윤리학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일은 모순적”이라고 비판한다.

2)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 확대

한편 “동물 ‘개체’에 대한 마음 씀과 고려”라는 동물운동의 특징은 인간 중심주의에 저항하고 있는 환경·생태운동과 비교했을 때도 드러난다.

멸종위기나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환경 파괴 얘기하면서 동물들 이야기하지만, 예를 들어 멸종과 상관없는 문제일 때는 감정이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 농장이나 축산동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풀에도 생명이 있다’는 말은 너무 추상적이예요. 개인적으로 정말 동물과 교감을 해봤는지 아닌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동물과 교감 가져보고 존중 가져보고 있는 그대로 그 소중함을 느껴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운동에 공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저희 동물운동 하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개나 고양이랑 지내보면서 먼저 ‘이 개가 너무나 사람이랑 우리랑 닮은 게 많아... 그래서 이제 애네를 보호해야겠다’고 느끼고 ‘다른 동물도 비슷할텐데’ 하면서 이제 개네들한테도 저희가 마음이 가는 거고 마음이 아픈 거죠. <사례 10>

41)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의 고통에 대한 감정 반응을 기피하는 면은 본 논문 V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사례 10>의 말에서 동물운동이 전통 환경운동이나 생태주의 운동과 갖는 차이의 한 면을 읽어볼 수 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모두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동물운동의 경우 고통을 호소하는 동물의 얼굴 앞에서 느끼게 되는 직접적인 공감은 운동의 큰 근거가 되는 반면, 기존의 환경·생태주의 운동의 경우 좀 더 추상적이고 전일주의(holism)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물학자이자 동물권 활동가이기도 한 베코프(M. Bekoff, 2011)는 “동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독자성과 교감이 형성”된다고 하며, “이름이란 우리가 감정과 생애를 지닌 개별적 존재를 대하고 있다는 표시”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동물운동가들의 인식은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우리가 인간에게 부여하는 개인성에 적용되는 바로 그 특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물들에게도 개체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Francione, 2008)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에코페미니스트인 킬(M. Kheel, 1996)은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된 심층 생태학(deep ecology)⁴²⁾이 동물을 “개성을 가지고 살아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심리적 상태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대하며, 따라서 동물들은 대상이나 상징의 위치로 축소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공동체(예를 들어 종이나 생태계)를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행동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은 “더 지속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선호하여 특수성과 구체성의 세계를 초월하려는 데 익숙한 남성들의 충동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KARA(2007)는 정부와 일반인들은 물론, 심지어 일부 환경론자나 생태주의자들마저도 생태계 유지 차원의 야생동물 보호라는 원론적 사고⁴³⁾

42) 그랜트(2012)에 따르면, 심층생태론은 생물의 다양성과 모든 종의 보존을 중시하며 전체적인 패턴과 관계를 살핀다는 점에서 동물권 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른 철학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물권 옹호자들이 모든 개별 동물의 고통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생태주의자들은 주로 전체 생태계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들은 전체로서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면 개별 동물의 고통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한편 야생동식물 보호 운동가들은 지각력이 없는 생명체도 생태계의 건강에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각력이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지각력이 없는 생명체보다 더 우선시하지 않는다. 반면 동물권 운동에서는 고통이나 불행은 느낄 수 있는 동물의 능력이 이들의 권리를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동물권 운동은 ‘자연계’ 전체가 아니라 모든 동물의 [개별적] 가치를 인정한다.” (그랜트, 2012)

외에 인간이 동물들에게 가하는 가학의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경향을 지적한 바 있다. “아이들에게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라’고 이야기하며 ‘자연권’과 ‘영성’을 강조하면서도, 수많은 동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통과 ‘동물권’을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⁴⁴⁾

(본인의 동물과 멀리 있는 동물 사이에)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꼬마⁴⁵⁾’라는 고양이는 내가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직접적인 책임의 문제가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내가 모르는 어떤 아이가 굶주리는 것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전 인류 차원에서의 책임보다 구체적으로 내가 속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조금 크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을 해야지, 눈앞에 있는 거를 보지 않고 막연한 것을 얘기한다는 거는 잘 못 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도록, 내가 내 눈 앞의 어떤 그 책임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위해서 일 하는 것 하고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것 또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사례 7>

즉 동물권 활동을 하는 면접참여자들은 거대하고 추상적인 원칙에 근거한 운동보다는 구체적 존재가 겪는 고통의 현실에 기반하여 실천을 진행하고 또 확장해나가고 있었다. 똑같이 ‘큰’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저항을

43) 리프킨(J. Rifkin, 2010)은 이를 합리성과 실용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보다 더 오래 된 이데올로기적 의식과 개인적 참여, 정서적 일체감, 공감적 확대에 기반을 둔 신흥 생물권 의식 간의 차이로 설명한다.

44) "지금 우리의 환경 개념 안에는 생명의 개념이 불완전하게 걸쳐 있고, 동물의 개념은 거의 쏙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직은 환경운동가나 생태주의자 중에서도 동물보호를 생태계 유지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공존이 아니며, 동물보호도 인간을 위한 이기적인 차원에 가두는 것입니다. (...) 언젠가부터 우리는 아이들에게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통상 식물보다 사람과 훨씬 가까운 동물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습니다. 사람과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 공통점도 많고 교감도 더 많이 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불안, 고통과 스트레스의 표현이 인간을 닮았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동물로부터 고통을 제거해주려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보다 하등한 동물, 또는 식물의 고통 운운하는 것은 동물 이용에 대한 기득권을 버리고 싶지 않은 자의 변명이 아닌지요." (KARA, 2007)

45) <사례 7>이 키우고 있는 고양이.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례 7>은 ‘내 눈 앞에 있는 무엇’과 ‘보이지 않는 무엇’은 모두 고려되어야 하지만, 후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추상적 방식이 아닌 전자에서 후자로의 자연스러운 연결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한다. 특정한 하나의 존재와 더 크고 추상적인 집단 간의 이러한 연결 구조는 아래의 사례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저희 집은 아무렇지도 않게 보신탕을 먹는 집이었어요. 그러다가 누가 코카스패니얼 한 마리를 쫓는데, 너무 똑똑하고 귀여운 거예요. 어느 날 애 ‘길동이’를 잃어버려 온 가족이 막 찾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뉴스에 요즘 애완견들도 보신탕이 된다고...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코카가 바글바글한 거예요. 나도 식용이라고 생각했던 개들을 먹었었는데 ‘그게 길동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혼돈의 시기가 온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먹었던 수많은 길동이 같은 개들에 대한 생각이랑... 그러면서 이제 보신탕을 끊게 되고 (...) 저는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고양이를, 그 다음에 소·닭·돼지의 고통을 알게 됐고, 실험동물·모피동물에까지 이어졌어요. 한번은 동물원에 가게 됐는데, 그 전엔 아름답기만 했던 그곳이 이젠 정신병원 같고 너무 비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되니까 할 게 너무 많이 생긴 거죠. <사례 4>

처음 동물원에 카메라를 들고 나섰을 때 ‘불특정 다수의 동물들을 찍었을 때 내가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한계를 느꼈어요. 그때 우연히 막 태어난 한 새끼 호랑이를 만나서 개를 통해서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라는 것까지,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알 수 있게되고 구체적으로 다가가게 된 거예요. 그나마 제일 대접 받는다는 호랑이가 이렇게 살아갈 때 다른 동물들은 어떨까 라는 게 미루어 다 짐작이 가는 것이고... 개가 저한테는 어떤 상징적인 존재예요. 구체적인 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제가 작업한 다른 동물들... 연변에 갇혀 있는 그 쓸개 농장에 갇혀 있었던 곰들, 찾길에 무참히 바람처럼 사라져갔던 익명의 동물들, 지금 찍고 있는 농장동물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메신저이기도 해요. <사례 8>

다큐멘터리 감독인 <사례 8>은 처음부터 동물원의 객관적 현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고발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한 존재와

의미 있는 개인적 만남을 맺게 되고 공감하게 된다. 이름을 가진 그 존재의 삶의 맥락을 통해 다른 동물들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까지 피상적 차원을 넘어 심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 동물단체에서 사실 유기동물보호소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례 4>는 처음에 ‘길동이’라는 강아지와 만남과 감정적 유대, 이별 과정을 겪으며 그 한 마리에 대한 관심이 다른 유기견들에게로 연결된다. 이전에는 자신이 관심을 주고 염려하는 영역의 밖에 놓여 있었던 ‘이름 없던’ 개들이 이제는 또 다른 ‘길동이’들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다. 그 후, 할 수 있는 한 많은 개들을 돕고자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처음에는 나의 이해만을 신경 쓰며 살아 왔던 그의 고려는 ‘길동이’에서 다른 개들로, 마침내는 다른 종의 동물들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사례 1> 역시 “유기견을 한 마리 구조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불쌍한 애들이 많구나’ 라고 느꼈던 경험”이 이후 고양이·농장동물·실험동물 등에 대한 공감으로 순차적으로 발전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대부분의 면접참여자들이 - 많은 경우 반려동물과의 관계적 배경 속에서 - 어떤 특정한 동물의 고통에 대해 맺어진 공감은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맞물려, 결국 다른 동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염려와 공감으로 이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대상의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느날 뒷산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너무 애가 배를 굶아서 애가 허리가 휘고 발톱이 막 이래갖고 이렇게 걷는 애가 있었어요. 개를 데리고 왔는데... 잠시 집을 떠나 있던 사이 애가 죽었어요. 개가 나를 기다리다 죽었을 것 같고 마음이 아파서 ‘우리집이 개가 안 되나보다. 대신 기르지 말고 대신에 다른 개들은 이제 봉사할 하자’ 그래서, 저희집 근처에 유기견 사설보호소가 있었어요. 그곳에 일주일에 두서번씩 갔는데, 그곳에서 봉사를 하다가 동물단체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봤어요. 근데 유기견 입양 게시판에 눈과 다리가 없는 장애가 있어서 입양이 안 된 애가 있었어요. 개를 입양하면서 사람들을 더 알게 되고 또 다른 보호소들도 다니고 하면서 현실에 점점 더 눈을 뜨게 됐어요. <사례 4>

제가 그 강아지를 구조하면서 처음 이 단체를 인터넷으로 찾아봐서 알게 됐고 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다들 본업이 따로 있으시고 다 봉사로 하셨어요 100프로. 평생 이 봉사를 계속 해야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직업으로 삼을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 두면서 아예 출퇴근을 해달라고 자연스럽게 제의를 해주셨어요. 이거를 월급을 받으면서 할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식구들이랑 상의를 했는데 그러면 물론 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니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게 어떨겠냐’고 하셔서 상의 끝에 저도 이제 들어오기로 결정을 했죠. <사례 1>

<사례 1>은 앞에서 언급한,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개를 구조한 후 한 동물단체의 지원으로 직접 입양을 보내게 되는데, 그 입양이 본인의 첫 번째 활동이었다고 말한다. 그후 그는 유기동물 입양 업무를 중심으로 한 7년간의 자원활동을 거쳐 현재는 상근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자원활동 시기 “입양 상담은 몰래몰래 회사에서 전화로 하고 이동은 주말에” 이루어졌다. 활동을 하는 이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동물 단체에 상근직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개인적 영역에서 활동을 시작하여 점차 참여를 심화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 가슴 아픈 현실에 차츰 눈 뜨게 되며 그들은 조금씩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길을 떠돌아다니는 개들과의 만남이 각별했던 <사례 4>와 <사례 1>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자원활동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동물운동 단체와 연이 닿아 현재는 상근 활동가로 근무 중이다.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시민운동 현장에 시민운동 단체 간사들만 보이고 시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정수복, 2002)”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물운동의 경우 처음부터 단체에 취업을 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스스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하거나, 단체 일을 하더라도 자발적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은 이 운동이 가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사람이 변화하고 어떤 생각이 바뀌는 데 있어서 단계를 밟잖아요.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맨 처음에는 관심이죠.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동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개를 키우는데 누군가가 개고기 얘기를 하면은 끄덕끄덕... ‘어, 맞아.’ 행동으로 안 나타나지만 벌써 마음 속으로는 같은 편이 돼주는게 동조죠. 그 다음에 지지, 어느 정도의 소극적인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음 아고라에서 서명을 한다고 그러면 가서 몇 번 클릭을 해서 그 귀찮음을 감수해야 하는 행동인 거죠. 지지에서 좀 더 나가면 후원 단계가 되는 거고, 여기서 ‘난 좀 더 적극적으로 주말에 봉사를 가겠어.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겠어’ 하면은 이제 활동가가 되는 거죠. 활동가라고 그게 거창한 의미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동물 문제가 됐을 때는 나는 이미 동물 활동가가 돼 있는 거예요. <사례 7>

면접참여자들은 동물들의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실천으로 나아가며 이들은 활동가로 발을 딛게 되는 것이다. 동물과의 만남이 반드시 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동물을 만났다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그 고통에 공감하지 못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⁴⁶⁾ 공감을 하더라도 활동가가 되는 이들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동물과의 ‘의미 있는’ 만남을 통해 그들의 고통에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실천을 하며 활동가가 되는 선택을 한다. <사례 7>은 이렇게 점점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단계를 ‘관심 → 동조 → 지지 → 운동’의 순으로 설명한다.

요컨대 활동가들의 대다수가 동물들이 겪는 고통의 상황을 마주하고 그에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동물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처음 갖게 된다. 그 공감은 추상적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체에 본인의 입장을 대입해 상상적 동일시를 하며 이루어진다. 고통 받는 자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느낄 것인지를 상상하는 과정을 통해 ‘동물도 지각과 감정이 있는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인식을 하고 고통에 대한 공감을 하게 되는 것이다.

46) 호프만(2011)은 공감을 하는 데 있어 생리학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성별 및 계층의 요인, 개인의 동기, 사회화와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많은 경우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으로 이어져, 그후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혹은 단체와 연을 맺으며 그들의 동물운동은 본격화되고 있었다. ‘타자의 관망자’에 머무르는 소극적 공감은 활동을 통해 비로소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실천으로 이어지게 된다.

3. 도덕공동체로의 포용

1) 편견 바로잡기

앞에서 살펴본 공감과 그로 인한 실천의 과정을 통해, 활동가들은 동물들을 ‘이익이 무시되어 마땅한’ 존재, ‘차별받고 배제되는 타자’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도덕적으로 고려되고 공존하는 구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바로 동물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는 것이다. 편견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 타자에 대한 배제와 지배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도록 하기 때문이다.

야생동물인 늑대가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 특수한 개라는 종이 만들어져서 개는 사람 아닌 동물과 사람이란 동물 사이를 연결하는, 말하자면 ‘가교 동물’이고 애네들은 사람이랑 같이 살게끔 진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는 사람들하고 같이 적응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고, 또 그 존재를 용납하질 않아,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결국 버려진 개들인데, 사람들이 그 존재를 경계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가만 안 놔두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총으로 쏘죽이기도 하고. <사례 10>

북한산의 개들 되게 무섭게 선정적으로 보도하잖아요.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뉴스 같은 것 보면 너무 공포스럽게. 포획하고 그러는데, 잡아서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개 같은 경우 사람하고 적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위협이 된다고 허풍을 치면서 포획해서 죽이고 그런 게 당연시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사람하고 적응을 해서 살아야 하는 동물인

데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멧돼지의 경우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죽이는 걸로 결론을 맺는 거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동물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은 것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로 동물이건 사람이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례 2>

2012년 3월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무리지어 생활하고 있는 유기견들을 포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무법자, 들개”가 되어 “공포, 무서운 속도로 번식, 떼지어 위협”하는 악한 존재로 이미지화 하였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인간의 직접적 통제권을 벗어나 있는 동물들을 지나치게 위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경계한다. 그들은 그토록 무섭게 재현된 “무법자, 들개”가 실은 인근 지역과 등산객들에 버려진, 사람의 잘못으로 만들어지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유기견임을 알리며 편견을 바로잡는다.⁴⁷⁾

동물운동단체들은 북한산에 유기견들이 출몰하자 사살하는 것이 아닌 인도적 포획 및 입양과 근본적인 유기동물 방지책 등 ‘상생’의 안을 마련하라며 당국에 대응했고, 포획되어 안락사가 예정되었던 그 개들은 동물단체 측의 도움으로 입양을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아래의 사례와 같이, 동물을 무섭고 위협한 존재로 자리매김함으로써 우리의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타자화의 주요코드는 위생과 질병이다.

환경스페셜에서 그때 ‘애완동물의 습격’ 이래갖고 뭐 고양이가 병균을 옮겨서 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 너무나 드문 일이고 있기 힘든 일인데 그런 식으로 왜곡 과장해서 보도를 하고 그래서 그 때문에 굉장히 많은 개들이 버려졌어요. 그리고 환경스페셜 게시판에도 그거를 항의하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개를 버리게 됐다, 우리 아버지가 갖다버렸다’ 이런 사연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게시판에 올라온 그런 피해사례를 좀 모아보자... 굉장히 많은 게시물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최종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모으고 검토해서 의견서와 항의서 보내는 작

47) “북한산 유기견들 누구의 잘못으로 죽어가는가? (KARA 성명서, 2012. 3. 29)”

업을 했었죠. 언론이 이런 식의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례 10>

사람들 선입견이 많아요. ‘동물은 어릴 때부터 애기 때부터 키워야지 말을 잘 듣는다...’ 그리고 종이 있는 애들 좋아하고. 그리고 ‘유기동물은 아픈 애들이다...’ 원래도 동물은 병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무 것도 없어도. 근데 ‘유기동물은 다 병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선입견이나 동물들이 처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캠페인 등을 통해 많이 알려주기 위해 노력해요. 저희가 학교에 가서 강의하실 분들 양성하는 것도 했고... 그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한번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전달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학교에 나가서 강의도 해드리고 영화를 보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러죠. 장기적으로는 특히 어린 청소년에 대한 교육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사례 1>

<사례 10>은 동물을 ‘병균’과도 같은 존재로 재현하며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언론에 항의하며 자신의 동물권활동을 본격화하였다. 2004년 2월 4일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애완동물의 대 습격”은 왜곡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로부터 사람이 ‘치명적인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보도를 하였다.⁴⁸⁾ 이로 인해 당시 수많은 반려동물들이 버려졌으며, 동물단체들은 이 보도의 주장이 ‘애완동물의 대습격’이라고 보도할 만큼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활동가들은 반려동물과 길거리의 유기동물들이 위생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그들을 ‘소탕’하는 많은 사례들을 접한다. 이에 대한 단체들의 대응은 주로 왜곡된 과학적 편견을 바로잡아주는 입장 표명과 캠페인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사례 1> 등 많은 활동가들은 “유기동물은 다 병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인식에 대해 우려한다. 그는 - 반려동물을 들이려면 먼저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는 문화가 정립된 서구사회와 비교해 매우 낮은 - 우리나라의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여 안락사되는 수를 줄이기 위하여, 유기동물들에 대한 편견 개선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관련하여 최근 동물 운동

48) 이러한 방식의 언론보도와 동물단체의 항의는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사례로는 “국민 25% '고양이 기생충', 임신부가 감염되면... (SBS, 2012. 5. 20)” 참조.

진영에선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2)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한편 동물에 대한 이 모든 편견의 밑바닥에 놓인 ‘동물은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간중심주의적 인식에 대해 아래 <사례 10>은 어떠한 접근방식이 적절할지 고민하고 있다.

캠페인을 해도 잔인한 것을 너무 사람들에게 노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고 있어요. 고기 사체나 이런 것도 전시하고 이러지 않게끔. 지금 모란시장 가면 특히 개들 이렇게 전시해놓고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당연하게 느껴버리고 ‘이렇게 해도 되지 뭐’ 라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사보도를 할 때도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는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해서 모자이크를 하기도 해서 보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간 가공을 해서 보이기도 하고. 이 책에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적나라한 것들 보여주고 싶은 게 많지만 여긴 그래도 좀 덜 충격적인 것들로 고른 거예요. 고르면서 그래도 이 동물의 현실이 각 영역에서 다 어떤가라는 건 보여주려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수준으로 뽑은 사진들이죠. <사례 10>

동물보호 무크지를 만들고 있는 <사례10>은 동물들의 고통 받는 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적나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한 폭로 방식은 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관련하여 ‘인권’과 ‘대중의 공감’ 사이의 관계를 탐구한 헨트(2009)의 지적을 살펴보자. 그에 따르면 18세기 말 노예제, 사법적 고문, 잔인한 형벌에 반대하던 서구의 운동가들은 그들의 감성적으로 뒤틀린 이야기에서 잔혹함을 대중들에게 부각시켰다. 그들은 ‘혐오감’을 자극하려고 했지만 “고통의 표현을 적나라하게 읽고 봄으로써 유발되는 감각적 자극이 항상 조심스레 유도될 수는 없는 법”이었다. 마찬가지로, 대중들에게 다른 삶을 사는 이들에 대한 공감의 지평을 열어주는 역할을 했던 - 예를 들어 평범한 소녀들의 고통에

강하게 주목하는 - 소설에 대한 반응은 18세기 말에 이르자 좀 더 다르고 사악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근친상간·강간·고문·살인 등의 선정적인 장면들은 점점 도덕적 결과나 내면적 감성의 탐구라기보다는 ‘실행해 볼 만한 것들로 여겨지는’ 효과를 낳게 된 것이다.

<사례 10>은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 도축장이 유리로 만들어져 있다면 사람들은 그 현실을 알고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는 아이디어에 대해 - 은폐되어 있는 고통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 일면 수공은 하지만, 오히려 그런 방식이 자칫 잘 못 사용될 경우 오히려 ‘동물은 그렇게 대해도 되는 존재’라는 생각이 더욱 강화될까 우려하고 있었다. 감춰진 폭력적 현실을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성찰의 계기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기대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타자를 위한’ 재현은 그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을 수반하는 것이었다.

(로드킬로 죽은 동물들을 영화에서) ‘너무 끔찍하게 그리지는 말아야겠다... 애네가 얼마나 불쌍하고 끔찍한지 얘기하는 자체가 이 작품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생명으로서의 존엄성... 애네들도 욕구가 있었고 일상이 있었고 지키고 싶었던 자기들의 일상과 순간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나와 못지않은 존재로... 미선이, 효순이의 삶도 개네들이 친구네 집에 놀러가다가 그랬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더 짠하잖아요. (총체적인 삶을 잘 표현해주고 싶은 마음?) 그럴죠. 그래서 최대한 살아 있을 때의 모습을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삶도 얼마나 이쁘지 한번 봐주세요 하는 심정으로 얼굴도 집어넣고 고라니 눈동자도 넣고... <사례 8>

<사례 8>은 ‘인간만의 영역’인 고속도로에 ‘침범’할 경우 잔혹한 죽음으로서 추방되고 또한 그것이 전혀 사회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현실을 독립다큐멘터리로 영화화한다. 하지만 그 잔혹한 면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그들’도 ‘우리’와 같은 존재라는 공감을 통해 인간과 동물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러한 작업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로서 성찰의 기회를 관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는 영화 제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독립영화의 ‘공동체상영’ 방식을 통해 학교·직장·단체·모임 등 전국의 방방곡곡을 돌아다니

며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는 자리를 만들어낸다. 단순히 작품을 찍는 것을 넘어 이렇게 사람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영화 작업은 -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 운동(activism) 차원의 의미를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사례 2>는 우리 사회의 길고양이에 대한 편견·혐오와 그로 인한 학대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그들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네티즌들과 관련 서적과 영화 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계의 시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최근 들어 길고양이⁴⁹⁾들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는 - 즉 도시생태계에서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한 그들에게 밥과 물을 주고 필요할 경우 TNR⁵⁰⁾과 구조도 하는 - ‘캣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길고양이는 불결하고 기분 나쁜 도둑고양이’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간’에서 추방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그로 인한 이웃과의 충돌 때문에 항상 마음이 복잡해진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길고양이 사건은 2006년에 일어난 ‘한강맨션 고양이 사건’이다.

2006년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에 길고양이들이 서식하자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위원회를 통해 고양이가 사는 보일러실을 시멘트로 봉쇄하였고 결국 일부 고양이들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 그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다른 주민들이 지하실에 갇힌 길고양이들을 살리기 위해 문을 뜯어내고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며 몇 년 동안 길고도 힘든 싸움이 계속 되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고양이를 걱정하고 보살피는 이들은 주민들이 더 과격하게 길고양이를 해칠까봐 화를 내기보다는 더 조심하고 설득한다. 화가 난 주민이 고양이를 죽이거나 해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캣맘들은 처음부터 아예 눈에 띄지 않으려고 밥을 줄 때도 몰래 주고,

49) outdoor cat. 사람들에 의해 버려졌거나 버려진 고양이의 후손들로, 도심에서 집 없이 배회하는 떠돌이 고양이를 흔히 일컫는 표현이다.

50) 길고양이를 포획(Trap) 하고 중성화 수술(Neuter)을 한 뒤 같은 영역에 방사(Return)해주는 제도로서, 개체수의 ‘통제’가 아닌 그들의 건강과 인간과의 공존을 목적으로 하는 돌봄 시스템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지속적 관리 (maintenance)’의 개념을 붙여 ‘TNR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다.

고양이들이 사람을 계속 무서워하며 조심하도록 친해지는 걸 피하기도 하며, 숫자가 늘어나 고양이들이 눈에 띄어 공격받지 않도록 TNR을 하며 주민들을 설득한다 (사례 5, 9).

너무 인간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길고양이... 저희도 밥 주는 것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데 애네들 밥을 주고 끝내는게 아니라 더 이상 개체조절을 위한 불임수술도 하고... 우리가 밥을 줌으로 인해서 쓰레기 봉투 안 뜯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많이... 각 구청별로 TNR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밥을 주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좀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면 캣맘들이 밥을 줄 때도 훨씬 더 편하겠죠. 저도 밥 줄 때 몰래 주고 그랬었거든요. 일반분들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그거에 대한 정보를 좀 아실 수 있게끔 하는게 중요할 거 같아요. <사례1>

길고양이들의 개체수가 많아지면 주민들의 항의가 많아지고 더 해꼬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거문도 고양이 사건⁵¹⁾처럼, 그런 의미에서 TNR은 도시에서 인간과 고양이가 공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인도적인. <사례 9>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활동은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도시생태계에서 인간과 길고양이와의 공존을 위한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중성화 수술제도인 TNR이 광범위하게 시행중이다. TNR을 시행할 경우 고양이의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아⁵²⁾ 지역 주민과의 트러블을 줄이는 데 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캣맘과 동물 단체들은 이 제도가 올바르게 시행되는 데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⁵³⁾

51) 원래는 고양이가 없던 섬인 거문도에 주민들이 쥐를 잡으라고 고양이를 들인 뒤 개체가 늘어나자 2003년 길고양이 500마리를 잡아 도살처분한 사건.

52) “특정 지역의 길고양이를 모두 ‘소탕’한다고 해도 다시 이웃 지역의 고양이들이 유입되는 ‘진공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길고양이는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TNR과 보살핌을 통해 그들을 도시생태계의 공존자로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고경원(2007)은 이야기한다.

53) 하지만 “고양이들을 잘 포획해서 수술을 한 후 제대로 잡은 곳에 방사해 쥐야 함에도 그렇지

TNR과 입양 등 ‘캣맘’들의 노력과 길고양이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전파하는 다양한 문화적 시도들은 동물들을 ‘우리’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한 노력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초기 사회학자 Sumner(1906)는 특정 집단에 대한 소속 여부를 기준으로 한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내집단이란 내가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의식을 가진 집단을 말하며 집단 내의 다른 성원들과는 ‘우리’라는 동류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집단’(we-group)이라고도 한다. 반대로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외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구별되고 ‘그들’이라는 의식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들집단’(they-group)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구조적 특성을 기반으로, 리건(1991)은 ‘도덕 공동체’의 배타적 특성을 설명한다. 그 안에 있는 이들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밖에 있는 이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모리스(D. Morris, 2002)는 특히 전시의 선전 자료를 보면 적군을 자국의 도덕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쟁이라는 구실이 없어도 정신병자나 극빈자·여성·흑인·어린이 등을 배제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에 따르면, “고통은 우리가 식별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나 자연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확장한 혹은 모른 체한 사회적 상태”이다. 우리는 ‘고통을 받는 사람이 우리의 도덕 공동체 내에 존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고통을 확장하거나 모른 체한다. 일례로 걸프전 때 이라크의 트럭 운전사는 미사일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지만, 미국의 텔레비전에는 이 사건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되었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의 도덕 공동체 바깥의 존재들이 파괴되는 것을 고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곳에서 벌어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인 것처럼 그들의 고통을 외면해버린다. (모리스, 2002)” 개인의 고통 받는 삶으로부터 감동을 받거나 슬픔을 느끼기 위해선 그에게 우리의 경험

못한(사례 1) 경우, “혹은 포획하는 사람이 두수대로 돈을 받기 때문에 아직 수술하면 안 되는 너무 어린 고양이를 포획하는(사례 9)” 경우 등 일부 지자체는 민원해소와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허술한 운영을 하고 있어 아직 확실한 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상태이다.

과 비슷한 면이 있어야 한다. 성별이 다르거나 지리적·인종적·문화적 거리가 먼 고통은 우리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파머, 2002).

이러한 맥락에서 동물의 고통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지 않고 외면 받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닌 ‘그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권 활동가들의 경우 공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역을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었다.

V. 동물 지배에 대한 활동가들의 성찰과 저항

IV장에서 살펴본 동물에 대한 타자화는 우월한 종(인간)과 열등한 종(동물)이라는 위계적 차이관에 기반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 논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기득권을 정상적인 것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끔 한다. 다시 말하면 차별 관계에 기반한 차이 담론은 애초에 동물에 대한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어떠한 방식으로 실행되는지에 대해, 특히 그 유지를 위한 방어 기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또한 그러한 구조 속에서 지배집단으로서 인간이 갖는 기득권을 성찰하고 저항하는 활동가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동물 지배의 유지기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신념·느낌들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페스팅거(L. Festinger, 1957)의 인지부조화이론(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에 따르면 ‘인지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는 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서로 일치하지 않는 두 가지 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생겨나는 긴장상태로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유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감소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부조화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 책임감을 느낄 때, 즉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부정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난다. (애런슨, 2002)

동물을 지배하는 구조 속에서 그 기득권 집단인 사람들은 동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마음의 불편함, 즉 부조화를 해소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 예컨대 도축과정을 숨기는 방식 등으로 - 현실을 은폐한다. 또한 - 그러한 현실의 은폐에도 불구하고 - 알게 되는 고통에 대하여 개 개인은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합리화 기제로서 ‘생명은 똑같이 소중한에도 우리는 풀을 먹고

있으니, 다른 모든 동물 역시 다 먹어도 된다’는 일관성의 논리를 견지한다.

1) 동물 고통의 은폐

동물들에게 가해지는 제도화된 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과정이 은폐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지 못한 이들이 겪는 고통의 실체는 밖으로 가시화되지 않고 숨겨짐으로써 그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더 용이해지는 것이다 (아담스, 2003). 하지만 동물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잠재력을 사람들은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회는 그 고통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양상은 우선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고 다양한 정책 결정의 토대가 되는 대중매체의 재현방식을 통해서 포착된다.

로드킬의 현실을 몰랐을 때는 도로건설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뭐 필요하니까 짓겠지... 뭐 빨리 가면 좋은 거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거는 과잉 중복건설이고... 하루에 차 한 대도 지나다니지 않는 도로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천편일률적으로 장미빛으로 언론에 경제발전과 뭐 얼마나 이동시간이 단축되고 물류는 얼마나 절감이 되고 이런 얘기들만 나와요. 도로 하나가 딱 개통이 되면 하루종일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를, 텔레비전을 아무 때나 틀어도 뉴스가 하루에 수도 없이 반복이 되는데, 그때마다 도로건설을 찬양하는 그런 얘기들. <사례 8>

동물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익숙하게 꿈과 낭만의 동산으로 포장이 되어져 왔던 거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항상. 동물원의 여름맞이 겨울맞이 해가지고, 동물들이 그 속에서 사육사들의 사랑과 보호 아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나오고 새끼 동물들의 귀엽고 발랄한 모습들 나오고. 그 새끼 호랑이 같은 경우도 TV 동물 프로그램에 여러 번 출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개구쟁이고 천방지축인지... 뻘하잖아요, 그려지는 방식들이. 근데 내가 알잖아요, 애가 어떻게 살고 하루종일 얼마나 엄마를 그리워하는지. 애는 태

어나서부터 엄마로부터 격리돼서 사육사의 손에서 컸거든요. 새끼 동물을 엄마가 젖 댄데서 키우게 하지 않고... ‘엄마한테 버림받고...’ 항상 그렇게 나와요. 완전히 이거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례 8>

IV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류 사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대중매체의 재현은 가치중립적·탈정치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사례 8> 역시 로드킬과 동물원의 사례를 들어 현실과 미디어 사이의 갭을 설명한다. 고속도로에서만 토끼·뱀·두꺼비·고라니·샐·새 등 1년에 수십만 마리의 동물들이 교통사고로 죽지만, 언론은 우리의 삶이 더 빨라졌고 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라는 장밋빛 소식만을 밝은 이미지로 전한다.

또한 동물원의 경우 그 안의 동물들이 겪는 고통은 외면한 채 미디어는 시청자들이 그 동물들로부터 보고 싶어 하는 즐거운 이미지만을 전한다. <사례 8>은 자신이 낳은 새끼를 돌보는 어미의 본성은 박탈당하고 또한 “야성을 박탈시켜야 한다”는 사육방침에 따라 그 새끼동물은 얼마나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지는 생략된 채 언론에서는 사랑스럽고 행복한 모습으로만 비추어짐을 비판한다. 즉 미디어는 동물들의 욕구와 선호는 아예 침묵시키고 인간이 소비하고 싶어 하는 이상적 모습으로만 조작하여 재현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애들이 많이 버려졌죠. 개 키우는 연예인 이야기 나오면서 그때 사람들이 시츄를 엄청 사갖고 시츄 엄청 버렸구요, <****>에서 그때 아파트에서 말라뮤트 키우는 것 나왔었거든요. 그때 또 사람들이 그것만 보고 또 말라뮤트 키웠다가 엄청 또 버리고. <****>이 처음엔 약간 재미 위주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 프로그램이 애견 문화를 이렇게 부풀리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심각한 면도 다루니까 그나마 생각을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처음에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방송을 많이 해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버려진 애들이 많았어요. <사례1>

매체도 큰 역할을 했어요. 막 그때 방송3사 프로그램에서 동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계속 했었어요. 비싼 개들 나오고... 기르면서 나쁜 점은 안 나오고 귀여운 부분, 영리한 부분 이런 것만 나왔지 ‘어, 그럼 엄마 나도 저거 사줘!’ 그럼 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류층에만 국한됐던 게 중산층에서도 총무로 애견시장에 막 몰렸었던 말이에요. 그러다 키우는게 감당이 안 되니까 보신탕이 되거나 안락사로 다 넘어가고 그걸 또 사업으로 보는 사람들이 뛰어들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사례 4>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그 존재를 물건이나 상품으로 취급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 개들의 상당수는 길에 버려져 결국 안락사를 당하거나 아니면 보신탕의 재료가 되곤 한다.

<사례 1>과 <사례 4>는 과거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급성장하고 비싼 차와 아파트를 과시하는 자본주의 문화가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비싼 ‘애완’동물을 옆에 끼고 과시하면서 동물을 생명이 아닌 상품으로 인식한 이들은 개들을 서슴없이 버렸으며, 그렇게 동물을 귀엽고 예쁘기만 한 ‘상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방송의 힘이 컸다고 지적한다. 개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온전히 묘사한 것이 아니라 예쁘고 귀여운 이미지만을 제공하고, 시청자는 그 이미지에 맞추어 삶의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 한 생명이 아닌 상품을 쉽게 ‘구입’하고 쉽게 버리게 된 것이다.

한편, 고기를 먹고 실험을 하는 등 동물을 ‘이용’하면서 인간은 그 이득은 그대로 취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고통과 희생에 대해서는 공론화하지 않는다.

(동물실험에 감추어져 있는 현실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그거는 활동하는 사람들도 솔직히 잘 몰라요. 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최근에는 동물보호법에 동물실험윤리위원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일단 동물단체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저도 일부 기관에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또 장벽이 있더라구요. 다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만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선 위장취업도 하죠.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도 좀 공격적인 운동

이 나와야 할 것 같기도 해요. <사례 2>

제가 처음에는 주로 농장동물 관련해서 조사하고 보고서도 내고 행정조사하고 캠페인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워낙 좁은 곳에서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다보니까 냄새나고 분뇨도 엄청 나오고 환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보통 농장들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골이지만 시골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힘든 구석에 있거든요, 도축 가공하는 부지도 그렇고. 냄새도 나고 소리도 나고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은폐된 시스템 자체를 자세히 알기가 힘들죠. 동네 사는 사람도 잘 몰라요, 농장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살아가는 환경을 볼 턱이 없고 도살장이나 이런 데는 말할 나위도 없고. 보면은 불편하죠. <사례 2>

매년 세계적으로 1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 대부분 인간의 건강이나 의약품과는 별 관련이 없는 실험으로 - 실험에 사용된 뒤 죽어가고 있음에도 <사례 2>는 인간의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동물 실험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기가 너무 힘들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역시 실험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개선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가 생기긴 했지만, 일반인이 아닌 위원으로 들어가도 그 과정과 현실은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닫혀 있다는 것이다.

육식문화의 경우 동물착취의 은폐가 가장 분명히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사례 2>의 지적과 같이 고기를 제공하는 동물이 지내고 죽음을 당하는 공간이 사람들의 삶의 영역과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육류소비자들은 평생 동안 도살장을 구경해보지 못하며, 동물이 식탁에 오르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고미송, 2011). 아담스(2003)는 이러한 기제에 대해 그 ‘고기’가 ‘한때 살아 있는 동물이었다’라는 우리의 생각에서 분리시키는 것이자, ‘음매’ 또는 ‘꼬꼬댁’ 또는 ‘매’ 등의 울음소리를 고기와 분리시키는 것, 그리고 어떤 것(what)을 어떤 존재(who)와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고기의 현존이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죽은 동물의 존재와 분리되는 순간에 ‘고기’는 그것의 원래 지시대상(동물)에서 떨어져 나와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미지

가 된다.⁵⁴⁾ 동물의 사체는 - 햄버거와 같이 - 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모양으로 해체되어 음식화되고, 용어는 덜 자극적인 것으로⁵⁵⁾ - 예컨대 ‘도살’에서 ‘정육’으로 - 바뀐다 (리프킨, 2000; 아담스, 2003).

오늘날 쾌적한 마트에서 깔끔하고 위생적인 이미지로 포장되어 있는 돼지고기 한 팩과 두부 한 모를 구입하는 데 있어 소비자가 느끼는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식재료를 구매하고, 요리하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그 뒤에 동물의 어떤 고통이 존재했는지 공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비단 구매·요리·식사의 과정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것들을 둘러싼 - 예컨대 자신을 먹여달라고 귀엽게 애원하는 ‘핑크빛 아기 돼지’가 나오는 식의 광고 이미지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작년에 돼지 살처분 현장에 갔었어요. 신입남자 분과 이쪽에 하나 찍고 이 쪽은 인제 동영상과 스틸을 하나 찍고 나는 동영상을 캠코더로 찍고 있었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먹살 잡고 욕하고 난리가 났는데, 가만히 애길 들어보니 이 공무원들의 목적은 이 카메라 뺏는 거예요. 방역 때문에 48시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있겠다’고 했더니 소독하면 보내줄 수 있는데 그 대신 자꾸 필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네 시간을 억류를 당했었는데, 그레가지고 네 시간 동안 그 사람들 설득할 때 과연 어떤 장면 때문에...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구요. 그 필름 안에 돼지들이 구덩이 안에서 걸어다니는 게 있냐... 그 구덩이 안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거는 언론에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장면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그러고나서 우리는 고발이 됐어요. 결국 불기소는 됐지만. <사례 6>

54) 일부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고기는 포르노와 유사하다.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기 이전에, 그것은 누군가의 삶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여성억압과 동물억압의 유사성을 지적해 왔다. 육식이라는 제도화된 폭력 속에서 ‘고기’라는 용어가 동물의 개별적인 실제 삶을 추상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 대상의 이미지로 구성된 - 특히 성 산업에 종사하는 - 여성의 몸은 탈인격화된 ‘부위’로서 부각되고 그들의 개별적인 존재감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아담스, 2003; 고미송, 2011)

55) 이러한 용어 사용 역시 잔인한 현실과 인간의 가혹 행위를 감추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육식 이외의 사례를 보아도 예를 들어 유기동물 보호소에 들어온지 10일이 된 동물이 당하는 죽음은 ‘안락사’ 이고, 발육이 부진하거나 체력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거나 특기를 부여받지 못한 군견을 죽이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는 ‘도살’이 아닌 ‘도태’이다. 동물운동 진영의 한켠에선 이러한 언어적 표현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10월 안동의 한 축산농가 돼지에서 시작된 구제역 사태로 이듬해 4월 중순까지 약 150일 동안 소 15만 1천 마리, 돼지 331만 8천 마리, 염소 8천 마리, 사슴 3천 마리 등 가축 348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가축 질병이 창궐할 때마다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살처분해야 한다’는 것을 살처분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정부의 선전만 보면 백신을 쓰면 마치 청정국가가 되지 못한다는 오해가 생기기 쉽지만, 실은 단 9개월간 수출을 하지 못하는 부담을 안게 될 뿐이다. 결국 9개월간 축산기업의 수출이익을 고려해 348만 마리의 동물을 도살한 셈이다.⁵⁶⁾ 이렇게 전염병 발생 시 생명에 대한 고려 없이 인간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 수많은 동물을 살처분 처리하는 것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는 대량학살’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윤영, 2011)

동물들에 대한 타자화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에 신경을 쓰지 않게끔 만드는 마취제의 역할을 하였으나 동물단체와 일부 기자들을 통해 노출된 수많은 돼지들이 생매장을 당하는 장면과 그들의 비명소리는 미약하게나마 국민들에게 동요를 일으켰다. 2011년 2월 뒤늦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을 바꾼 것 역시 당시 너무 많은 동물들을 살처분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동물 단체의 활동가인 <사례 6>은 산 채로 땅에 파묻히는 돼지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다가 억류되고 고발이 된다. 집단으로 생매장 당하는 돼지들의 모습은 이 사회에서 보고 기록하는 것이 금지된 현대 축산업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 사람은 내부적으로 합리화를 해요. 그러면서 그 폭력성을 내부적으로 계속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생매장 그 현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리화하는가, 어떤 식으로 잊어버리고 앞으로 그 폭력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떻게 발전될까 두려워요. 예전엔 동네에서 돼지나 소 먹을 때 대충 때려 죽여 먹었지만, 지금은 그 행위가 굉장히 잔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살장에 보내놓고 더 간단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잖아요.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폭력이 교묘하게 변화

56) “송아지 요리 먹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전경옥, 오마이뉴스, 12.01.12)

하는 거죠. 여론이 무서우니까 앞으로 350만 마리를 한꺼번에 그렇게 죽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교묘한 방식으로는 죽일 수 있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잘못된 행위가 있었는데 그걸 반성하지 않고 계속 가면 언젠가는 또 터진다는 점이에요. <사례 6>

계속해서 <사례 6>은 구제역 사태를 겪으며 앞으로는 “더 교묘하게” 동물의 생명을 통제하는 방식이 등장하지는 않을지 우려한다. 생매장식 살처분이 그 잔인한 면의 노출 때문에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그 살처분의 과정이 합리화되며 사람들의 마음은 다시 편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살처분은 걸림돌 없이 다시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반복·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산업 축산의 특징 중 하나는 동물의 사육에서 도살까지 전과정이 공장상품 만들듯 컨베이어벨트의 흐름에 따라 제작된다는 점이다.⁵⁷⁾ 이는 생산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인 동시에, 일반인들로 하여금 도살이 -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 비인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숨겨 공감을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러한 축산 과정의 은폐는 우리 행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사회적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낳는다.

2) 현실의 불편함과 외면

우리의 도덕적 고려 대상에 속하지 못하는 이들의 고통은 잘 느껴지지 않으며, 특히 그 고통을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윤리적 거

57) “자동차 회사 포드(Ford)의 사장 헨리 포드는 1900년대 초에 방문했던 시카고의 한 도축장을 모델로 자신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분업화된 조립 라인을 만든다. 그는 다리가 묶이고 머리가 아래로 가도록 거꾸로 매달린 동물들이 컨베이어의 움직임에 따라 한 노동자에게서 다른 노동자에게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각 노동자들은 도살 과정 중의 한 단계씩을 수행하고 있었다. 포드는 거기서 자동차 공장의 완벽한 모델을 보았고 새로운 자동차 조립 방식을 구상하였다. (...) 도축장의 조립라인에서 동물들은 생명체가 아닌 하나의 공장 제품으로 전락했고, 감정적으로 무디어진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동물들을 도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일개 노동자로 인식하게 되었다.” (구달, 2009)

리감은 더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미디어를 통해 다른 나라의 전쟁을 접하는 이들은 그 심각한 폭력의 실상을 공감하기가 매우 힘들다. 전쟁 보도를 시청하는 것과 전쟁 영화를 소비하는 것의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동물학자 로렌츠(K. Lorenz, 1974)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 역시 동물로서 본래 동물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살육과 억제’의 균형을 갖고 있었으나, 무기의 발명으로 그것이 깨지고 말았다. “만약 인간이 몸이 지니는 자연적인 무기만으로 공격했다면 이런 공격 억제가 형제 살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근대적인 원격조작 무기를 쓸 때 우리는 그 억제를 해제하고, 동정을 자아내는 일체의 자극 상태에서 완전히 단절되어버린다. 우리의 정서적인 심층은 집게손가락의 발사 신호가 타인의 창자를 찢는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의 무기가 도달하는 거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무기가 가져오는 모든 결과는 더욱 더 우리의 감정에 와 닿지 않게 된다. (...) 버릇이 나쁜 아이를 야단치지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로켓 무기나 폭탄 투하 장치의 버튼을 눌러 몇 백 명의 귀여운 아이를 불태워 죽일 수 있다. 선량하고 예의 바른 한 가족의 아버지들이 용단폭격을 저지른 것이다. (Lorenz, 1974)”⁵⁸⁾

동물들이 처한 현실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 우리가 먹는 음식과 옷의 재료가 되는 동물과 그것을 소비하는 인간의 사이에는 긴 윤리적 거리감이 존재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기를 제공하는 동물의 사육과 도살이 사람들의 삶의 영역과 철저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잡아먹는 동물과의 친숙한 관계를 없앴으로써 양심의 짐을 덜고 생명체의 살해에 흔히 수반되는 공포·수치·혐오·후회 등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장치이다 (리프킨, 2002). 즉, 동물 고통에 대한 사회적 ‘은폐’와 사람들의 ‘외면’하고 싶은 마음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다섯 살 때 엄마가 저를 데리고 시장에 갔는데, 그 기억이 거의 제가 갖고 있는 처음의 기억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큰 들통 같은 거 앞에 막 연기가 나

58) 와카쿠와 미도리(2007)에서 재인용. 애런슨(2002) 역시 “현대전에 사용되는 무기들은 잠재적인 희생자들에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죽음의 도구를 마구 휘두르는 자들로 하여금 무고한 목표물의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하도록 만들기가 쉬워진다”고 지적한다.

고 있고, 닭을 그냥 그 뜨거운 물에 넣어서 닭이 막 소리 지르는 그 기억이 있거든요. 닭 잡는 모습이 너무 충격이어서 그 기억이 내가 고깃 안 먹게 된 거에 좀 이후에도 영향을 좀 끼친 거 같아요. (...) 또 어렸을 때 백과사전 보고 놀았는데, 기억이 나는 게... 소 그림이 이렇게 있으면서 소는 모든 걸 다 사용한다... 여기는 뭐, 머리는 뭐, 가죽은 뭐로 사용되고... 근데 다 사용된다 그러면서...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어렸을 때 고기 중에서도 제가 갈비처럼 원래 뼈가 있는 거는 싫어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상관관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례 9>

<동물원의 탄생>이라는 책도 있죠. 동물원이 여러 가지 변화과정을 거쳤는데, 인간 전시부터 해가지고... 근데 사람은 전시하다 말았잖아요.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달은 거지. 그 순간이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부터죠. 근데 동물들은 계속 전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꺼내주지 않고. 그러니까 눈을 피하는 거지, 눈동자 마주치는 거를. 교감이 될까봐. 오히려 교감이 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구경을 편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계속 우리는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어찌면 외면하고 있는 거죠. 눈 마주침을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스스로 현실을 알게 될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먹는 고기도 포기해야 되고, 동물원도 못가게 될 거고, 자동차도 못 타게 될 거고. <사례 8>

대부분의 경우 육식의 이면에 잔인한 현실이 놓여 있음을 감지하고는 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주하게 되면 느끼게 되는 불편함 때문에 외면하게 된다. 아담스(2003)는 이러한 심리에 대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동물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동물도 우리가 자신들을 어떻게 대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품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아니면 우리는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는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바라는 것 같다”며 그 강한 부정을 설명한다. 타자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감정이입으로 인해 우리의 불쾌감은 더욱 커지므로 그 불쾌감을 줄이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부인하려는 경향성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애런슨, 2002).

<사례 8>은 원주민과 흑인을 동물에 가까운 최하층의 야만인으로 설정한 근대 인종주의와 제국주의의 논리에 의해 과거 서구의 동물원에서 흑

인 원주민을 관람하게 했던 사례(로스펠스, 2003)를 이야기한다. 당시 관람자와 피관람자 사이의 갭은 동물과 같은 존재로 생각했던 그들이 말하는 모습에 허물어졌는데, 사실 본의 아니게 교감이 됨으로써 자신이 누리는 - 육식이나 동물원 관람 같은 - 즐거움을 포기한다는 건 쉽고 편한 일이 아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한번쯤은 이제 애네가 어떻게 해서 내 식탁에 오르는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고기만 보니까 그 이전의 과정에 대해선 생각을 잘 안 하죠. 내 입이 즐거우면 행복하니까. 현실을 알면 알수록 괴로워진다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은 거 같아요. 제 친구 중에도 개고기를 먹는 애가 있어요. 제가 관련 책을 선물했더니 다른 사람 주라고... 나의 즐거움을 잃고 싶지 않다고 그 책을 안 받더라구요. (웃음) 뭐 알게 되면 그 친구도 안 먹을 수 있잖아요. 접하면 접할수록 현실을 알게 되면 동물복지에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알면 알수록 고기를 먹더라도 좁은 곳에 몰아넣고 키운 소보다는 방목해서 키우는 소라든가. <사례 1>

동물단체에서는 평범한 일이에요. 그냥 뭐 ‘지나가는데 개가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데리고 가라’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다 구조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뭐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떠돌아다니는 개를 봤을 때 개가 저렇게 떠돌아다녀선 안 된다는 생각을 나름 한 거겠죠. 눈 앞에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맘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을 제거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니다. 나는 신고한 걸로 일을 다 한 거고 안 하면은 니네 잘못이고...’ 그렇게 동물단체를 처리반으로 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많아요. <사례 2>

마음이 불편해지는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자 애쓴다. “현실을 알면 알수록 괴로워지기 때문에, 내 입의 즐거움을 잃고 싶지 않아 알게 되는 것을 회피 (사례 1)”하는 것이다.

<사례 2>는 동물 단체와 그 활동가들을 처치 곤란한 동물의 ‘처리반’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말하자면 본인이 원하는 조건에서만 동물을 ‘예뻐’하고, 불편하고 귀찮고 외면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 예컨대 동물운동단체와 같은 - 다른 이가 그들을 ‘처리’해주어야 한다

고 여기는 것이다. 이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동물의 삶에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받아 안아야 할 문제, 우리 모두와 사회가 고민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눈에 띄지 않길 바라며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야생동물의 경우 사람들이 동물의 왕국,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걸 보면서 뭔가 막연한 환상 같은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메시지 자체는 그래도 대중적으로 좀 잘 먹혀들어가는 편이죠. 하지만 야생동물 문제도 경제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슈화, 문제제기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이익과 관련이 되면 당연히 ‘피해당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냥 다 죽여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사례 2>

사람들이 채식 안 하는 이유, 육식을 못 끊는 이유, 그 밖에 다른 사회적 문제도... 귀찮거든.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빼앗기기 싫거고 두려운 거거든요. 남성들이 여성 문제 싫어하는 거? *** 당에 투표하는 그 사람들... 모든 게 다 기득권의 문제인 거거든요. 이 채식의 문제도 마찬가지, 내가 뺏기는 게 싫거든요. 결국은 다 기득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한번 가지면은 내놓지 못하는 게 기득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갖도록 우선 노력을 해야 돼.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거를 포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만 안 갖고 있는 거는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고 명예 권력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번 가지면 그것이 나의 이미 돼버린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거야. 그거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놓지 못하는 게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지만 인간이 위대한 것은 뭐냐? 그것을 한번 잡으면 놓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고 안 갖는 것, 그것 또한 인간의 위대함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례 7>

<사례 7>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기득권의 문제”라고 규정한다. “동물 해방을 가로막는 요소 중의 하나는 바로 억압을 가하는 집단의 거의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억압에 개입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억압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기를 먹는 이들은 동물들의 이익을 무시함으로써 이익을 얻게 되는 -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 이익집

단”이다 (싱어, 1999).

<사례 2> 역시 육식을 대표적인 예로 들며 “문제가 자신의 이익과 결부되었을 때 사람은 더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돌변한다”고 이야기한다. “어쨌든 관심을 끊고 나면 자기 속은 편하니, 본질에 파고들어갈수록 사람들은 더 방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보통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은 높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도시생태계에서 거의 눈에 띠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갈등을 빚을 일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평소에는 야생동물에 대해 호의적이던 사람들도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면 바로 돌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평소 추상적으로 ‘야생동물을 보호하자’고 말하던 이들도 먹을 것이 부족해진 멧돼지가 도심에 출현하여 자신의 - 안전이라는 -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다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물의 복지와 권리를 선택의 여지없이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베코프, 2011).

3) 육식 대상의 일관성 논리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과 ‘마음껏 이용해도 되는 대상’ 사이의 기준과 논리를 자신의 이익만을 보호하며 자의적으로 설정·적용하는 것 역시 동물에 대한 지배를 합리화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아래 <사례 3>의 이야기와 같이, 활동가들이 동물권 운동의 일환으로 채식을 권장하는 캠페인 활동을 펼치면 어김없이 되돌아오는 말이 “풀은 생명 아니냐”며 “풀도 소중한 생명이지만 우리가 먹고 있으니 소·돼지도 역시 먹어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고기 문제가 나오면 똑같은 사람들에게서 “소·돼지는 소중한 생명이 아니냐”, “개고기 반대하는 사람은 앞으로 소고기도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즉 “풀도 먹으니 소·돼지를 먹어도 문제 없고, 소·돼지도 먹으니 개를 먹어도 문제 없다”는 ‘일관성’의 논리인 것이다.

개를 잔인하게 때려잡는 걸 보고 ‘어떻게 사람이 개를 저렇게 할까’ 그러면 ‘플도, 이도 살려고 하는 소중한 생명인데’ 그렇게 말하며 일관성의 문제로 확장을 시켜나가는 건... 그 동물한테 좋은 방향으로 확장시킬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억압이나 착취나 학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 논리를 적용해요. ‘이도 그렇고 닭도 불쌍하다, 뒷마당에 상추는 어떻게 뽑아먹냐...’ 그런 건 내가 지금 상황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그것이 온당하며 합리적이며 계속 누리겠다는 그냥 하나의 고집이에요. 동물한테 안 좋은 쪽으로 확장해서 적용하는 거죠. ‘소 돼지는 먹는데 개는 왜 못 먹어?’ 그러는데 소 돼지 먹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성찰해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 소 돼지도 이렇게 영리한 동물을 키우고 먹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사람들이 소 돼지 먹으니까 개고기 먹자고 할까요. <사례 3>

야생동물 운동하는 사람 중에는 개고기 반대 운동을 중요치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도 별 관심 없었어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먹는 거랑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아주 심플하게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농장동물로 돼지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확장하다보니...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소 돼지 닭을 먹으니까 개도 먹을 수 있고, 그럼 개를 먹을 수 있으니까 아, 곰은 왜 안 돼? 곰을 먹으면은 호랑이는 왜 안 돼? 다 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점점 먹을 수 있는 종을 확대시키는 거밖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야 되는 거고... 평준화라는게 평등개념이 이게 하향 평준화예요, 하향평준화. 그건 아닌 거죠. <사례 8>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남한 관광객들의 백두산 관광 코스인 대규모 곰 농장을 찾았던 <사례 8>은 사육된 곰의 쓸개를 문제의식 없이 먹은 사람들은 - 더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바람으로 - 결국 야생 곰의 쓸개도 찾고 호랑이 발바닥, 헛바닥까지 찾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이 성찰 없이 본인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육식의 방향은 먹는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만 진행되고, 소돼지를 먹는 것이 괜찮으니 개고기도, 나아가 야생동물을 잡아먹는 것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그 논리는 개발된다.

이에 대해 <사례 3>은 “결국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른바 일관성 중에서도 처우의 ‘상향평준화’가 아닌 ‘하향평준화’를 주장하는 것이다. ‘A가 되면 B는 왜 안 되냐’라는 논리는 합리적으로 보이기 는 하나, 고미송(2011)은 이러한 입장에 대해 “어려웠던 시절 가난했기 때문에 맏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했었는데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진 지금 막 맏아들한테 대학공부를 시키자니 맏아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서 그만둘 것인가? 무엇을 위한 형평성인가?”라고 질문을 제기하며, “평등의 가치는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지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식용견이 따로 있는 게 아님. 너무 웃긴 게, 제가 처음에... 활동하기 전에는요 ‘개고기 먹는 사람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 한 거죠. 그런데 나한테 정말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인데... 혹시 돌아다니다가 내가 잃어버리면... 나한테 반려동물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개고기인 거죠.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식용견이라는 말 자체가 쓸 수 없는 건데 사람들이 편리하게 자기네들 그냥 마음 편하려고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이거는 먹어도 되는 거라고 자꾸 못 박는 거죠. ‘난 식용견을 먹는 거야’라고. <사례 1>

식용견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있지도 않고 아주 굉장히 웃긴 얘기잖아요. 개가 사람하고의 관계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특수하다는 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개고기 먹자구요.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고, 이 동물이 사람하고 살아온 그 진화의 역사 자체가 달라요. 그게 다른 거를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부정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구요. 그럼 증명을 해보라구요, 뭐가 식용견인지. 뭐가 식용견인지를 증명할 수 있으면 그때 그 얘기를 해야죠. <사례 3>

한편, 개고기 식용 문화를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입장은 ‘애완견과 식용견은 다르기 때문에’ 개를 먹는 문화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집에서 버려진 ‘품종 좋은’ 수많은 개들도 보신탕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그것은 맞는 사실도 아닐뿐더러, “풀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에 육식문화에 대한 윤리적 고민은

의미가 없다”라는 일관성 혹은 하향평준화의 논리와도 맞지 않는다. 고미송(2011)은 ‘소에 비해 개가 누리는 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와 ‘식용견에 비해 애완견이 누리는 특혜는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는 상충된다면서, “종과 종 사이의 불평등에 수궁할 수 없다면 종 내부의 불평등도 수궁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한다.

‘년 그럼 소돼지는 안 먹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기존 식용동물은 지금 이미 그렇게 지금 희생을 당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개까지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인 거죠. 저도 소나 돼지의 고통에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에 채식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개고기를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농장동물도 굉장히 동물복지의 복자도 꺼낼 수 없는 상황에서 애네들이 길러지고 있고 고기까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고기는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개까지 식용동물 범주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그 논리가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례 1>

사실 우리가 동물을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애네들을 축산동물을 다 해방시키고 싶죠 우리는. 근데 육식을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현실성이 없고 역효과만 나니까. 현실에서 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하니까 이제... 축산 동물의 종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이 동물, 저 동물 아무거나 다 먹는 식으로 가선 안 돼요. 축산 동물 종류를 줄이고 또 수를 점차 줄이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서 키우는 만큼은 좀 그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례 10>

개고기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사람들은 “개와 소·돼지를 똑같이 대하라”고 또한 “개고기를 합법화하면 식용이 되는 개들의 복지도 더 개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가들은 동물의 평등을 고려한다고 개고기를 합법화해놓고 다시 그 동물의 처우를 생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이야기한다. 산업축산은 복지가 고려된 축산방식이 아니라 이윤을 목적으로 농장동물들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동물학대적 생산 방식이며, 따라서 산업축산

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개들에 대한 학대는 더욱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운동 진영은 개고기는 ‘반대운동’으로, 소·돼지·닭은 ‘채식운동’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KARA, 2009)

이렇듯 그들은 인간 기득권의 방패논리로서 모든 동물에 대한 처우를 다 같이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 처우의 ‘상향’평준화 혹은 해방적 평등을 지향하고 권유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2. 인간의 기득권에 대한 성찰과 저항

동물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인간중심적 차이 담론에 의해 타자화된 동물들을 공감을 통해 우리의 도덕공동체 내로 포용하는 것(IV장)에 그치지 않고, 그 차이에 근간하여 만들어지는 동물에 대한 지배구조와 그 권력관계에서 인간이 누리는 기득권을 성찰하고 그것에 저항한다.

손택(2004)은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 - 우리가 상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식으로, 가령 우리의 부가 타인의 궁핍을 수반하는 식으로 -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야 한다”며 지배구조에 대한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아래의 <사례 7>은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먹어왔던 고기가 실은 체계적으로 동물을 학대하고 죽임으로써 식탁에 올라온 것임을 깨닫고 긴 시간에 걸쳐 문제의식을 심화하게 된다. 다른 대부분의 활동가들 역시 이러한 깨달음을 거쳐,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육식 문화를 다른 - 동물의 - 시각에서 조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들의 이러한 성찰은 “사회적 실천을 자신도 모르게 수행하게 만드는 무의식적 전제조건에 대한 체계적 폭로 또는 드러내기 (Bourdieu, 1992)”의 의미를 갖는다.

‘이 식탁의 고기가 그냥 마켓에서 난 게 아니라 소들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내 앞에 와 있구나’ 그 의식을 하게 된 거죠. ‘이 고기가 살아 있는 생명이었네, 동물이었네’ 그러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그 동물들이 받는 극심한 고통 이런 게 눈에 들어오고 동물 문제가 이제 내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소의 생명이 아니라 여기에 고통이 수반이 되고 또 그 고통을 주는 학대자의 면에까지 이르다보니까,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살을, 내가 사체를 먹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안 먹게 되고... 그 과정이 나한테는 하루아침에 ‘어? 갑자기 고기 냄새가 나서 못먹겠어!’ 이게 아니라 저한테는 그게 1년 넘는 과정이었어요. <사례 7>

육식을 끊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그 이후 유혹을 많이 받죠. 저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왜? 그게 얼마나 좋은 안주거리가 많은데 왜 삼겹살에 소주를 먹어?’ 이런 건 전혀 설득력 없는 얘기에요. 삼겹살에 소주 녹아요 (웃음) 그런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받죠. (그럼에도 안 먹는 이유는 뭔가요?) 죄책감, 미안함. 내가 동물들이 죽는 걸 봤기 때문이에요, 도살장에서. 그리고 내가 핫도그 되게 좋아하지만 소세지 만드는 과정을 아니까 못 먹는 거죠. 소세지는 어미 돼지들 새끼 다 까고 더 이상 새끼 못 낳아 처지가 됐을 때 도살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미 몸이 축나 있어서 고기로는 안 되니까. 더 끔찍한 거죠. <사례 6>

<사례 6>은 원래는 삼겹살과 소세지를 무척 좋아했지만 활동을 하며 동물들이 어떻게 길러지고 죽임을 맞이하는지 직접 보고 알게 되면서 죄책감을 느껴 스스로 육식을 중단하게 된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면접참여자들은 육식 이면의 현실을 알게 된 후 고기를 줄이거나 먹지 않게 되었음을 이야기한다. 특히 이들은 그냥 ‘일반인’이 아닌 동물들의 고통을 잘 알고 그 상황을 개선하려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었다.⁵⁹⁾

59) <사례 1>은 임신 후 채식 습관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대해 활동가로서 갈등을 느낀다.

“동물운동하는 사람인데 자신 있게 어디 가서 ‘나 고기 먹어’하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정말 갖고 있는 사람인데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그 동물들이 정말 불행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육식을 하지 말아야 하는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게 조금이라도 틀어진 거니까.”

동물을 지배·착취하는 구조와 그 구조에 속해 있는 인간의 기득권에 대해 활동가들은 성찰하고 저항을 모색한다. 동물을 희생시키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서구사회의 동물권 운동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채식주의를 강조해왔다. 채식주의 하게 되면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 죽이는 동물의 대부분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육식 문화와 산업은 동물 억압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히 동물운동의 역사가 긴 서구사회에서 동물권 활동가들은 육식을 피하는 것은 물론 동물의 부산품으로 만든 제품들에겐대 가죽 옷·가죽구두·모피제품·동물장식품 등도 이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⁶⁰⁾ (유선봉, 2010)

역사가 길지 않은 우리나라 동물운동의 경우 동물을 먹고 이용하는 구조에 대한 저항이 아직 체계화된 것은 많아 보이지만, 최근 몇 년 간 조류독감과 구제역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자행된 동물 생매장이 기폭제가 되어 농장동물들의 처우와 육식 산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동물들의 희생이 중단되기를 바라면서도, 그것을 위한 실천이 의미의 본질은 잃은 채 강요되지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채식주의’라는 표현 자체에만 연연하는 분위기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완벽을 자꾸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고, 조금씩의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죠. 채식주의도 그래요. 누가 ‘나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못 먹겠더라. 닭고기는 근데 내가 너무 맛있어서 그건 내가 먹고 있어’라고 한다면 그건 일단 하나의 큰 발전이고, 많은 가능성 속으로 발을 디딘 거예요. 그 사람한테 ‘넌 그건 채식주의자도 아니고 넌 사이비고 넌 나쁜 놈이야’라고 얘기하

60) 서구에서 채식주의는 달걀은 먹지만 유제품은 먹지 않는 오보 채식주의(Ovo Vegetarianism), 유제품은 먹지만 달걀은 먹지 않는 락토 채식주의(Lacto Vegetarianism), 달걀과 유제품 모두를 먹는 오보-락토 채식주의(Ovo-lacto Vegetarianism), 달걀과 유제품뿐 아니라 꿀처럼 동물에게서 나온 모든 제품을 먹지 않는 완전 채식주의(Veganism)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채식주의의 논거로서 폭스(M. A. Fox, 1999)는 (1) 건강, (2) 동물의 고통과 죽음 감소, (3) 공정성 및 만물의 안녕 촉진, (4) 환경에 대한 관심, (5) 만물에 대한 온정 및 다른 동물들과의 공생 재고, (6) 종교적인 이유 등을 들고 있다. 채식주의는 인간과 동물, 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좀 더 바람직한 생활방식의 선택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면 안 돼요. 그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모든 건 사실 다 과정이에요. ‘일단 나는 그러면은 회는 너무 좋아하니까 못 끊겠으니까 소 돼지 닭부터 먹지 말아보자.’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사례 3>

우리가 동물 활동을 하는 건 동물들이 조금이라도 학대를 받지 않고 안락한 처우를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 다큐를 봤는데, 동물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영상으로 보고 충격을 받은 한 여자가 채식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 본인이 육식을 해야 한다고 말을 들어 고기를 먹어야 했는데, 그래서 생각한게 ‘시골로 내려가 동물을 직접 키워 내 동물을 먹자’라는 거였거든요. 그 사람이 동물을 도살할 때 그 과정들... 그 동물이 지낼 때만큼은 충분한 사랑을 주고 최대한 인도적으로 대하고 또 그 고기가 오면 감사히 먹는 그 과정. 모피에서 우리가 욕을 하는 건 그걸 얻는 그 과정의 학대이고, 우리가 채식을 말하는 거는 공장식 사육의 문제점들을 욕을 하는 거예요. 월 먹니 여부보다 동물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례 5>

최근 몇몇 여성 연예인들의 채식 실천이 공개된 이후 그들이 사적으로 입었던 가죽치마와 방송 때문에 입에 집어넣었던 고기 한 조각을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 동물권 관련 개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경직된 이해는 “교조적인 규범을 억압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비난과 죄의식을 생산(고미송, 2011)”해내기가 쉽다. 하지만 외부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동물운동을 하는 이들 중 ‘꼭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 관련하여 <사례 3>은 특히 채식의 문제에 있어 ‘완전한 채식(vegan)⁶¹⁾이 아니면 의미 없는 것’이라는 인식은 “오히려 실천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라며, ‘비건’만 강조하는 것은 어떠한 발전의 과정도 가치 절하하는 폭력의 논리가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사례 5>는 육식 문제의 접근은 ‘오늘 무엇을 먹고, 먹지 말까’ 그 자체에만 연연하기보다 ‘어떻게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공장식 축산⁶²⁾에

61) 달걀과 유제품뿐 아니라 꿀처럼 동물에게서 나온 모든 제품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한다.

62) 현대의 축산업은 집약적 축산 또는 공장식이라는 특성으로 요약되는데, 이는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한 군데에 많은 수의 동물을 모아놓고 사육하는 것과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동물을 생산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공장식 축산 환경은 높은 생산성을 지향하기 때문에 동물의 자연적인 습성은 크게 고려되지 않아 성장 환경의 부적합성, 신체 훼손,

협조하지 않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양이와 함께 사는 <사례 9>의 경우는 스스로 채식을 하며 자신의 고양이에게는 무엇을 먹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고 있었다. 고양이는 본래 채식 동물이 아니지만,⁶³⁾ 사료를 위해 공장 제품처럼 비인도적으로 길러지고 죽임을 당하는 닭고기의 소비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고양이의 사료 문제에 있어서조차 더 나은 선택은 없을지 고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이 하는 채식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식물을 먹는 것' 자체라기보다 '동물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다.

한편 '나의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보다 '동물의 고통을 막거나 줄이는 것'이 활동가들이 실천하는 채식주의의 의미라면 '지금 이 식당에 요리되어 있는 고기는 이미 죽은 것이니 사먹어도 상관없지 않냐'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의 소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일의 공급을 부른다 (사례 6, 7)"는 점을 강조한다.

동물을 지배하는 구조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의 고통은 은폐되고 사람들에게 의해 외면됨으로써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별 의미 없이 소소해 보이는 인간 개인의 일상이 그 구조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은 동물운동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전엔 모피나 가죽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 건 일단 끊었다든가. 모피는 절대 안 입고... 가죽 같은 거, 지갑 하나라든지... 조그만 것 요만한 거 하나라도 가죽이라면 이제는 안 산다든가... 이젠 그러죠. 친구들이 모피 제품을 입고 오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살아 있는 걸 가죽을 벗긴다" 이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고... 그럼 제일 고마운 게 관심 가져주는 친구들이죠. "그 말 듣고 안 샀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기분 좋죠. 근데 반면에 저 상처 받을까봐 얘기는 안 하지만 딱 데 가서 먹고 입고 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가죽만은 죽어도 포기 못하겠다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 고통스러운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례 4>

질병 등에 노출됨으로써 성장촉진제, 과도한 항생제 사용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도축 역시 고통을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않고 있으며 도살은 종종 동물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지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2006)

63) 하지만 일반적 인식과 달리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오늘날의 개나 고양이과 반려동물들도 질 좋은 채식사료만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사실 강아지 키우는 사람, 동물 좋아한다는 사람도 동물 먹고 가죽제품 입어요. 저도 채식한지, 또 가죽 제품이라든가 모피 제품을 처분한지 얼마 안 됐어요. 이쁘거든요. 그거 하나 붙이면 정말 옷이 달라보여요. 옷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도 이해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이것만 봐요. 옷에 달려 있는 모피만 생각해요. 그것이 어떤 동물의 것인지 알지만 이 동물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내 옷에 달려 있는지 모르고 생각 잘 안 해요. 미국 같은 경우 어렸을 때부터 ‘니가 이것을 공짜로 받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받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보니깐 ‘우리가 먹는 고기가 그렇게 많은데 이게 다 어떻게 만들어질까? 왜 그렇게 빨리 나오겠어?’ 이런 생각들을 안 하잖아요. <사례 5>

<사례 4>와 <사례 5>는 우리가 입고 신고 매는 가죽이나 모피가 실은 동물들의 큰 고통과 희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소비와 생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모피 생산의 경우 그 옷과 신발 하나를 만들기 위해 동물들이 학대를 받으며 사육되거나 잡혀서 고통 속에 가죽이 벗겨지고 있다는 정보가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숨겨진 현실의 ‘폭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비와 생활방식을 돌아보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동물운동 방식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축산동물 복지 개선 운동, 보신탕 반대 운동, 모피 반대 운동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캠페인 활동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사례 5>는 “소통에 있어 우리나라가 갖는 인터넷이라는 장점을 아직 한국 동물운동이 잘 살리지 못하고”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계도적 전달을 넘는 소통방식을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한다. “이 동물들이 처한 상황, 왜 우리가 채식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해주려면 활동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전달만 하지 말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야 할까’라는 방법론에 대해 많이 고민해야 (사례 5)”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그렇게 동물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다시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되더라구요. 다른 사람들도 제가 잔인한 뭔가를 보여줬을 때 오늘 하루만큼은 먹지 않거나 아니면 먹더라도 ‘아, 오늘 학교에서 그 장면을 봤는데’ 하겠죠. 제가 학교 강의 나가면 ‘돈까스랑 치킨 제일 좋아하지? 이렇게 도살이 돼서 생산되는 거란다’라고 보여주면 미치려 그러고 ‘어떡해! 인제 돈까스 못 먹겠어’ 그래요. 이러면 분명히 그 친구들은 오늘 하루? 내일 하루일 거란 말이야. 사실 제발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봐달라고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만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장기적인 걸로 갔을 때는 얼마나 먹힐까... <사례 4>

지구온난화 막 이렇게 하면서 ‘너네들이 고기 먹어서 지구온난화 됐어. 그리고 동물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언커버 비디오를 보여주는 거. 너무나 은폐되어 있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해요. 그런데 죄책감 때문에 고기를 안 먹게 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죄책감이 공장식 축산이 되는 동물들을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의 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국에서도 광우병으로 수백만 마리 막 태워 죽이는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영국사람들이 다 채식주의자 된 거 아니거든요.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례 3>

<사례 4>과 <사례 3>은 동물들의 현실을 폭로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고 해서 거대한 육식문화가 없어질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고 있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당장 그 현실을 알고 또 그것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더라도 - 동물을 차별하는 사회에서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인 그들의 고통은 무시해도 좋은 존재로 사물화되고 타자화되므로 - 우리는 불편한 현실을 다시 ‘외면’함으로써 자신이 누리는 이익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 그들은 사람들에게 동물학대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알리는 것과 동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해주는 방식을 적절하게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은폐된 현실을 보여주는 것 외에) 좀 더 나아간 무언가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워싱턴에서 잠입취재해서... 닭공장에 가서 한 마리를 구조를 해와요.

모습이 성치 않고 다 털 뽑혀 있던 그 닭이 동물보호센터에 가니까 벼슬이 되게 멋있게 되고 날개짓도 멋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많이 보여주는... ‘니가 어저께 먹은 치킨이 원래 이런 존재였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돼지나 소도 그 애들의 표정과 막 이런 게 단순하게 내 오늘의 술안주거리로 그냥 혀에서 자꾸 땡기고 그런 존재일 뿐이었는데 머리에서 ‘여기다 소주 한잔’ 이런 걸로 먹은 그 생명은 바로 이런 아이였다, ‘오늘 니가 먹겠다고 하면 이 애를 잡아야 하는데 과연 먹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 아이와 그 사람을 일대일로 다이렉트로 쏘는 거죠... 잔인한 거는 안 봐버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냥 불편한 진실이잖아요. <사례 4>

이름은 중요하죠. 영국에서 2001년인가? 구제역 있었을 때, 그 시위할 때 송아지 한 마리한테 이름 붙여갖고 했잖아요. 그게 엄청 성공이었거든요. 한 개체에 의미 부여를 하면 너와 나의 관계가 딱 설정되니까. 일반적으로 모금할 때도 그렇대요. ‘아프리카 어린이 그냥 구하자’ 이게 아니라 한 명을 딱 집어서 할 때 더 모금액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외국의 어떤 아티스트는 어떤 돼지를 계속 추적해요, 농장에서부터. 그래서 개가 끝에 어디까지 가는지 추적하는. <사례 9>

은폐되어 있는 현실을 드러내는 방식의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긍정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가운데, 위의 사례들은 단지 ‘불쌍하게 희생된 동물들’이 아닌 특정한 존재 하나 하나의 삶이 갖는 소중함을 강조하는 방식을 염두한 것이다.

관련한 사례로서, 1998년 영국 탬워스의 도살장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돼지 두 마리가 탈출해 1주일 동안 도망을 다니다가 이 소식이 전세계 언론으로 퍼지며 결국 도살되지 않고 동물보호소로 가게 된 ‘탬워스 투(Tamworth Two)’ 사건이 있다. 2002년 미국 오하이오 주 신시내티의 도살장에서 살기 위해 탈출한 젓소 역시 언론의 보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Cinci Freedom(신시내티의 자유)’라는 이름을 부여받으며 농장동물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고기의 존재에 대해 재고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동물운동 단체들이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버려진 동물 한

마리 한 마리에 이름을 붙여 그들의 사연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 역시 거시적으로는 동물을 확대하는 구조에 반대하는 캠페인 운동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상은 모두 동물들을 1번, 2번... 식으로 구체적인 이름 없이 도구적 가치만 부여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먹히거나 희생당하지 않을 경우 존재가치와 독자성이 있는 특별한 한 개체임을 보고 느끼게 해주는 운동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베코프(2011)는 연구자들이 특히 실험용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대신 번호를 붙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개를 ‘실험 대상 4886’이라고 부를 때 연구자는 그 동물의 주관성을 쉽게 배제할 수 있다. 실험 대상 동물은 연구자와 분리되고 감정적인 교감은 차단된다. 그리고 연구자는 다른 상황에서 다른 동물에 대해서라면 잔인한 학대로 간주될 실험을 정당화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이름은 즉시 그리고 이름이 정의하는 바에 따라 주관성과 지각 능력을 부여한다. 사람의 이름과 비슷하든 아니든, 이름은 동물을 사람과 혼동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각 능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만든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면서 활동가들은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우리가 도구적 가치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닌 주관성과 지각능력을 가진 존재를 먹고 입고 확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던지는 것을 중요시하고 더욱 효과적인 캠페인과 교육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다큐멘터리 감독인 <사례 8> 역시 평소에는 자연스럽게만 느껴지는 우리 일상의 이면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작업은 관점의 전환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

낯설게 바라보는 과정을 밟아야지 관성에서 뛰쳐나와 그 다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다크는 ‘자동차를 없애자, 길을 없애자, 동물원을 없애자, 육식하지 마’ 라는 식의 결론이 없어요. ‘이게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영화이고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한번 낯설게 바라봅시다’라는 제안을 하는 영화지, 답을 내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냐’ 아예 꼭꼭 씹어주길 원하는 분들 많죠. 문제제기한 다음에 결론, 대안, 해외에선 어떻게 하는지. 그럴 거면 제가 뭐하러 영화 만드냐구요. 그냥 보고서 쓰거나 나가서 피켓 들고 외치면 되는 건데. 영화는 구호가 아니

잡아요.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고, 질문의 방향이 화살표가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나로 향하는. 그래서 불편하다는 분노 있고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는 분노 있어요. 근데 그 낯설게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거예요. 용기도 필요하고, 계속 부지런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니까, (자기가 누려왔던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사례 8>

<사례 8>은 동물의 현실이 기존 미디어에서는 인간 중심으로 각색된 방식으로만 나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동물들의 입장에서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큐멘터리리스트로서 자신의 역할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동물들을 희생시키며 인간의 편의만을 위해 도로를 양산하고 차를 달리는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영화 속에서 로드킬로 죽은 동물들과 인간의 산업화 프로파간다를 교차편집하며 “그동안 익숙하게 보아왔던 것들을 낯설게 바라보는 작업”을 수행한다. 예컨대 “1년 동안 섬진강변 30km 도로에서 1,000마리가 넘는 두꺼비의 주검을 발견했다”는 설명 다음에 “당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라는 간판을 비춰주고, 고속도로 개통 시 기념식 사회자의 입과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교통시간의 단축과 번영, 희망과 행복을 이어주는” 등의 긍정적이기만 한 선전수사와 그 길 위에서 죽음을 당한 동물들의 사체 모습을 교차해 보여준다. 익숙한 현실의 이면에 불편한 진실이 놓여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익숙하다’는 것은, 이 시스템 안에서 자신이 ‘타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는 이 사회의 문제와 그에 대한 정답과 해답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제시해주는 방식은 한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가 ‘관성’에서 벗어나 자신과 자신이 속한 사회를 스스로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동물을 지배하는 구조에 대한 활동가들의 중요한 실천은 사람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의 화살표를 던질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VI. 동물권 활동가로서의 자기성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을 타자화하는 인간중심 사회에서 활동가들은 동물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을 우리의 도덕 공동체의 같은 구성원으로 인정·포용하게 되고 (IV장) 나아가 인간중심 사회의 동물 지배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성찰하고 저항하고 있다 (V장).

이 장에서는 그들이 활동을 하면서 ‘내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과 성찰을 논의하려 한다. 기든스(2001)가 설명하듯이 근대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제도적 성찰성이라면, 사회운동은 사회체계들의 문제를 폭로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시하는 전형적인 성찰적 기구로 자리잡아왔다. 사회운동이 권력의 메커니즘의 문제를 드러내고 교정을 촉진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선 사회운동의 중요한 속성 역시 ‘성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박형준, 2001).

특히 동물운동가들의 경우 ‘(인간의) 말을 못하는 존재’를 위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고·행위를 되돌아보는 자기성찰에 소홀히 할 경우 동물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행한 실천이 자칫 순간적 자기만족을 위한 선택에 그치게 될 수 있다. 때문에 활동을 하며 그들에게 요구되는 성찰성의 강도는 매우 강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동물운동가들의 자기성찰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동물의 고통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괴로움’, ‘운동의 대상·내용·방법’, ‘시선과 판단의 입장’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자기성찰을 하고 있는지 논의하도록 하겠다.

1. 공감적 고통에 대한 성찰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느끼게 되는 우리의 심적 고통은 피해자의 고통이 줄어들 때 경감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행위의 동기가 된다. 즉 공감적 고통 (empathic distress)은 타인의 실제적인 고통을 목격함으로써 유발되며 다

시 이는 고통을 받고 있는 타인을 도와줌으로써 경감되거나 해소되는 것이다 (호프만, 2011). 본 연구의 면접참여자들 역시 동물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의 해소를 중요시하며 활동을 하고 있다.

1) 인간관계의 상처와 끝나지 않는 현실

다른 타자한테 연민을 갖는 일은 분명 힘든 일이에요. ‘동물이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불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여러 부조리 느끼고 변화시키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더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구조해서 입양 보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법을 만드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결국 자기가 거기서 오는 슬픔을 극복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슬퍼하고 있는데서 끝나면 아무 변화도 안 와요. 고통스러운 거 외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누구한테나 다 있지만 그건 외면해서 극복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고. 만약 뭐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다른 방향을 찾는 거고 계속 그렇게 그냥 모색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사례 3>

<사례 3>은 많은 이들이 동물들의 처지에 마음 아파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는 것에 그치고 그것이 괴로워 외면하기만 한다면 현실의 변화는 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즉 ‘공감적 고통’이 방치가 아닌 개선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동물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그 과정에서 여러 심적 고충을 겪고 있었다. 주위의 여러 쉽지 않은 상황·관계에 부딪히며 예컨대 동물보다 사람들과의 충돌, 아무리 운동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잔인한 현실 앞에서 느껴지는 무기력함 속에서 실천의 동력을 잃고 소진되는 활동가들 역시 많았다.

봉사를 다닐 때 그 보호소가 환경이 안 좋아서 장애견들을 데려와 옥상 창고를 개조해 함께 지냈어요. 그런데 임시보호·입양 보내는 과정에서 열 마리 이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집에 문 꼭꼭 닫고 애들이

랑 같이 눈치보고 그렇게 된 거죠. 사람들이 가족한테 당신 딸 뭐하는 사람 이냐고... 저한테도 뭐 다 먹어버린다고 하고. 저는 하루에 죽어가는 몇 천마 리 중 ‘고작’ 열 마리인데 그 사람들은 “열 마리아? 미쳤나봐”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개가 그 집에 똥을 싸 것도 아닌데... 단절이 되는 거 짱아요. 그러면서 보호소장님들도 이해하게 됐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더 수모와 질타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숨게 되고 비뚤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해가 되더라구요. <사례 4>

어이없는 행동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제가 고양이 입양을 보냈어요. 애기 때 너무 이쁘니까 키운 거죠. 그러다가 성묘가 되고서는 못 키우겠다고 데려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다른 곳 알아볼 때까지 데리고 있으라고 했는데 어느 날 애들이 창문을 열고 나갔다며 찾으려는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르다가 못 기르겠다고 ‘난 너희가 안 받으면 안락사시킨다’고... 우리한테 왜 그런 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지 너무 화나요. 동물들은 변하지 않으니까 애네들에 대한 그거는 똑같은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보니 오래 활동을 하면 결국 사람 때문에 떨어져나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활동하다가. 지쳐서. <사례 1>

<사례 4>는 개인적으로 동물 보호 활동을 하며 그의 보살핌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혹은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들의 거센 질타를 받으며 깊은 소외와 위축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 함부로 동물을 대하고 버리는 사람들을 상대하며 힘들어 하는 <사례 1>은 “동물단체니까 무조건 너네가 와서 동물 구조해야지” 혹은 - 구조 이후 임시보호를 하고 입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힘든 과정인데도 - “내가 동물을 구조했으니 그 이후는 너네가 와서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토로한다.

이와 같이 동물들이 겪는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이들의 보살핌 활동은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이나 ‘처리반’ 대우를 받곤 한다. 사실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개밥만 주고 구조해서 잘 되는... 자기가 보고 싶은 모습만 상상하며 활동을 시작했지만, 실제로는 말 안 통하는 보호소장, 화내는 이웃들, 매일 쏟아지는 민원들을 설득해야 하고... 생각하지 못 했던 힘든 인간관계에 지치는 (사례 4)” 일상인 것이다.

그리고 또 끝나지 않는 일이니까 지치는 거 같아요. 이게 한번 프로젝트 딱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잖아요. 이렇게 버려지고 확대되는 애들 계속 발생하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딱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유기동물이 나오지 않는 세상일 수 없으니까. 그러다보니까 활동하며 그런 부분에 지치는 거죠. <사례 1>

이 길이 조금이라도 끝이 보이면 정말 열심히 달려가겠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뭐 하나 해결하면 세 단계 내려와야 되고 또 한 단계 열심히 올라가면 다섯 단계 내려오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다 지쳐가는 거예요. 이게 알면 알수록 딱 답이 나오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올해 구제역이 해결이 됐다 그래서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에 또 생기고. 개농장에서 칠십마리 구조해서 입양 잘 보냈어. 그럼 깨끗하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 또 터지고 또 터지고 하니까 이 길이 계속 가다가도 끝이 없죠. <사례 4>

또한 위의 사례에서 보듯,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최소한 끝이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 견딜 수 있겠지만 활동가들은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버틸’ 힘이 점점 고갈된다. 말하자면 “보호소에 안락사 당하는 한 마리라도 더 입양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저쪽 번식업자가 새끼 몇십 마리를 번식했다고 그러면 기운이 쪽 빠지는 (사례 4)” 경우가 반복되는 것이다.

단지 지금 눈앞에 있는 한 마리만을 생각하면 꺾지 않아도 될 과정이겠지만, 운동을 하며 마음쓰임의 대상이 개인적으로 마주하고 공감하는 한 마리를 넘어 전체 동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이다. 동물운동은 구체적인 개개의 동물들에게 직접적 도움을 주는 활동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동물에 대한 학대를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 법·문화·교육적으로 거시적 차원의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가 없어지는 날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슴 아픈 현실은 끝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들의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게 된다. 이러한 고충들은 운동을 하는 데 있어 활동가들의 ‘감정’ 역시 중요한 고려 지점이 됨을 보여준다.

2) 우울증과 무력감

이 운동을 계속 할 건데 이걸 (가슴 아픈 모습은) 내가 봐야 된단 말이지. 뭘 알아야지 싸우니까. 그랬을 때는 감정의 회로를 하나 끊는 거야 잠깐. 나는 보는 게 직업인데. 봐야지 남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너무 예민해져선 영화를 만들 수 없어요. 너무 슬픔에 빠져서는 도저히 이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스스로 방어막을 치고 좀 무뎠을 필요가 있어요. 반면에 또 너무 무뎠으면 아무런 감성적인 접근을 할 수 없고 애네들에 대해서 동조가 안 되기 때문에. 무뎠으면 그 순간 작품은 죽는 거기 때문에 작가로서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민함은 또 갖고 있어야 되고 감성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정말 줄타기예요. 그 묘한 중간지점에서 작업을 하는 긴장감이 항상 있어요. <사례 8>

너무 감정적인 운동가는 그런 점이 더 많은 일들을 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너무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보고싶어 하지 않는 거죠. 감정적이지 않은게 확실히 유리하기는 해요. (웃음) 그래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을 너무 키우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죠. 내가 지금 뭐 이 커피 안 마시고 뛰어나간다고 해서 뭐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가슴은 아프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괴로우면 진짜 아무 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사례 2>

<사례 8>은 본인의 작업을 위해서도 감정적 반응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동물들이 겪는 고통 앞에서 너무 슬픔에 빠져서는 현실을 보고 작업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고, 반대로 너무 무뎠어서는 그들에게 동조하거나 아무 감성적 접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기획을 할 때는 그들의 상황을 상상하고, 촬영을 할 때는 냉정하게 현실을 담아내고, 편집을 하면서는 그동안 눌러놓았던 감정을 끄집어내 공감하며 작업을 한다”고 한다.

본인은 다른 활동가들에 비해 감정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편이라는 <사례 2>는 동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덜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너무 예민할 경우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경우에도 주춤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본인을 위해서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어서, 심적 고통을 혼자만의 힘으로 소화하는 것은 역부족으로 보인다.

학대 받는 동물을 인제 구조도 못 하고 막 그러면은 자책이 들죠. ‘내가 왜? 조금이라도 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생기죠. ‘개는 지금 뭐 할까...’ (못 데려왔으니까요?) 네. 내 눈 앞에 안 보이면 걱정 되잖아요. 계속 그거에 휩싸이는 거죠. 저는 항상 활동가들이 심리적인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 자신을 되돌아보는 여행을 간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정말 사람은 자기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책임감 부여예요, 그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게. ‘나 이런 일 있었으니까 너 좀 들어줘라...’ 약간 의지해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동물 단체에 그런 게 없죠. 자기 혼자 속으로 삭혀야 되는. <사례 5>

고통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루가 우울할 때가 있고... 나중에 원망도 많이 했죠. ‘어쩔 이럴 수가 있지? 내가 죽어야 이런 거 다 안 보겠지? 그냥 죽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잔인한 걸 많이 보니까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외국은 그런 거 너무 많이 보는 동물단체 직원들 정신 상담, 이런 힘든 일을 할수록 잔인한 걸 많이 볼수록 그런 걸 하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살려보겠다고 데려왔는데 허무하게 죽는다거나, 입양 보냈는데 애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비참한 것도 봐야 되고... 보호소 가면 상황이 정말 지옥이니까 시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저도 잠깐 일 접었던 적이 있어요. <사례 4>

동물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다른 운동과 달리 동물들에게 직접적·정서적 공감을 하고 시작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마주하며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러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어, 상담제도의 운영 등 커뮤니티 차원의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 4>는 예전에는 “사람은 알아야지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시선을

회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많은 희생에 모두 응답하기가 현실적으로 심리적으로 모두 힘들어서 “차라리 보지 말고 지금 하는 일이나 집중하자”는 선택을 하기도 한다. 특히 구제역 당시 돼지들이 살처분을 당하러 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서 그는 자신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웠다고 한다. 이는 아래 <사례 6>의 경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돼지 비명 소리가 그렇게 크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몇천마리가 구덩이에 들어가서 허우적대며 비명을 질러대는데. 농장에서 돼지들 트럭으로 때리면서 몰아넣고 내려서 트럭 뒷문을 딱 열면 살아있는 돼지들이, 애기돼지들도 같이 막 구덩이로 떨어져요. 그 안에서 발버둥치고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막 흙이랑 돼지를 섞는 거예요. 동영상 찍는데 너무 분노에 차서 캠코더가 덜덜덜... PTSD에 시달리는 공무원들 인터뷰한 게 언론에 나왔었는데, 증상이 똑같아요. 구제역이라는 단어만 쓰면 불안해지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그 생각이 나요. 전철을 타고 가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막 울다가 내려서 가다가 또 눈물이 나고... 이런 현상이 한동안. 그리고 가슴에 분노가 생겨요. 딱 뭐가 안 됐을 때 화가 폭발하는 그런 게 좀 생겼고, 또 여러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술을 먹으면 그 생각이 나니까 순간적으로 필름이 끊기는 일이 두 달간 이어졌었고. (...)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돼지들이 죽어가는데 내가 아무 것도 못했다는 그 무능함... 바보같이 잡혀갖고 네 시간동안 억류당하고 고발이나 당하고... 그런데도 돼지들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됐다는 활동가로서의 자괴감이 굉장히 컸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 중의 하나... <사례 6>

타자의 고통을 보게 될 때 사람은 그에 대한 감정이입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며, 특히 타자의 고통이 크고 그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자신이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을 때 그 불쾌감은 더욱 커진다 (애런슨, 2002). 손택(2004)은 이러한 불쾌감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으로 표현한다. 2011년 초 돼지 살처분 현장을 찍으러 간 <사례 6> 역시 돼지 수천마리를 생매장하는 모습을 앞에 두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력감과 활동가로서 자괴감을 느끼고, 잔혹한 현실을 목도하며 큰 심리적 상처를 입는다.

구제역에 걸린 소·돼지 살처분 현장에 직접 동원된 관계자들이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고 있다는 기사⁶⁴)가 있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들의 87%가 정신적 스트레스나 수면장애 등 후유증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뷰를 해본 결과,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심리적 외상을 입기 쉬워 그 누구보다 심리적 치유를 필요로 하는 이가 동물운동가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처참함 앞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끼면 보통 현실을 외면하곤 하지만, 그들은 책임감과 외면 사이에서 갈등하며 상처를 잘 풀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3) ‘자기희생’에 대한 성찰

아래의 <사례 4>는 동물 운동을 해온 이들이 심적 부담과 자기희생을 경험하며 그것을 잘 해소하지 못해 “이 바닥을 떠나게 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동물운동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이들의 적지 않은 수가 심리적·관계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래지 않아 소속단체를 옮기거나 다른 직업을 찾아 나서는 것을 볼 수 있다.

내가 막 너무 더워도 ‘개농장의 개는 얼마나 더울까. 이 정도로 덥다고 하는 건 사치야. 에어컨 틀면 안 돼.’ 그리고 추워 죽겠어도 ‘개들은 얼마나 추울까. 우리는 보일러를 틀지 말고 그냥 이불만 썸 덮고 있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스스로 되게 많이 희생을 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로 조금이라도 충돌이 나거나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면 그게 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힘들어서 간당간당 버티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게 쌓여 있다가 작은 일이 생기면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난 못하겠어요’ 이려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 바닥 떠나시는 분들이. <사례 4>

어디 가다가 개가 죽어가는 걸 봤는데 구하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 때문에 계속 스스로 희생해야 한다고 자기를 몰아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건 동

64) “소·돼지 울음소리 컷전 올려, 정말 못할 짓... 너무 괴롭다” (박찬준 · 김정모, 세계일보, 2011.01.07)

물이 아니라 자기 문제예요. 사람은 에너지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친다구요. 그 화살은 주위 사람들에게 가요. ‘네가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자기합리화를 하고 본인과 주변 사람 모두에게 민폐예요. 그래서 활동가들의 권리와 복지⁶⁵⁾를 그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의 건강성을 위해서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면 자기반성보다 주변 사람의 탓을 하고 공격하게 돼요. 동물들 얘기하면서 ‘애네들이 되게 불쌍하고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너나 챙겨. 니 인생부터 좀...’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자기는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동물들 삶이 개선되는 것에 만족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타자를 위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선 자기를 돌아보는게 많이 중요하죠. <사례 6>

한편 <사례 6>은 이러한 ‘자기희생적 경험’에 대해 자기성찰의 관점에서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다. 구하지 못한 동물들에 대한 동정심과 죄책감 등의 이유로⁶⁶⁾ 활동가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소모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그것은 “자길 희생한 삶”이 되어버릴 뿐이고, 결국 보상심리로서 “자기 연민에 빠져 타인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동물을 위한다는 것이 자기희생이라는 뜻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자기 자신과 주변인들에 대한 기만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타자를 위한 운동일수록 철저한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성찰의 중요성은 길리건(1997)이 제시한 여성의 도덕적 성숙관의 이론과도 연결된다. 도덕 발달 과정에 관한 길리건의 설명에 따르면, 여성

65) <사례 6>은 개인에게 아직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동물 단체에서 일 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전 단체에 있을 때 친구나 가족들이 ‘야, 너네는 동물복지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왜 사람 복지는 생각 안 해?’ 그랬었어요. 마치 활동가들이 월급을...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아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나 부러먹으면 내 노년 책임질 거야?’ 연금도 안 주고 쥐꼬리만한 월급에... 그걸로 내 노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이거 외에도 내 노년의 보장을 위해 다른 걸 하겠다... 퇴근 후에 하고 주말에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시간을 뺏지 말아달라는 것이 나의 가장 작은 한 가지 바람이었어요.”

66) 그는 이 외에도 “열심히 야근하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동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 받을 것”이라는 외부의 시선에 대한 의식 또한 자기희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은 먼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판단의 토대로 삼는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자신의 태도를 이기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여 타인에게 무조건적인 보살핌과 순응을 하는 ‘자기희생’을 도덕적 이상으로 간주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여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부당한 착취와 가해 역시 함께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보살피게 된다. 인간관계가 상호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보살피는 ‘이기심’과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는 ‘책임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가의 ‘자기희생’에 대한 성찰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뿐 아니라 동물운동단체와 후원회원의 관계에도 역시 적용된다. 계속해서 <사례 6>은 단체의 회원들이 동물운동단체를 본인 대신 고생해주는 미안한 곳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묻고 문제제기를 하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⁷⁾ 그것을 통해 단체 역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운동(가들)이 자신과 동물을 동등히 보살피는 성찰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동물단체와 활동가들에게 자신의 불편함을 떠맡기고 - ‘처리반’ 취급을 하며 -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태도, 그리고 동물운동에 관심 있는 대중과 회원들이 동물운동 단체를 - 자기 대신 희생해주는 - 미안함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은 함께 지양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 받는 존재를 마주해야 하는 활동가들은 타자를 보살피면서도, 그 안타까움에 자기희생의 덫에 빠지지 않고 상호관계를 왜곡하지 않도록 자아성찰을 하는 쉽지 않은 과정에 놓여 있다.

67) “올 한 달 동안 너희 계획이 뭔데? 지금까지 한 운동의 한계가 뭔데? 내년에 이걸 바탕으로 뭘 할 건데?” 회원들이 단체에 이런 문제를 던지는 걸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해줘야 돼요. ‘애네들 힘들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 침묵해줘야 돼’ 하는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단체도 ‘나 힘들게 일 하는데 왜 이래?’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못 했어.’ 그렇다면 왜 못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 변명 말고 정확히 전달이 돼야 회원이나 대중이나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돼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피드백이 갈 수 있는 거구요.” <사례 6>

2. 운동의 대상·내용·방법론에 대한 성찰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운동의 대상·내용·방법론에 대해 성찰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운동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 및 그에 대한 활동가 스스로의 의식이다. V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에 대한 지배가 계속 유지되는 데 그들에 대한 감정적 반응(고통에 대한 감정이입)의 역제가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동물운동에서 감정의 의미는 결코 하찮은 것으로 치부될 수 없다. 활동가들의 동물운동 참여는 주로 고통 받는 동물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시작되기에 그 과정에서 감정은 큰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운동의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성에 비해 가치절하 되고 있는 감정의 역할에 긍정적인 재평가를 요구하는 사회학자와 철학자들 역시 내집단 이익편향의 가능성 등 감정적 태도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박정순, 1996; 바바렛, 2007; 민은경, 2008) 타자의 고통을 ‘느끼고 마는’ 것이 아닌 그것을 낳는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실천을 시작한 이상, 감정의 문제 역시 정치적으로 성찰되어야 하는 상황을 맞는 것이다.

1) 운동의 대상에 대한 성찰 : 반려동물 편향성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동물운동’ 진영이라고 불리어지는 단체들의 관심이 - 모든 동물이 평등하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음에도 - 아무래도 ‘개’에게만 편향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외국과 달리 대표적 반려동물인 개 역시 육식의 대상이 되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과도 연관되어 있다. 다른 동물들에 대한 처우 개선 이전에 인간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동물에 대한 살생을 막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 동물운동의 우선순위였다.

현재 동물단체 일들은 아무래도 반려동물 일들이 제일 많죠. 사회적 요구가 많다보니 그쪽 일이 많아요. 얼마 전 동물단체에서 길고양이나 비둘기를

환경부에서 유해조수로 지정한다고 항의를 하기도 하고 활동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야생동물 쪽은 잘 모르잖아요. 무지하죠. 잘 모르기 때문에 목소리를 많이 내지 못하는 거고... <사례 2>

서울권 안에 토끼를 봐줄 수 있는 동물병원이 세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동물병원이 많은데도. 왜 그런지 알아보니까, 한국이 개를 너무 중시하는 사회인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원래 야생동물이 많이 있지도 않았잖아요. 우리들의 욕심, 산업화 이런 걸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도 많다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없어지고 있고. 개·고양이들도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지키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키되 좀 다른 동물들한테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똑같이 살아있는 거데. 지금 단체들이 경외시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반려동물 안에서도 학대 받는 강아지만 생각하고. <사례 5>

<사례 2>는 우리나라 동물운동이 반려동물에 대한 활동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의 동물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 다른 이들과 달리 개·고양이가 아닌 ‘토끼’에 대한 공감에서 문제의식이 심화된 <사례 5>는 그러한 자신의 배경 때문에 현 단체운동의 일부 동물에 대한 편향성을 더욱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일부 활동가들은 이러한 치우침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가 한국 사회에서 운동적으로 갖고 있는 특수한 현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쪽에 너무 치우칠 경우 다른 - 예컨대 농장 동물이나 야생동물 같은 - 종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개고기 반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분리될 수 있는지... 개가 죽임을 당하는 건 안타까워하는데 소나 돼지가 죽임 당하는 건 안 안타까운지, 저는 그게 왜 확장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잔인하게 사육되고 잔인하게 죽여진다는 것 잘 알고 있잖아요. 식도락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모르는 척하는 것 아닐까요? 동물운동을 하는 활동가가 고기를 먹는 경우는 정말 실망스러워요. <사례 9>

개, 고양이가 사람들하고 진짜 가까운 곳에서 감성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마음은 더 갈 수밖에 없어요. 가까이 있는 동물들의 고통이 더

가깝게 와 달고 가슴 아픈 거죠. 개인적인 이런 경험이 큰 촉매제가 돼서 그
 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요소가 크니까, 그러
 다보면 더 좋아하는 동물들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되는 면이 있어요. 솔
 직히 지금 동물단체들 조직되기 시작한 게 개고기 때문이 크거든요. 분노를
 자극하기가 쉽죠, 개고기 문제는. 워낙에 사람들이 개한테 느끼는 친밀성이
 있고 또 그 과정이 워낙 잔인하잖아요. 지금 활동가들 다른 문제에 대해서도
 다 분개를 하지만 상당수 감정이 진짜 동화돼서 하는 거는 개고기 문제거든
 요. 사람들이 더 공감하는 개라는 동물의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감정적
 인 거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거죠. <사례 2>

<사례 2>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 사람들이 대부분 주위에서 흔히 만날
 수 있고 가까운 관계를 맺는 동물에 대한 감정적 동기(감정이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감)를 통해 동물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기 때문으로 보고 있
 다. 운동에 있어 ‘감정’이 긍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
 만,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 역시 있는 것이다. 호프만(2011)은 공감이
 라는 감정적 경험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보다는 동일 문화권의 사
 람들 사이에서, 거의 접촉하지 않은 이들보다는 자주 접촉하는 이들 사이
 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많다”고 지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구
 성원, 일차 집단의 구성원들, 가까운 친구들, 개인적인 욕구와 관심이 자
 신과 유사한 이들에 대해 더 많이 공감한다”는 것이다.

개의 경우 인간과 워낙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특성에 더하여, 길러
 서/잡아서 죽이기까지의 과정이 유독 잔혹하여 이러한 양상은 더욱 강해
 진다.

IV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들은 자신이 공감하게 된 동물에서부터 점
 점 다른 동물들에게까지 관심이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운동진영 내
 부의 비판적 시각에서 보면 아직 그 정도가 충분한 것 같지는 않다. <사
 례 9>는 개가 아닌 동물의 고기는 먹으며 개고기 반대운동을 하는 활동
 가들을 하는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물론 “개고기 반대할 거
 면 쇠고기도 먹지 말라”는 일반인들의 일관성·하향평준화 논리는 비판받
 아야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활동가들 역시 스스로 종(species)에 따라
 그 고통을 다르게 인식하는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는 내부 비판의 목소리

이다.

솔직히 지금 너무 그런 반려동물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우리나라가 워낙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사회 전반적인 의식 자체가 아직은 좀 그렇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문제가 되는 건 지금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시야 역시 그만큼 좁은 거거든요. 내 관심 분야에서 더 나아가서 멀리 보지를 않는 거죠.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 때문이에요, 솔직히. 자기가 당장 개, 고양이가 볼썽한 것 때문에 직업적으로 활동하는 거를 시작한 거니까 그런 것까지는 뭐 괜찮아. 그런데 어쨌거나 뭐 더 폭넓은 활동을 하기 위한 역량을 스스로 키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사례 2>

활동가들 중에서도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 개를 좋아하는 운동가가 다른 동물에 대해 시야를 넓히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개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특수성이 있다 해도 너무 개에만 신경 쓰는 것은... 아무래도 동물 운동이 개와 고양이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럴 거면 차라리 개 협회나 고양이 협회로 가야죠, 동물권 운동이 아니라. 단체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밖에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구요. <사례 9>

국내 동물운동이 오직 사람과 친한 동물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온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개고기 문제로 동물운동이 강하게 촉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2000년대를 거쳐 오며 농장동물과 전시·공연동물, 동물실험 문제 등에 대해 조사와 참여를 해왔고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논의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종을 확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에 대한 편향성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내부자들은 그러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내지 못하고 있는 현 동물단체 운동의 관심과 역량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동물운동이 반려동물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이해는 가요. 현실적 특성도 있고. 개고기 문제가 한국 동물권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애

요, 문제의식이 다른 동물로 확장되지 못하게. 특히 단체의 너무 많은 활동가들이 개고기 문제에 집중하면서 다른 동물들에 더 많은 신경을 못 쓰다던가 그런 면. 거기서 시작하는 게 사람들 끌어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고 또 반려동물에서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는 게 논리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더 빨리 넓혔으면 좋겠어요. <사례 9>

감정이입을 하기 어려운 동물의 경우에는 좀 단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 같아요. 개, 고양이 같이 키우는 동물들은 비교적 쉽게 공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동물은 뭐 감성을 좀 자극을 해서 불쌍하게 보고 따뜻하게 보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반면에 그런 군에 속하지 않은 동물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냉철하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거죠. 보호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원칙적으로 도덕적으로 안 되는 거고 ‘애네들이 너가 이렇게 사랑하는 동물들이란 다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사례 2>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동물 운동은 - <사례 2>가 설명하는 바대로 - 우리 곁에서 감정적 교감을 하는 반려동물에서 그 외의 동물로 고려를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수순이기는 하다. 서구사회의 경우 반려동물은 친밀한 관계와 공감에 기반하여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비교적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다른 동물도 개와 고양이처럼 인도적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인식을 확장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개와 고양이의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아직 충분치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려 확장의 단계 진행이 늦어지는 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반려동물보다 야생동물과 동물원의 문제의 심각성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례 8> 역시 “일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반려동물과의 교감 및 배려가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작점이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보통은 “거기에서 다음으로 가고 더 크게 보기 위해 뛰어넘는 것이 힘들다”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개와 고양이 이외의 동물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갖는 활동가와 시민들의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이상 지금까지의 흐름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운동의 목표와 내용에 대한 성찰 : 동물학대의 예

여기선 ‘동물학대’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동물을 잔인하게 해친 개인에게 쏟아 붓는 분노가 우리 모두가 속한 구조·문화에 대한 성찰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어 고통을 받는 동물 개체를 위한 직접적 도움과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 운동 사이에서 활동가들이 겪게 되는 동물운동의 딜레마에 대해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학대하는 일은 과거에도 빈번히 있어 왔지만, 최근 들어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의 특징은 동물학대 문제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사건을 선정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이다. 사건을 접한 시민들은 무력한 동물을 벽돌로 내려치고 집어던지고 불에 태우는 그 잔혹함에 분노하고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포털 사이트의 댓글란은 가해자에 대한 원색적 비난과 증오로 뜨겁게 달아오른다.

그 사건들은 사진만 봐도 언짢을 정도로 심하게 학대하거나 죽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러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일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동물학대가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과거의 사회적 인식을 생각한다면 학대에 대해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다행스러워 하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면접참여자들은 동물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에 대하여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그 범죄자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춰 잡아 죽여라 하는 식으로... 그런 여론은 우리 사회에서 동물문제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 때문에 죽었으니 그 농부들을 다 찢어 죽여라.’ 하지만 실제로 동물학대자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평범한 아저씨예요. 그런데 내부의 폭력성이 드러나는 거죠. 왜, 성폭력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심지어 자기 딸을 강간하는 그런 놈들도 알고 보면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들이거든요. 똑같아요. 동물학대를 둘러싸고 우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다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혐오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만나보니 알겠더라고요. <사례 6>

‘저런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된다’ 아니면 글로 여러 사람이 보는데다가 ‘개 잡고 먹는 사람은 똑같이 껌질을 벗겨서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정말 원초적인 분노 있잖아요. 그건 자기 가슴 속의 분노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막 개 때려죽이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예요? 굉장히 소외된 사람들이예요. 자신이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 사람들한테 백번 그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적은 그 개도살자가 사실은 아닌데, 그런 시스템 상에서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배운 게 없고.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렇게 해 갖고 해결이 안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를 그렇게 풀려고 하면... <사례 3>

우리가 속한 ‘선’과 그들이 속한 ‘악’의 세계를 공고히 이분화하여 - ‘철근 악마68)나 ‘악마 에쿠스69)’, ‘악마 가족70)’이라고 붙여진 이름에서 연상되는 - ‘악한 그들’이 동물을 학대한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인식과 달리, 실제로 가해자들은 ‘평범한’ 우리 중의 하나라고 활동가들은 말한다.

활동가들은 사회적 여론이 가해자에 대한 비난으로 들끓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학대 문제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우려한다. 누가 봐도 경악을 할 정도로 심한 가학 행위에 비난하기는 쉬운 일이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동물 학대는 우리가 아닌 ‘아주 특별하게 사악한 소수’만의 문제로 인식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상의 모습은 마치 아동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가해자 개인에 대한 비난만 있을 뿐, 젠더 권력관계에 기반한 성폭력이 여전히 정치적 문제로 의미화되지 못하는 상황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71)

68) 2012년 4월 공사장 현장을 지키고 있던 개를 한 남성이 술에 취해 돌과 병은 물론 철근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실신케 한 사건.

69) 2012년 4월 에쿠스 승용차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개의 목을 트렁크에 매단 채 질주하여 개가 사망한 사건.

70) 2012년 12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1년 동안 가족들이 상습적으로 구타하다가 벽에 집어던져 죽인 사건.

71) “2009년 조** 사건으로 불리운 아동성폭력피해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반성폭력 운동진영에서는 성폭력이 불평등하고 성차별적인 사회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이야기해왔다. (...) 아동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거칠고 클수록 성폭력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라는 가정이 더욱 견고해지기 마련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모두 정신이상자라는 등, 애들을 상대로 그러는 사람은 교정이 불가하니 아예 거세를 해야 한다는 등, 비정상인에 의한 예외적인 사건이라는 전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일상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이번 아동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천인공노할 노릇이라며 분노하는 글은 술하게 보

한편 <사례 3>은 개고기에 반대하는 이들 중 일부가 개도살자 ‘개인’에게 갖는 분노 역시 구조적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⁷²⁾ 즉 그들은 학대자 개인에 대한 분노가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스템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가 예전부터 키웠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현실과 맞지 않는 학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개를 키우는 할아버지라고 해요. 먹다 남은 걸 줘요. 시골에서 그 사료 비싼 거 만 얼마짜리 사서 줄 필요 없잖아요. 줘요,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애네(동물)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애네들이 짓는 건 당연하고 애네들이 사람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몽둥이로 때려. 막 월로 때려. 치료도 안 해줘... 그게 바로 학대예요. <사례 5>

예를 들어 개식용도 가장 큰 동물학대거든요. 근데 얻어맞은 강아지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해 하는 사람들이 개식용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죠. 개 식용 보통... 그게 개에 대한 가장 큰 학대인데 그렇게는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목매달아 때려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동물학대예요. 맞는 강아지도 잔인하지만 그런 건들도 정말 너무너무

왔지만, 나의 동료, 친구, 부하직원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또 나의 직장, 가정, 학교의 문화를 뼈아프게 성찰하는 글은 본 적이 없다. ‘권리’를 통해 성폭력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성차별적 사회질서에 균열을 내고자 했던 애초의 계획은 무산되고 성폭력 문제는 극심하게 탈정치화된다.” (이운상, 2010)

72) 도축 행위는 역사적으로 신분이 친한 이들에게 귀속되어 왔다. 과거에 양반들은 고기는 자신들이 먹으면서도 그 일을 전가시킨 백정에 대해서는 경멸해 왔으며, 오늘날 도축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역시 열악한 사회적 조건에 놓여있다. 즉 인간이 동물을 착취하는 과정은 그 속에 또 다른 피지배층에 대한 착취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고미송, 2011)

<사례 4> 역시 보신탄 문제와 관련하여 그것에 반대하는 것과 그 일을 하는 이들 개인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한다.

“개고기 쪽 사람들은 생선 파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별 생각 없이 근수가 많이 나가야 자기가 많이 버니까. 그걸로 자기 자식 공부 다 시켰는데, 그럼 내가 이걸 그만 두면 뭐 해야 하는데? 또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도 있고. 개개인들의 삶으로 들어가면 사실 마음이 약해지죠. 그 사람들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방법이 없으니까 딱히 자신이 뭘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자신이 배우고 잘 하는 게 이것밖에 없어 하는 걸 수도 있고.” <사례 4>

잔인한 거잖아요, 살아 있는 채로. <사례 1>

<사례 5>는 학대는 우리의 일상 문화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동물의 입장에선, ‘개는 좀 맞아도 된다’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물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악마’로 이름 붙여진 학대자들의 행동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물의 입장에서는 학대라는 것이다. <사례 1>은 반려동물에 대한 구타에 대해서는 분노하면서도 그보다 더 잔인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개식용 문화에 대해선 방조·긍정하는 사회의 모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

문제 있는 ‘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잔혹하게’ 해치는 행위만을 우리 사회는 동물학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활동가들의 시각에서는 실은 육식을 위해 제도적·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인도적 사육과 도축을 포함해 동물권을 고려하지 않는 법과 사회구조 자체가 동물학대의 본질인 것이다.

동물 학대와 가정폭력은 정말 똑같은 부분이 있어요. 동물 학대를 하는 사람을 보면 진짜 말종 같다는 생각을 해요. 여성을 때리고 아동을 때리는 것이 동물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과 이어진 부분이 있어요.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요. 외국에선 길에서 아이를 때리면 사람들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개입하거든요. 그리고 옆집에서 소리만 나고 신고해서 경찰들이 하는데, 우리는 부인이 피를 흘려도 남편이 우리 부부라고, 집안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가버린다거나... 개도 막 때려놓고 ‘내 재산이다’라고 ‘니들이 뭔데’ 그러고, ‘개인 재산이니깐 우리가 침범할 수 없다’고 경찰이 그렇게 말해버리잖아요. <사례 4>

술 취한 아저씨가 새벽만 되면 개를 때렸는데 어느 날은...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개를 데리고 나와서 목줄을 빙글빙글 탁 던지고, 탁 던지고 이랬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는 술 취한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고 그냥 갔대요. 그 남자는 자기 마누라도 그렇게 때렸대요. 그러니까 개를 이렇게 때리는 거는 스트레스 해소용인데, 누구를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은 자기가 약한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를 학대하는 거, 부모가 어린 애를 학대하는 거, 그 다음에 인간이

말 못하는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건 약자에 대한 자기 힘의 과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선가 계속 개를 데려와요. 널린 게 개잖아요. (학대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계속되는 학대를 막을 수 있어요. <사례 3>

<사례 3>과 <사례 4>는 동물학대가 가정폭력과 비슷한 양상을 띠는다고 말한다. 남편이 아내를 사적 소유물로 여겨 구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대자는 개를 구타하고, 아내를 때리는 것은 ‘집안 일’이기 때문에 사회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과 마찬가지로 개를 때리는 것에 대한 외부의 개입은 봉쇄된다. 또한 외국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집에서 키우던 반려동물에 처음으로 폭력을 가하며,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행위를 모방하여 반려동물을 해치기도 한다.⁷³⁾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해 일각에서 가해자 교육·상담이 진행되고 있듯 <사례 3>은 “학대자를 변화시켜야 계속되는 동물에 대한 학대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한 마리를 구조해 와도 그들은 다른 개를 데려와 계속 학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사례 5>는 “학대자가 원래 나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즉 다른 관계에서 경험한 소외와 학대가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 대한 폭력으로 연장되는 ‘폭력의 순환성’을 고려해야 그것에 근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동물학대는 일부 문제 있는 자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라는 권력관계의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응은 학대자 개인에게 비난보다 그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또한 동물에 대한 폭력이 - 사적인 문제인 것만이 아닌 -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범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학대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많지 않아요. 학대에 관한 조항이 있지만 그건 동물이 죽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 학대 장면을 찍어놔야 그게 고소고발이 가능한 건데, 그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켜가지고 ‘아, 학대한다!’ 하고 찍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냉정하고 이성적이지 못해요. 정말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동물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데 또 학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73) L. Stoner, "The Cycle of Violence", www.animal-lib.org.au

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어떨 때는 설득해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국은 동물을 하나의 재산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쉽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 사람이 ‘도둑이라고 고발할 거다’라고 해서 못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례 5>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 개를 ‘어떻게’ 다치게 한 경우에 벌금 얼마, 이렇게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야 그 사람을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대자가 자신이 정당한 방식으로 했다는 것만 입증되면 그 사람은 기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법을 세분화해서 만들어야 해요, 사례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동물보호법 개정할 때 학대 사례들을 조사하는게 중요해요. 뭐가 동물 학대인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동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기 때문에 이게 학대’라고 정의를 내려야 하고 그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학대의 사례... 그 다음에 범위를 넓혀야 돼요. <사례 6>

동물학대가 허용될 수 없는 범죄임을 분명히 하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제도는 법이다. 활동가들은 현행 동물보호법이 갖고 있는 많은 한계들을 바로잡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이전까지 동물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은 너무나 미약해서 관례상 동물학대에 부과된 벌금은 50만원이 고작이었다. 하지만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었고, 도끼로 이웃집 개를 죽인 전직 승려에 대해 2012년 법원이 동물학대 범으로는 처음으로 징역 6월에 처하는 등 법의 변화는 느리게나마 진행 중이다.

<표 5>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입건수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입건수	28	50	69	78	113

(자료 : 경찰청, 2012.2)

하지만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도록 입증하기도 힘들고, 학대자로부터 동물의 소유권과 동물양육을 박탈할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법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가 아직은 반려동물 위주로 너무 좁고, 불명확한 학대의 개념이 그나마도 자의적으로 해석되어 규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아직 동물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법적 보장은 열악한 상황이다.

<사례 1>은 “일반 사람들은 동물 단체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법은 신경을 많이 쓰고 무서워하기” 때문에 학대를 막기 위해 법의 중요성은 무척 크다고 강조한다. 2011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보완과 더욱 엄격한 집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물운동 진영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3) 운동의 방법론에 대한 성찰 : 이상과 현실 사이

이상과 같이 활동가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개인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권력관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스템에 대한 성찰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활동가들이 유기되고 학대 받는 동물을 위한 ‘실천’을 하는 데 있어 고통 받는 동물들에 대한 직접적 도움과 구조를 바꾸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활동, 즉 현실을 위한 운동과 이상을 향한 운동 사이에서 동물운동이 겪는 딜레마와 그에 대한 성찰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모금을 하나 하더라도 정말 불쌍한 강아지를 구조를 해서 치료를 할 경우에 후원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캠페인 하느라 당장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불쌍한 아이들을 구조를 안 한다고 욕도 많이 먹거든요. 불쌍한 동물들에 대해 당장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도움...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해야 하는 파트예요. 대부분 처음에 시작이 다 그렇게 불쌍한 연민으로 직접적으로 구조도 하게 되고 입양해서 기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데, 계속 활동을 하다보면 끝이 없는 문제라서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동물복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쌍하다 단순히 그런 걸로 그치지 않고. 이제 하다 하다보면 나중에 ‘아, 구조만이 다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사례 1>

<사례 1>은 캠페인을 할 때도 다른 사안보다 고통 받고 불쌍한 강아지를 구조해 사진으로 보여주었을 때 더 모금이 잘 된다고 이야기한다.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익명의 존재들보다 이름 붙여진 특정한 존재와의 공감의 공감이 훨씬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운동의 방식에 있어, 이러한 공감이 갖고 있는 감정적 측면은 개체들의 생명을 한 마리라도 더 구하는 활동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나 <사례 1>은 본인이 속한 단체가 - 개인적으로는 구조를 할지언정 - 공식적으로는 구조를 주업무로 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비판도 받는다고 한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구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이다. 예전에 한 개인 활동가가 보신탕의 재료가 되기 위해 목 매달리는 개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공개했다가 일부로부터 ‘사진을 찍는 대신 왜 도살당하는 그 개를 구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을 받았었지만, “그의 사진으로 인해 개고기의 현실을 더 잘 알릴 수 있었다”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한다. 즉 한 마리 한 마리를 넘어, 보다 넓은 차원의 접근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구조에는 감동이 있어요. 생명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저희도 그런 큰 보람을 느끼고 내 주변의 동물들을 전부 신경써서 보살피고 있지만 단체활동으로 이걸 아니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참 많이 구조를 했었어요. 안락사될 아이들 전부 임시보호해서 입양 보내고 그렇게 한게 일년에 육백 오십 마리인가를 했더라구요. 근데 아무 변화 없죠. 왜냐면 그 많은 수 몇 백만 마리에서 우리는 0%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서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 쪽을 하게 되면 자원에 비해 얻어지는 효과는 너무 미약하다... 그러면 그 구조활동을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사회적 공감대와 문화운동에다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자원이라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태조사.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거죠. <사례 3>

Ⅲ에서 운동의 초기동력으로서 공감, 특히 고통 받는 개체와의 정서적 공감이 중요함을 지적하였지만, <사례 3> 역시 실천의 단계에서도 그런 - 불쌍한 동물 한 마리, 한 마리를 구조하는 것에 집중하느라 동물을 착취하는 시스템에 대한 운동은 소홀해지는 - 방식을 취하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고 생각한다.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가해자 개인을 비난하는 감정적 접근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한 마리 한 마리를 구조하는 자체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끝없는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특정한 동물들에 대한 감정이입으로부터 활동을 시작했어도 운동의 실천방식에 있어서만큼은 큰 구조를 조망하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느끼며, 이들은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 속에서도 법·제도·문화·교육 등 시스템 자체에 대해 어떻게 하면 ‘구조적’으로 저항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러한 활동으로서 <사례 1>과 <사례 4>은 동물 학대의 출발인 판매를 당장 막지 못한다면 ‘유기동물이 양산되는 첫 단추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생산 시스템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건으로 하여금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새끼를 낳게 해 개들을 양산하고 결국 개농장⁷⁴⁾과 안락사로 수많은 개를 내모는 번식장 설립에 반대하고 규제하는 데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동물을 상품화하는 소비 과정 역시 문제이다. 동물단체들은 최근 동물을 옷 사고 반쯤하듯 쉽게 거래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인터넷 쇼핑물 동물 판매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우리나라엔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특히 대형마트에 그들이 판매하는 동물들의 환경 개선을 요구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대형마트의 동물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다.

생명의 상품화에 저항하는 이러한 활동들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구입하

74) 보신탕의 재료가 되는 개를 공급하는 곳

기에 너무 쉽게 버리게 되는, 즉 유기동물이 양산되는 고리를 끊기 위한 활동의 의미도 갖고 있다.

적극적 학대로부터 '구조 활동'을 하라는 말도 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구조를 통해서 이런 적극적 학대 문제를 제어하고 있지 못해요. 방치 상태로 키워지고 있는 개농장의 개들을 다 구조하지 못해요, 자원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갖고 있는 자원을 더 큰 문제에 넣자는 거예요. 캠페인을 통해서 학대를 법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법으로 보호가 되는 부분은 아주 작아요.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법으로 보호가 되는)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거지. 현 동물 구조는 전체 동물의 수를 제어를 못 해요. 다만 RSPCA 같은 데는 연간 3-40% 막대한 동물을 구조하고 입양을 보내니까 그건 '구조 활동'이 맞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구조 활동'인가요? 예를 들어서 백만 마리 중의 백 마리라면 0.01%예요. 0.01을 '나는 동물구조했다'거는 구조 활동이기라기보다는 자기만족이예요. 저는 결국 '구조 캠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조를 통해서 그 상황을 알리고 상징성을 부여한 동물들을 통해 보호가 필요함을 역설하기 위한 캠페인이요. <사례 3>

<사례 3>은 앞서서도 이야기된 바와 같이 한 마리 한 마리의 구조(rescue) 자체에 몰입하는 방식보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적(structural) 접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동물들을 구조하는 활동에 매진하였으나 그것을 통해 찾아오는 변화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피학대 동물의 전체 수에 비해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는 동물의 수는 너무 적고 의미가 없는 것이 엄정한 현실이므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캠페인이나 교육, 그리고 법적 접근 등을 통해 학대 문제가 제어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 동물단체가 갖고 있는 한계적 자원을 고려한다면 - 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구조와 시스템을 고려하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자칫 오늘의 '현실'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흐를 수 있음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구조 활동과 교육·문화 활동 동시에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사람들 끊임없이 살인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계속 살인하지 못하도록 계몽을 하면 된다’라고 하죠. 그 계몽은 끝이 없어요. ‘죽이면 안 돼’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해답은 줘야 돼요. 그걸 회피하는 건 활동가로서는 책임회피라는 거죠. ‘내가 이 동물을 당장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돼, 문화를 바꿔야 돼’라는 건 굉장히 먼 미래이고 이상이 라고요. 그럼 그 이상을 향해서 우리가 갈 때 뭘 할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적어도 답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저 개를 왜 구조하지 않죠? 구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왜 그렇게 할 수 없는지 한계에 대한 선후과정을 다 내가 이해하고 ‘그래서 이런 결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향후 10년 안에 우리가 이런 전략을 써서 몇 %까지 만들겠다.’ 물론 그게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 그게 안 됐으면 안 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하고.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캠페인교육운동...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나가면 논리가 중간에 다 빠진 거고 무책임한 거예요. <사례 6>

<사례 6>과 같이 직접적인 구조(rescue)가 아닌 다른 거시적 접근의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구조(structure)에 대한 저항’이 자칫 잘못하면 당장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경계하는 목소리들도 존재한다.

당장 오늘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 동물들을 외면하고 아직은 멀리 있는 동물해방의 ‘그날’만을 바라보며 기약 없는 운동만 하는 것은 활동가로서 ‘책임 회피’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현실적으로 모든 동물을 구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현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만 주장하는 것도, 반대로 장기적 비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사례 5>의 말처럼, 동물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현실적 운동’과 ‘이상적 운동’ 사이에서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 갈등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안락사’라는 구체적 이슈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당위, 이상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계를 우리가 얘기를 안 해주면 중요한 순간에 책임을 회피해요. 우리가 회피를 해버리면 거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개네들을 처리한다고. 근데 우리가 ‘오늘 백마리의 동물이 안락사를 당한다’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한계 역시 받아들이고 이야기한다면 ‘그래 그럼 오늘 백마리의 동물이 안락사 돼. 근데 그 동물들을 어떻게 안락사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구체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안락사 얘기만 나오면 답변이 없어요, 사람들이. 현실은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이상과 오늘 해야 될 것, 우리가 가진 한계점 등에 대한 모든 디테일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책임 회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례 6>

구조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안락사가 굉장히 필요한 툴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개네들은 열흘 있다 안락사 되는 것보단 우리는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안락사하니까 우리는 안락사가 동물보호 활동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명 가치를 자꾸 떨어뜨리면서 무슨 동물보호 활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경우 뇌사와 안락사에 대해 계속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데 왜 동물에 대해선 그걸 안 해요. 그러고 손쉽게 ‘안락사를 해야 돼’ 그리고 ‘열여섯 시간 교육 받은 테크니션이 해야 돼’, ‘할 수 있게 해야 돼’ 너무나 경솔하고... 함부로 얘기할 문제 아니에요. 대단한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더 많이 고민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침묵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 3>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2012년 공식 집계에 따르면 2002년 1만 5000여 마리로 추산된 국내 유기동물 수는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해 2011년 9만 6000만 마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절반에 가까운 약 4만 4400 마리가 안락사 되거나 자연사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유기동물보호소로 들어온 유기동물은 10일 이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시·군·자치구에 귀속되어 안락사 대상이 된다. 또한 이렇게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법적으로 행하는 안락사 외에, 동물 단체는 열악한 환경의 사설 보호소 동물들에게 마땅한 대안을 찾아 줄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선택적 안락사를 하기도 한다.

<사례 6>은 지금처럼 안락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동물에 대해 가장 염려를 많이 하는 동물운동이 침묵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도적 축산과 도살이 결국은 축산동물을 위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듯 안락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반면 <사례 3>은 인간의 경우 뇌사상태에 빠지면 안락사 문제를 신중히 신중을 거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안락사에 대해서 역시 우리가 경솔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오히려 생명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물이 학대 받지 않을 권리를 위해 행동한다는 점에서 모든 활동가들은 똑같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각론으로 들어갈 경우 동물운동 내부에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이상을 향한 운동 방식과 현실을 향한 운동 방식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찾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려는 인도적 축산을 위한 제도에서도 역시 드러나고 있다.

인도적 축산 레이블이 중요하지만 너무 그러면 그건 괜찮다고 비춰질까 그런 고민도 되죠. 그렇게 비춰지기가 쉽고... 일단 또 먹지 말라고 하면은 되게 공격의 강도가 높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으로 절충을 한다 그래서 동물복지라는 개념이 생기고 인도적인 도살이라는 강조를 하는 건데, 먹는 걸 인정하는 선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런 갈등은 당연히 있죠. 동물복지의 기준으로 설정된 이 선은 올바른 것인가, 과연. 딜레마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름 좀 더 나은 선택으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또 강조를 하다보면 소비 촉진을 위해 더 이런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심해야겠죠. <사례 2>

육식 문화에 저항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철저한 채식주의 운동 및 육식산업 폐지를 요구하는 것, 아니면 먹더라도 동물들이 인도적으로 길러지고 도살되도록 인도적 축산을 장려하는 것이다. 육식 문화·산업 자체를 없애지 않는 이상 환경 ‘개선’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입장은 이상에 기반한 운동, 당장 그런 날이 오지 않는 이상 축산동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은 현실에 기반한 운동이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 움직임을 보자면,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2011년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가 2012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인도적 기준에 따라 가축이 편안한 환경에서 본래의 습성대로 사육되는 동물 농장에 대해 국가 혹은 동물복지민간단체에서 인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소·돼지·닭·오리를 사육한 농장의 축산물에 국가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된다. 정부는 2012년 산란용 닭을 시작으로 2013년엔 돼지에 대한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사례 2>는 동물들이 살아있는 동안 인도적 축산을 통해 복지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현실적 고려가 사람들에게 ‘어쨌든 먹기 위해 생명을 죽이는’ 행위에 대한 윤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육식산업 자체를 긍정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누구의 입장에서 운동하는가’에 대한 성찰

마지막으로 활동가들이 운동 과정에서 하게 되는 성찰은 자신이 ‘동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타자화된 존재인 동물의 이해는 중요한 것으로 고려되지 않을뿐더러 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된다.

특히 동물의 언어는 인간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 동물권 활동가들의 경우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그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한다고 내가 내리는 판단이 혹시 인간중심적 시각에 기반한 것은 아닌지 끝없는 성찰의 과정을 밟고 있다.

1) ‘의인화 비판’의 함정

한번은 완전 어두운 밤에 들고양이가 고속도로에 죽어 있더라구요. 차에서 내려 그 모습을 찍고 있는데, 전속력으로 트럭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꼼짝을 못 하겠더라구요. 건너자니, '가다 넘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 진짜 순간적인 공포. 가만히 있자니 차가 나 있는 줄 모르고 너무 가까이 가다 날 치면 어떡해. 너무 무서워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옆으로 싹 지나갔어요. 그때 그 바람을 느끼면서, 이렇게 성인의 몸을 갖고 있는 저도 빨려 들어갈 지경인데 작은 동물들은 정말 어떨까... 폭풍이 일거든요. 트럭이 한번 지나 가면 작은 동물들은 그 뒤에 휩 부는 바람에 휩쓸려 들어가거든요. 개네 입장을 정말 몸으로 느꼈고. 저도 운전은 안 하지만 차를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는 120, 130킬로로 달려도 그 속도감이 차 안에서 안 느껴져요. 잠도 잘 오고. 저는 차 타고 다니는 거 즐겼었거든요. 생각도 하고 책도 보고. 근데 막상 길에서 보니까 완전 다른 거예요. <사례 8>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권 활동가들은 고통 받는 동물들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통해 운동을 시작하게 되지만, 문제는 공감에 있어서도 한계는 존재한다는 것이다. 타자가 겪고 있는 위험이나 고통으로부터 ‘안전한’ 곳에 있다는 인식 때문에 공감하는 주체는 결국 타자의 관망자(spectator)에 머물 수밖에 없다. (스미스, 2009; 민은경, 2008)

동물들의 입장에서 영화를 찍겠다는 각오를 하고 로드킬에 관한 다큐를 찍던 중 <사례 8>은 차에 치어 죽어 있는 동물의 사체 옆에서 촬영을 하며 자신 역시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순간을 경험한다.

그 전에는 공감에 기반한 작업을 하자고 마음만 먹고 있었지만, 죽은 ‘후’의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고 있는 동물이 사고 당시 접했을 상황을 ‘직접’ 느끼고 나서야 - 즉 자신의 안전을 잃고 나서야 - <사례 8>은 우리에게 은폐되어 있는 타자의 현실에 서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된다.

(동물원의) 북극곰이 머리를 계속 흔드는 거예요 위아래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10분을 제가 지켜봤는데 똑같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⁷⁵⁾ 이거는 정상

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북극곰을 둘러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인기가 많잖아요 북극곰이. 엄마아빠들이 데리고 나와 가지고 막 목마 태워 주고 보여주는데...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애를 보고 ‘곰이 에어로빅 하네’ 하면서 애기들 보고 막 박수치라 그러고. 너무 거기에서 이상한 느낌들을 받은 거죠. 부조리 희극을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거는 불쌍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동물원을 굉장히 낯설게 바라보게 된 순간이 됐고 동물원을 둘러싸고 있었던 어떤 장신구들이 베일이 벗겨지면서 그 실체를 보게 된 순간이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받았던 이런 느낌을 영화로 한번 만들어보자, 정말 이 세상 아무도 듣지 않는 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해서 계속 동물원엘 가게 된거죠. <사례 8>

<사례 8>의 이야기들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일상이 알고 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이었는지를 느끼게 해준다. 애초에 ‘신기하고 생경한 타자를 가뉘 구경하는’ 제국주의적 시선의 공간으로 만들어진⁷⁶⁾ 동물원이라는 공간은 오늘날 인간에게 - 특히 단란한 가족 관람객들에게 - 행복의 공간으로 소비되고 있다.

그는 갇힌 동물들을 ‘보는’ 우리에게는 행복의 공간인 동물원이 그곳에 갇혀 ‘보여지는’ 동물들에게는 고통의 공간인 이 간극에 대한 저항으로서, ‘그들의 입장에서⁷⁷⁾’ 동물원에서의 삶을 재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시작한다.

그러한 작업을 위해 <사례 8>이 우선 중요시한 것은 ‘무엇을 찍느냐’보다 그들을 ‘어떻게’ 찍는가 하는 방법론에 관한 문제이다. 그에 따르면 “보통 관람객들이 말로는 ‘동물과 교감하기 위해’ 동물원을 간다고 해도 실은 그곳의 이미지들을 소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

75) 이러한 행동은 스트레스로 인해 무의미한 행동을 반복하는 비정상적 반복행위(stereotypy)로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동물원 동물의 좌절감의 표시이다. (레이들로, 2012)

76) 동물원은 19세기 초 영국에서 최초로 등장했다. 초창기 동물원은 인간의 자연지배, 영국에서는 특히 식민지 지배를 상징하는 시설에 가까웠다. (R. Garner. 1993)

77) <사례 8>은 동물원에 대한 여러 설명을 통해 그 공간 자체가 얼마나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지 설명했다. “영화에 동물 사육실에 나무가 없고 시멘트 벽에 나무 이파리를 그려만 놓은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 동물원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하이에나를 그냥 콘크리트 방 안에 넣어놨는데 그 뒤에다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영상을, 초원 영상을 틀어놨어요. 대형스크린으로. 시멘트 벽에 차라리 나무 그려놓은 게 더 솔직하지.”

의 행동을 10분만 응시해보아도 그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음에도 관람객들이 한 전시장을 바라보는 시간은 10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속도감 있는 편집 대신 롱테이크를 통해 동물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감정을 그들의 입장에서 담아내고자 시도한다.

동물원에 갇힌 북극곰이 비정상적 반복행위를 하는 것을 놓고 ‘즐겁게 춤춘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관점에서 동물을 인식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의인화’라고 표현한다. 의인화(Anthropomorphism)란 동물이나 사물과 같은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인간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동물과 입장을 바꾸어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지 겉모습만 동물의 모습으로 바꾸어 사실상 인간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할 경우 우리는 의인화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 (김성한, 2008)

사람이 동물의 처우에 대한 고려와 배려를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동물을 걱정하고 위하는 행위의 대부분은 사람의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길고양이들이 춥고 배고플까봐 걱정하는 것은 동물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의인화라는 것이다.

겨울에 도시에 사는 길고양이가 뭘 먹을까 생각해 보면 다空空 얼어 있고... 고양이들은 찬 거, 딱딱한 거 싫어해요. 따뜻한 걸 좋아해서 겨울에 차엔진 같은 데 들어가서 죽는 고양이들도 있구요. 서울 같은 곳은 진짜 혹독해요. 숲 같은 곳이라면 낙엽 같은 데 묻혀 있으면 따뜻하겠지만 주위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혹독하게 살죠 고양이들은, 개도요. 카센터 같은 데... 하다못해 요만한 이불대기 하나 없이 딱 매놓고 ‘아, 개는 추위에 강해요’ 그런 말 하는 사람 정말 알미워요. 왜냐면 자연상태에서 늑대나 여우 같은 애들은 굴을 파고 자기가 따뜻한 데 찾아요. 그렇게 해서 바람을 피하고, 애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사람도 아닌데 무슨 추위...’ 그건 동물을 사람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게 냉담해지는 거예요. <사례 3>

길 고양이는 도시문명의 피해자예요. 도시라는 공간이 생태계를 딱 끊어놓고 이 안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먹이순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든 공간에 그렇게 큰 덩어리를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애네들이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호하고 챙겨주지 않으면 검정, 파랑 비닐 먹다가 터져 죽는 거죠. 사람의 삶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데 사람은 어떻게 아무리 해도 괜찮고 동물만은 '아주 자연적으로 살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와 고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야생동물이 아니라 같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과 지내도록 진화된 동물이에요. 그렇지 않고 애네들이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 생존이 힘들어지고...<사례 10>

<사례 3>과 <사례 10>은 사람들이 길고양이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개네들이 스스로 자생적으로 지내게 해야지, 인간이 자연적이지 않게 인위적으로 도움을 줘선 안 된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무조건 동물의 욕구를 인간 욕구의 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의인화를 피하는 길이 아니라며, 그 단어에 대한 단순한 해석이 아닌 더 복잡한 맥락을 숙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의인화를 피상적으로 이해한 채 그것을 피하겠다고 현실을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또 다른 인간중심적 사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아닌 동물에 대해서만 '그들은 자연의 일부이므로' 인위적 개입을 말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 논리이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고양이들이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이 도시 생태계에 조성되어 있는지 등 최대한 많은 지점을 그 동물의 입장에서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례 4>는 보호소의 유기견과 길고양이들에게 건강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이루어지는 중성화 수술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는 새끼 일곱 마리랑 버려진 개를 보면서 '이래서 중성화 수술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서로 이산가족이 돼야 하는 고통, 그 아이들이 또 번식이 돼서 하나는 개농장으로 갈 것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걸 멀리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그 비참한 삶들의 궤적이 그려져요. 애네들한테 '네 자식들이 이런 길을 갈 건데도 낳겠냐'고 물어본다면 낳지 않는다고 할 거라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어땠을까'라는 거. 그것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그건 네가 만든 잣대'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열악한 보호소에서 평생 그러고 살아야 한다면 더 안 좋은 경우

도 많은데 과연 낳겠다고 할지. 지금 이 아이도 새끼를 다섯 마리 낳았는데 그 새끼들이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뜯어먹어야 되고 눈치도 보면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운이 좋게 그 자식들이 애랑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잘 살 수도 있지만 보통 이들이 가는 길이 극과 극인데 안 좋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례 4>

유기동물보호소의 동물들과 길고양이 등에 대해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동물의 자연적 능력과 권리를 침범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사례 4>는 그들이 ‘자연의 일부’라는 이유로 그저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입양을 갈 수 없는 강아지들이 보호소에서 매일 수없이 태어나고 있으며 대부분이 결국 안락사나 보신탕집 혹은 길 위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성화 수술은 - 인간중심적 관점이 아닌 - 동물들 스스로에게도 가장 이로운 조치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활동가들은 자신들에게 있을지도 모를 인간중심적 사고를 경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피한다고 현실을 방관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역시 경계를 하고 있었다.

길고양이의 경우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는 TNR이 결코 반갑지 않게 느껴지겠지만, TNR을 하지 않아 수가 늘어날 경우 - 주민들의 학대로 인해 - 고양이 자신들에게 더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는 현실 (사례 5)”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보살핌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고려

한편 아래의 <사례 5>와 <사례 9>는 길고양이에 대한 사람들의 학대와 관련하여 그들을 돌보는 이들이 민감하게 신경 쓰게 되는 부분에 대해 언급한다.

고양이가 저희 집에 와서 새끼를 낳았는데 처음에는 ‘친해져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재네들이 나에게 정을 주면 너무 위험해진다

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몰래 주게 되고 일부러 개네들이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매번 다른 시간에 가고 그래요. 왜냐면 ‘사람이 밥을 주네’라고 생각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친근하게 굴 수 있어요.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 정말 많기 때문에 개네들한테 학대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위험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피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못 본다고 생각하면 사실 서운하지만, 개네들이 또 저한테 다가오면 무섭기도 하죠. 개네들이 잘 못될 때도 만지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사람 손 타면 안 되니까. <사례 5>

밥을 매일 준다면 TNR도 같이 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먹을 게 풍부한데 TNR을 안 하면 계속 번식하고 주민들 민원도 늘어날테고... 그럼 해꼬지하는 사람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고양이에 대해 이상한 편견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부터 더 신경이 쓰여요. 고양이 커뮤니티에 사례가 올라오니... 예를 들어 갑자기 밥을 주는데 욕을 먹었다든가 살해 위험을 받았다든가 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들리거든요. 저도 안 보이는 구석에 몰래몰래 놔줬는데, 다른 사람 눈에 띄지 말고 밥 먹으라고 그러는 거죠. <사례 9>

자연스럽게 생존하기 어려운 도시의 길고양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캣맘’들은 자신의 행위가 의도치 않게 그들을 위협에 빠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인다.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이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자신의 생활·관심 영역 밖의 고려할 필요 없는 존재로만 여기다가 의미 있는 만남의 경험 뒤 공감을 통해 밥을 주고 보살피게 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주민들이 자신과 달리 고양이를 싫어하거나 심지어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그 깨달음으로 인해 고양이가 자신을 따르지 않게 거리를 두고 밥은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밥을 먹으며 길고양이가 사람들의 눈에 자주 띠거나 또 ‘캣맘’의 손을 타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위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그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양이를 보살피기 위해 행한 자신의 단순한 행동이 그들에게 오히려 해를 부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은 더 많

은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

길고양이를 그냥 데려와 버리면 일단 내 마음은 편해요. 문제가 해소가 되잖아요. 그 녀석을 키우며 바로 안위를 확인할 수 있고... 하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폭력은) 계속 벌어져요. 옆에 아줌마는 막 마당에다 압핀 깐다고 고양이 발에 밟히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힘들지만 저는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설득하고 조금이라도 변화를 도모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지금 우리 집 있는 고양이 하나가 꼭 까만 차에 올라가 발자국을 찍어놓고, 그럼 아침에 나가서 그거 털고 닦고... 그 아줌마는 저더러 철면피라고 하기도 했어요, 고양이가 밥 준다고. 근데 이 자식이 그렇게 야속하게 꼭 그 마당에 들어가고... 제가 별 말을 다 했어요. “고양이가 들어가는 데는 터가 좋대요. 햇볕을 좋아하는데 거기 햇볕이 좋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사례 3>

<사례 3>은 주위의 길고양이들을 돌보며, 고양이를 싫어하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이웃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편견을 돌리기 위해, 심한 소리와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이웃을 설득하려 애쓰곤 한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동물에 대한 학대는 결코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1> 역시 “집 마당에서 개를 목매달아 죽이는 아저씨를 상대하며 그 개를 구조할 때, 아저씨가 화가 나면 그 집에 남아 있는 다른 개들에게 해가 될까봐 싸우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당장 오늘 죽을 뻔한 그 개는 구조가 되어도 그 과정에서 상대의 심기가 불편해지면 그 피해는 다른 동물들에게 간다. 어쨌거나 “칼자루는 그 사람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동물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상대에게 있는 한 동물을 염려하는 활동가는 그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다.⁷⁸⁾

만약 당장 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눈앞에 있는 한 동물을 구조하는 것에만 신경 쓰고 다른 동물들의 학대와 연결되는 이러한 복잡한

78) <사례 6> 역시 싸울 때와 그러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내일 당장 먹는다고 자기 집 마당에 묶어놓은 이 개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정말 그 사람한테 거의 빌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한다. “내가 자존심을 세우거나 싸우면 아저씨가 각이 서서 절대로 팔지 않기 때문에 결국 애는 죽기 때문”이다.

고려는 외면한다면 그것은 ‘자기만족’을 위한 행동일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

3) ‘무엇이 그들을 위한 판단인가’에 대한 고려

아무리 동물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고 해도, 동물들은 자신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표명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가들은 자신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이러한 갈등은 주로 구조나 안락사 등 동물들의 미래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되는 선택 앞에서 나타난다.

저는 요즘에 항상 동물들한테 말 좀 해보라고 그래요. (웃음) 사실 어떤 한 동물을 구조해도 고민될 때가 많아요. 사실 엇그제도 고양이를 구조했어요. 어린 애들한테 돌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만 보면 너무 불쌍해요. 애들한테 돌을 맞고 움직이지 못 하고, 그런데 데리고 와서 고통을 주고 치료하는 중간에 애를 막 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날 수도 있었던 건데 괜히 데리고 와 삶을 연장시켜서 치료하는 중간에 얼마나 아플 것 아니에요. 특히 애가 폐에 염증이 있다고 하는데 숨쉴 때마다 아플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그 학대 받는 것만 보면은 구조하는게 마땅하지만 정말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고민이 되죠. <사례 5>

저 놈이 호동이인데 입에 염증이 있어 음식에 스테로이드도 넣어주고 있는데... 녀죽이가 애 먹으라고 항상 앵벌이 짓을 해요. 자기는 안 먹고 양보하잖아요. 애네하고 꼭지라는 애하고 셋이 서로 엄청 아끼는 사이인데, 요즘 꼭지가 안 보여요. 끝까지 서로 보살피고 이런 이타적인 여러 모습들 보면 인간과 그들 사이 선을 긋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이예요. 입이 아파서 그루밍을 못하면 고양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파도 빨리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솔직히 보호소 보내 편하게 치료시키고 싶어요. 하지만 저 셋이 함께 사는 것을 너무 행복해 했고... 내가 호동이라고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재벌 떠나서 낯선 곳에 갇혀 살고 싶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내 맘이 편

하려면 그러겠지만... 굉장히 고민이에요. 꼭지가 6개월간 나타나는지 기다려 보고, 그래도 안 오면 안 온다고 봐야지. 죽었거나. <사례 3>

이들은 우리 사회와 심지어 동물을 위한다는 자신들도 얼마나 인간중심적 시선과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왔는지 반성하는 순간들을 경험한다. <사례 3>은 인터뷰 도중 자신의 차 밑에서 밥을 먹는 고양이들을 소개하며 그들 사이에도 서로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이타적 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중 한 마리가 아픈 상황이라 구조하여 제대로 치료를 해주고 싶지만, 그럴 경우 요즘 보이지 않는 다른 한 마리를 포함한 그들의 행복한 관계가 깨질까봐 우려가 된다. 앞서서와 마찬가지로 얼핏 생각하기엔 그냥 구조를 하는 것이 최적의 선택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 ‘그들’의 입장에서 사고를 해보면 깊은 고민 없는 일방적 구조행위 역시 자신의 마음만 편하자고 내리는 경솔한 선택일 수 있는 것이다. 구타 현장에서 구조하여 살린 것이 오히려 그 동물에게 더 길고 큰 고통을 겪게 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 5>의 고양이 사례 또한 비슷한 경우이다.

이렇게 ‘무엇이 그들을 위한 판단인가’에 관한 고민은 동물들의 처우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과 관련되어 드러나는데, 특히 너무나 환경이 안 좋은 사설 보호소에서 지내는 많은 유기동물들을 보며 이 정도의 상황에선 차라리 안락사를 고려하는 게 옳지 않을까 고민하는 활동가들도 있었다.

사설 보호소... 내가 봤을 땐 정말 애니멀 호더⁷⁹⁾인데, 그런 곳 봉사 몇 번 참여한 적이 있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기억이 너무 막 악몽을 막 꾸고. 그런데 ‘사람들은 더 열악한 보호소에 열광한다’ 뭐 이런 표현을 읽었어요. ‘사람들은 더 열악한 곳에 가서 봉사하길 원한다.’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는지. 그 상황에서 과연 강아지와 고양이들이 있는 거는 제 기준에서 용납 받을 수 있지 않아요. 그토록 열악한 상황에서 무슨 수용소 애들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게 과연 시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내가 그들 입장이었으면 그렇게 사는 게 더 낫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저는 인간 안락사도 찬성하고 내가 존엄성 있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

79) animal hoarder.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키우기에 적절한 수를 넘기고 점점 늘려가며 동물을 키우는 동물학대의 한 유형.

각하는데, 그런 권리는 동물한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봐요. <사례 9>

입양이 안 되면 평생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도 비참하지만 열흘 안에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십년, 이십년의 기회를 다 없애는 거잖아요. 사실 안락사 문제에서 약간... 좀 비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애네가 비참하게 산다고 해서 다 죽이자는 거는, 내 눈에 비참해 보인다고 노숙자들 다 죽이자는 걸 수도 있거든요. 노숙자가 ‘난 자유로와. 나는 괜찮아’라고 하기 때문에 죽이지 않지만, 애들은 지금 나한테 죽고 싶은지 여부를 알 못하기 때문에 우린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침묵하는 편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나쁘다’고 힘들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애네는 지금 행복한 거’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하는 보호소장도 있고. 딜레마인 것 같아요. 개네들에게 물을 수가 없으니 그게 참 답답하고. 내가 뭐라고 개네들 고통스럽다고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거기 그렇게 두자니 참 마음이 아파요. <사례 4>

개인적으로 몇몇 유기동물 보호소 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례 9>는 그곳의 개들이 예상보다 훨씬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는다. 그와 같이 보호소를 직접 경험한 후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놀라는 이들이 많다. 그들 중 일부는 “동물들이 먹을 것도 없고 편히 잘 곳도 없는 그런 곳에서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안락사에 대한 논의 자체를 회피하는 건 현실을 회피하는 것 (사례 5)”이라는 생각을 한다.

<사례 4>는 그 동물들의 상황이 비참하기는 하지만 그들이 ‘차라리 죽고 싶다’는 의사를 말로 표명할 수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생사라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함부로 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냥 놔두자니 마음이 아픈” 상황인 것이다.

안락사 문제는 현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동물들에 대한 윤리적 고민과도 연결되어 있다. ‘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원칙에는 모두 동의한다 하더라도 그 ‘가장 좋은 결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각 입장이 갈등하는 미묘한 지점들이 있는 것이다.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본인의 주장을 하지 못하는 타자를 위해 대신 목소리를 내야 하는

운동이 갖는 딜레마이기도 하고, 따라서 명확한 정답을 구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활동가에게 끝없는 고민과 성찰을 요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앞의 V장에서 이루어진 동물권활동가들의 성찰이 동물을 지배하는 사회 구조와 그 유지기제를 깨닫고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이 장에서는 그것에 저항하는 자로서 활동가들이 자신과 자신이 몸담은 동물운동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자기성찰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그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들이 받는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보살피면서도 그 안타까움에 자기를 희생하고 상호관계를 왜곡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한다. 또한 그들은 감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동물운동의 대상·내용·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간중심 사회에서 타자화되고 목소리 없는 존재의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동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하고 있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나’가 아닌 ‘타자’를 중심에 놓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타자중심성은 - 차별에 저항하는 다른 소수자 운동들은 집단의식을 가진 피억압집단이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에 반해 - 동물권 운동은 전적으로 제삼자 집단에 의한 대리적 운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Ⅶ. 타자중심의 소수자 운동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동물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고통을 경험하는 동물에 대한 공감의 경험 이후 동물을 차별하는 인간중심사회의 타자화와 지배에 대해, 그리고 활동가로서 자신과 자신이 몸담은 동물 운동에 대해 성찰하게 된다.

동물을 타자화하는 인간중심 사회에서 활동가들은 동물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을 우리의 도덕 공동체의 같은 구성원으로 인정·포용하게 되고(Ⅳ장) 나아가 동물을 억압하는 인간사회의 지배 메커니즘을 인지하고 성찰하고 저항하고 있었다(Ⅴ장).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동물 문제는 더 이상 동물들만의, 그리고 포용과 ‘케어’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즉 사회적 타자를 지배하는 권력관계의 틀로 바라봐야 한다는 정치적 성격이 강조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동물들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타자중심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1. 소수자 운동으로서 동물권 운동

1) 동물권 운동과 소수자 운동의 유사점

활동가들의 시각은 동물을 위한 실천을 하면서 점점 확장되고 있었다. 아래의 <사례 4>는 자신에게 실천의 가장 강력한 동기였던 보신탕과 유기견 문제를 통해 봉사를 하고 단체에 들어와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동물에 대해서만 느꼈던 문제의식은 이후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와 연결된다. <사례 2> 역시 ‘장애인에게 가장 혹독한 사회가 동물에게도 가장 혹독하다’는 말을 인용하며 동물 역시 ‘사회적 약자’ 계층의 하나로, 동물들의 문제를 사회정의의 문제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들의 동물에 대한 차별·지배에 대한 인식과 다른 소수자가 겪는 권력관계에 관한 인식은 쌍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제가 원래는 나와 내 가족과 친구들만 잘 지내면 된다고 그렇게만 살았었는데, 보신탕과 유기견의 현실을 보고 과정들을 겪으면서 고통이란 것을 알게 됐고... 전 원래 개나 고양이를 안 좋아했었고 동물·사람·자연 간에 조화가 있다는 거는 생각해보려고조차 안 했었는데 이해심이 생기고 세상 보는 시각, 껍질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인, 여성 단체에도 눈뜨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다 연대해서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친구들끼리 모이면 어떤 친구는 장애인 학교 선생님, 어떤 친구는 여성 단체에서 일 하고 그러거든요. 그 친구들이 우리 회원이 되어 우리 전체 메일을 받게 되면 애네들은 ‘아, 동물 학대 사건이 났구나’ 보며 알게 되고, 저도 ‘아, 이번에 어떤 성폭력 사건이 있었지!’ 혹은 장애인 차별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접하게 되고... 그런 걸 보며 동물들에 대한 차별과 비교해보기도 하고 또 다른 소수자들의 현실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하는 거죠. <사례 4>

자폐아인데 동물학자가 된 여성 템플 그랜딘⁸⁰⁾의 이야기를 보면서 되게 인상에 남았던 게 그랜딘이 동물도축시설을 인도적으로 개선했잖아요. 자폐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인간적인 시각보다는 있는 그대로 감각에 충실해서 일반 사람에 비해 동물에 가까운 시각에서 고통을 느낀다든지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였는데... 그분이 ‘장애인에게 가장 흑독한 사회가 동물에게도 가장 흑독하다’는 말을 하며 인권 문제와 연결을 시켜요.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사회정의적인 시각에서 동물을 인식하게 된 거죠. <사례 2>

소수자는 ‘신체 또는 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여겨지고,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 권력의 열세와 함께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자들을 뜻한다⁸¹⁾ (박경태, 2008). 동물권 활동가들은 우리 인간과 종(species)이 다르다는 - 특히 ‘열등’하다는 - 차이에 근거해 차별과 지배의 대상이 되며 아무런 사회적 권력을 갖지 못하는 동물들을 다른 주변집

80) Temple Grandin. 자폐증 환자로서 자폐증 계몽 운동과 농장동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동물학자.

81) 또 다른 특징으로서 ‘집단의식’과 ‘소속의식’이 있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단들과 마찬가지로 ‘소수자’로 인식하고 있었다.

물론 아직은 동물을 소수자로 보는 관점을 낫설게 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이 많지만, 동물권 운동 진영은 “옛날, 백인들이 흑인을 노예로 부려 먹던 시절에는 백인들에게 흑인들의 고통이나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멸시를 당했었(KARA, 2007)”고 “100년 전에는 여성이나 성소수자 같은 다른 소수자들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다 (사례 9)”는 점을 상기시킨다.

동물에 대한 억압은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폭력이 서로 다 연결되는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인종차별이라든가 여성, 성소수자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가 동물을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로 봤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당시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차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 100년, 200년 지나서 보면 말도 안 되니까. 나는 충분히 동물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다른 소수자나 억압 받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사례 9>

미국의 경우 노예금지운동, 여성운동, 노조운동, 인권운동, 인종차별 금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 지원... 그러면서 사회변혁운동이 환경운동, 생태운동으로 나가죠. 그 수평선에 이어지는 운동이 동물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잇지 않으면 동물운동이 동떨어진 하나의 부문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게 되거든요. 이 사회변혁운동의 시각에서 다 근본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음을 바라보지 않으면 동물운동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될뿐더러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돼요. Animal Rights Conference 행사에 가보니 전에 인권운동, 여성운동 했던 분들이 동물운동으로 많이 와 있고 그럴더라구요. 약자에 대한 폭력, 학대. 그 본질에 대해선 다 똑같은 거거든요. <사례 7>

고통 받는 동물에 감정이입하며 시작된 활동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인식은 활동의 과정을 밟아나가며 점점 단순한 보살핌에서 지배적 권력관계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하나’로 변화하고, 이러한 인식변화 속에서 활동가들의 동물문제에 대한 이해 역시 다른 사회문제와 연관되는 시스템에 대한 넓은 시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예컨대 국제조직·발전기구·정부에 의하여 촉진되는 가축농업의 산업

화는 세계화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동물복지’만이 아닌 다른 여러 차원의 폐해를 낳고 있다. 그것은 우선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소수 대기업체의 돈과 기술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농민들의 삶을 황폐화시키고 농촌구조와 공동체를 파괴한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는 낮은 비용의 곡물을 생산하는 대신 단백질생산량이 더 적은 가축의 사료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부가적인 공간·에너지·물·돈을 더 사용하게 되어 빈곤문제를 심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환경과 건강의 문제는 산업축산을 통하여 이윤을 얻는 외국기업이 아닌 해당 지역과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된다. (Cox, 2007)

이러한 사회문제의 상호연관성을 고려하면 동물을 먹는 것에 반대하는 동물권 운동은 빈곤운동·농민운동·반신자유주의운동·환경운동 등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으며, 또 그래야만 한다고 많은 활동가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어떤 운동이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운동이고 그 경험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동물운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앞서서 이뤘던 그 사회변혁 운동들을 우리가 그 경험에서 배울 건 배우고 도출해낼 건 도출해내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시키고 흡수하려고 노력해야죠. 우리가 지금 동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앞서 노예든 흑인이든 여성이든 아동착취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했던 그 사람들의 경험을 이어받아서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동물들을 그 사회적 약자에 포함을 시키도록 노력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데, 여성·아동·노예·흑인 문제와 이 문제가 본질에 대해서 똑같은 걸 얘기하려면 그걸 연결을 시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논리와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례 7>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 비록 현재는 역력이 부족해 잘 못 하고 있지만 - 앞으로는 시각과 영역을 넓혀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적극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과거 사회운동을 하며 다른 진영으로부터 지지와 연대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는 <사례 7>은 사회적 약자의 연장선으로 동물 문제를 연결

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동물운동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동물을 “여성·아동·착취·노예·흑인” 등 소수자 운동 안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자는 결국 그들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물운동을 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동물운동을 하며 더 열심히 환경·여성 단체 등의 활동에 참여했었다”는 <사례 6> 역시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며, “함께 하면서 우리 걸 알려야 연대가 가능하지, 우리 카드를 들이밀며 받아주길 바라는 건 진정한 연대의 태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

2) 인간중심적 소수자 정치를 넘어

그러나 ‘연대’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약자를 차별하고 지배하는 사회구조의 권력관계에 대해 비판적인 이들 역시 아직은 대부분 인간중심적 시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독립영화 진영이 나름대로 되게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권력... 그러니깐 피지배자들의 어떤 목소리들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 집단이죠, 예민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존의 독립다큐멘터리들이 대부분 약자나 소수자의 입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해왔잖아요.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많은 독립영화들이 대변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굉장히 인간중심적인 측면도 있어요. 여전히 귀를 닫고 있는, 눈을 감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동물 문제. <사례 8>

<사례 8>은 독립 다큐멘터리 세계가 대체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대변하는 진보적 그룹임에도 아직 동물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다고 이야기한다.

대부분의 동물권활동가들은 다른 사회운동·소수자운동과 거시적으로는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세계 안에도 역시 인간중심주의라는 벽이 있기에 동물은 주변에서도 주변의 위치에 있음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문제에 있어 진보적인 이들마저도 동물 문제에 있어서는 “불쌍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배부른 소리 한다”는 식의 인식을 보이는 것이 아직까지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운동을 하던 여성 대학생들이 운동권 내의 가부장성에 한계를 느낀 것처럼, 또 여성운동 안에서 성소수자나 장애여성들이 한계를 느낀 것처럼, 동물운동은 사회운동 안에서도 또 다른 위계에 놓여 있다.

특히 한국사회의 진보층과 동물이 맺어 온 관계를 짚어 볼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족주의 담론이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적 저항은 우리나라의 진보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개고기 관련해서 외국 사람들이 도와줄 때 직접적으로 대중과 연결되도록 해주면 안 돼. 왜냐면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인 논쟁은 외국 사람들이 끼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포럼 같은 걸 할 때 누가 이제 ‘개 식용 관련한 것도 외국 사람들 초청해서 하자’ 그래서 내가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개 식용 관련한 거를 외국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중들과 맞닥뜨리는 행위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인 거죠. 더구나 FTA 관련해서 지금 반미감정이 굉장히 심한 상황에서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여기 끌어들이면 우리 완전히 나라 팔아먹는 사람... <사례 6>

진보주의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꽤 많았는데... 개고기 이야기가 나오면 뭐 ‘서양농들은 뭐 소도 많이 먹고...’ 그런데 지금 소 그렇게 확대하고 소고기 많이 먹고 이러는 서양 농들이 ‘개고기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이제 반려동물로 이렇게 정을 주고받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이런 동물까지 먹는 건 좀 아니지 않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데고 무슨 서양 사람들 말고기도 먹고 뭐 심지어는 달팽이가 어찌고 자꾸 그런 말만 하는지. <사례 3>

하지만 동물운동가들은 민족주의적 반발심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애써 왔다. 과거 프랑스의 배우인 브리짓 바르도 사건⁸²⁾ 이후 “개고기 문제는 ‘우

82) 브리짓 바르도가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1998년 김홍신 의원이 개고기합법화 법안을 발의했을 때였다. 당시 김 의원은 공개서한을 보내 브리짓을 비판했고 언론은 그녀의 행동이 '민족전통에 대한 간섭'이라고 보도했다. 두 번째로 주목받은 것은 2002년 월드컵 당시 한 라디오

리 민족문화를 침범하는 제국주의와의 싸움”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이다.⁸³⁾ 미국에 대한 반감에 ‘애완견은 부유한 자의 것’이라는 편견⁸⁴⁾까지 합쳐져, 이러한 갈등은 특히 진보적 의식이 강한 이들과의 사이에서 더욱 컸다.

‘우리의 전통이니까 더 이야기할 것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동물단체는 “지금 개고기를 먹지 말자고 얘기하는 건 서양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 (사례 3)”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개식용 금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들은 다름 아닌 국내의 동물운동가들이었다.

우리나라 동물운동에 있어 가장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개고기 문제에 관한 논쟁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깊이 고찰해야 할 문제를 ‘우리의 민족문화⁸⁵⁾’라는 말 한마디로 일체의 반론을 일축하겠다는 태도를 종종 접할 수 있다 (고미송, 2011). 그동안 문화상대주의는 소수민족의 자율과 전통도 존중해야 함을 인식시켜 제국주의의 팽창논리에 맞서왔다 (남유철, 2005).

하지만 ‘전통이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에피아(K. A. Appiah, 2008)는 세계시민주의의 조건인 이질적 문화나 사회를 바라볼 때 상대주의적 오류에 빠져들기 말기를 각별히 요청한다. 그것은 서로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대화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대주의는 상호 소통의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침묵과 회의주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머(P.

인터뷰에서였다. 냉정하고 논리적인 언론인의 태도와 달리, 그녀의 흥분한 어투와 준비되지 못한 자세는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백히 그녀의 패배를 인정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브리짓은 한국에서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찍혔고 그와 동시에 '개고기=전통음식'이라는 주장은 힘을 얻었다. “누가 브리짓 바르도를 두려워하라 (전경옥, 오마이뉴스, 2006. 8. 9)”

83)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신탕 문화에 대한 외국의 시비나 압력이 늘어날수록 보신탕을 먹지 않는 사람들도 보신탕 문화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한다. - “외국시비 늘수록 ‘보신탕 반대 안해’ 여론 늘어 (이여영, 중앙일보. 2007.7.3)”

84) 이는 곧 ‘개고기 반대 운동은 배부른 자들이 하는 운동’이라는 편견과 연결된다.

85) 사실 개고기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역사 속 개의 위치에 대한 논의는 주정은(2009) 참조.

Farmer, 2002) 역시 문화라는 개념을 남용하는 것은 특히 고통에 대한 논의에서 치명적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일부 세력과 영합해서 손쉽게 극단적 고통을 영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본질주의의 한 형태인 문화적 상대주의는 존엄성에 대한 침해와 일반적인 고통에 대한 구실을 제공하는 데 이용되었다. 고문과 같은 관례를 일컬어 ‘문화적인 것’이라 부르며 피해자나 가해자, 혹은 모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족주의 진보의 시각에서 그동안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구 제국주의가 ‘중심’이었고 한국의 전통문화가 ‘주변’이었다면, 그 안에서 동물은 다시 주변화된 타자였다. 그 관계 속에서 동물, 특히 개는 삶의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징’으로만 가치부여 된다. 동물에 대한 상징·대상화가 갖는 모순은 진돗개를 통해 잘 드러난다. 진돗개는 평소 용맹함·영민함·충성심 등의 긍정적 이미지로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이야기되지만 그 혈통이 의심되면 바로 보신탄의 재료가 된다.⁸⁶⁾

또한 ‘개’ 뿐만이 아니라, 국내 축산 농가와 국민 보건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사회진보세력이 집결했던 2008년 광우병 촛불 시위 정국에도 “소는 ‘살아있는 소’가 아닌, 오로지 인간의 먹을거리인 ‘쇠고기’로서만 존재했으며, 시민사회나 정치권 어디에서도 ‘생명체로서의 소’에 대한 언급과 고려는 없었다. (전진경, 2009)”

한편,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이들이 동물의 권리는 무시하며 흔히 하는 말은 “사람도 먹고살기 힘들다”는 것이다.

저희 아빠와 오빠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운동권이었어요. 그것이 결국 약자들을 대변하는 싸움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런 모든 게 끝나면서 다들 일상으로 왔고, 저는 뒤늦게 가장 약자인 동물들을 위한 싸움을 하게 됐으니 좀 이해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였어요.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아직 사람에게 대한 복지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소리

86) 진도군은 주기적으로 진돗개의 혈통에 관한 공인심사를 하여 불합격한 강아지는 도살 또는 보호지구외의 지역으로 반출해야 한다 (진돗개보호육성에 관한 조례11조). 도살도 문제이지만 상당수는 개식용 업자에게 내다팔린다. “못생긴 진돗개는 보신탄집으로 보내라? (전경옥, 오마이뉴스, 2009.08.12)” 참조.

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 이전엔 여성, 아동,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도 인정 안 했잖아요. 또 서양인들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같은 사람이 아닌 존재로 치부했었잖아요. 지금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 간의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은 많아진 반면, 아직 동물은 갈 길이 멀어요. <사례 4>

‘사람들이 살기 힘들고 너네가 이런 걸 할 때 다른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그렇게 공격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 단체가 하는 활동 자체가 이게 인간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려고 하는 거죠. 동물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주요한 논리는... 동물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해지는 각종 동물학대 이런 거는 인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죠. 동물들에게 가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장 인간성의 비천한 부분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라고나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운동도 사람의 문제에서 벗어나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동물 그 자체에 대해서 뿐 아니라 동물이 가장 약한 존재니까 인간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나 폭력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일환으로서도 동물운동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동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례 2>

<사례 4>는 약자들을 위하는 기존의 시각에 동물을 위한 자리는 없음을 비판하며, 그것이 “과거에 여성·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있어 온 사회적 저항들이 모두 ‘인간’만의 권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동물운동가들의 저항은 차별·지배·권리에 대한 사회·정치적 논의를 인간의 경계를 넘어 동물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그 과정에서 활동가들이 흔히 듣는 “사람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사람에게 대한 복지도 안 돼 있는데 무슨 소리냐”는 말은 동물이 아직 우리에게 사회·윤리·정치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존재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물운동은 ‘돈 걱정 없고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한가한 운동이라는 시선을 받기도 한다.

<사례 2>는 이렇게 “동물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 균열을 내기 위하여 동물 억압은 “동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방식으로 연결을 꾀한다. 동물 학대를 사회의 가장 주변에 있는 존재에게 가해지는 “인간사회의 폭력성”으로 의미화하며 동물 운동을 ‘인간사회에 대한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적 약자 하면은 인간범주 안에서만 얘기를 하거든요. 동물들은 아예 논외란 말이죠. 동물들은 사회적 지위 면에서, 목소리 면에서 소수자 중에서도 가장 핍박받는 가장 약한 소수자... 동물의 권리나 이쪽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소수자 영역에 대해서 되게 개방적이고 동참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반해 다른 소수자 그룹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훨씬 더 진보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무시하고도 갈 수 있는 소수자 중에서도 가장 소수자에 일부러 다가가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건데... (….) 간디가 ‘그 사회의 도덕적 잣대는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가능된다’는 말을 남겼잖아요. 동물을 존중해줄 수 있는 사회는 그 다른 어떤 소수자 그룹도 제대로 대우해줄 수 있는 사회인 거죠. 그러니까 척도예요. 도덕성과 윤리의 리트머스 용지가 바로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는 것 같아요. <사례 8>

‘인권 human rights’에서 말하는 ‘human’이, 그리고 ‘인간의 권리 rights of man’에서 말하는 ‘man’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성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동성애자의 권리, 아동의 권리를 거쳐 오늘날에는 동물의 권리에 대해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헌트, 2009). <사례 8>은 인권에 관한 기존 관념을 넘어 “동물의 권리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소수자 그룹 옹호자들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더 진보적”이라 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중심 세계에서 동물은 다른 소수자·약자들보다 더 주변화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까지 귀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권력관계에 더 예민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즉 “동물은 사회적 지위와 목소리 면에서 소수자 중의 소수자”이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차별과 억압은 그 자체의 의미 외에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목소리 없는 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의미도 갖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다.

2. 대리적 운동의 타자중심성

인터뷰를 하며 면접참여자들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를 혼용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그 두 개의 개념은 엄밀히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데, 박경태(2008)는 소수자의 중요한 특징으로 ‘집단의식’ 또는 ‘소속의식’을 들고 있다. 즉 사회적 약자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모두를 일컫는 표현인 반면, 소수자는 집단으로서 차별받기 때문에 성원들이 집단의식과 소속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정체성을 기반으로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운동하는 ‘소수자 운동’의 특성과 연결된다.

윤수종(2009) 역시 ‘소수자’를 국가나 사회일반으로부터 보호와 배려를 받는 처지의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지배에 대항하는 존재로 보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인식하고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소수자 운동’이 갖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신체·문화적으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정치·경제·사회적 권력의 열세와 함께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동물은 ‘소수자’이다. 하지만 ‘동물운동’은 소속의식에 기반한 당사자 집단으로서 동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 주체와 대상이 일치하는 - 기존 소수자 운동과는 큰 차이가 있다. 동물은 인간과 다른 언어와 인식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래 <사례 7>이 지적하듯 자신의 권리를 직접 표명하는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동물운동이 다른 사회변혁운동과 가장 구분되는 게, 자신들이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뭘 원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다는 걸 직접 표명을 할 수 없다는 점. 여성운동은 여성이 주체가 됐고 노예운동은 노예들이 주체가 됐고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주체가 됐어요. 하지만 동물운동은 그 주체가 되는 동물들이 직접 표명을 할 수가 없죠. 제삼자인 인간이 대신해줘야 하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구별이 되는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운동에서보다도 더 긴장감과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되는 엄청난 의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주체였을 경우에는 조금 내가 풀어서더라 해도 피

해가 나한테 오잖아요. 그 책임을 내가 그냥... 근데 동물운동에선 내가 잘못하면 그 피해가 동물들에게 가버린다는, 그래서 책임감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그 주체가 아닐 때는 모르는 부분들이 있죠. 내가 시시각각 걱지를 않는 거야.⁸⁷⁾ 우리가 제삼자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역지사지를 통해서 '가장 바람직한 게 뭐가 아닐까' 그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옳은 판단이었을까에 대해서 계속 검증을 해야 하고... <사례 7>

<사례 7>은 당사자가 주체가 되지 못하는 동물권 활동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타자의 입장에 완벽하게 설 수는 없지만 부단히 고민하고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점임을 이야기한다. 당사자주의⁸⁸⁾가 다른 소수자 운동들의 특징인 반면 동물운동은 “착취 집단 스스로가 자신이 받는 처우에 반대해서 조직적으로 항의할 수 없다 (싱어, 1999)”는, 즉 당사자 운동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타자중심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운동이다.

흑인해방운동에 참여하는 백인, 여성주의 운동에 참여하는 남성의 역할이 중요함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는 동물권 운동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동물운동의 경우 동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판단과 대리적 실천 하나하나가 그들의 이해를 잘 반영한 것인지,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활동가들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장하시는 분들의 말씀 중 제일 이해가 안 가는게 ‘내 자식 같은 소를 팔았다’고... 자식 같은 소를 왜 파냐구요. 그리고 구제역으로 본인 소가 다 천마리가 죽었어요. 그럴 때 ‘내 자식 같은 소를 내가 어제 다 보냈다’고... 기

87) <사례 7>은 다음과 같은 예로 설명한다. “여성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않아도 여성으로서 자연스럽게 부딪히고 느끼는 문제들을 (기득권을 갖고 있는) 남성들은 긴장하고 의식한 상태로 간접 경험을 하기 전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88) 참고로 ‘당사자주의’란 소수자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을 핵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이념적 지향을 말한다. 장애인 운동과 관련하여 설명한 유동철(2003)에 따르면, 당사자주의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일상적인 행위를 비롯해 정책 결정과 평가 등 모든 과정이 소수자 스스로의 목소리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사자주의이다.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책수립을 좌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자들도 막 ‘자식 같은 소를 보내고 이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왜 <식객>에도 나오잖아요. 그 소를 요리하면서도 소가 내 동생이라고.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닌 거죠. 소가 옆에서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광우병 때도 소의 입장은 없었죠. <사례 4>

‘칼에 찔리면 아파’ 이런 단순한 것도 사람과 동물의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 저는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백인이 아닌 남의 언어라든지 남의 생각새에 대해 배타적이잖아요. 내 언어가 아니면 무시를 해요. 장애인들이 얘기를 못하니까 무시하고... 만약 그들이 똑같이 “왜 이러세요”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할까. 아들에게 학대나 성폭행을 했을 때 경찰서에 똑같이 가서 “저 할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했어”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동물들은 자기들만의 언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인간의 말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 이렇다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폭력을 가하는 거고. 나름대로 비명과 고통을 호소함에도 그것을 무시하는. <사례 4>

고미송(2011)은 몇 년 전 광우병 촛불집회 때 광우병 걸린 미국 소의 위험을 경고하며 사용된 “우리는 살고 싶다”라는 문장을 떠올리며, 모든 국민이 값싸고 안전한 쇠고기를 먹기 위해 벌어진 전방위적 사회 운동에 정작 광우병의 당사자인 소들의 입장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비판한다.

자신이 동물을 죽이고 파는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 하는 인간의 모순을 지적하며, <사례 4>는 결국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동물의 입장이 아닌 인간의 입장에서 사고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핍박받는 이유는 결국 우리와 다른 그들의 언어를 인간이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 “박쥐나 고래가 괴로울 때 비명을 지르고 우는 것처럼 자기들만의 언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다르다는 이유로 그 언어를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기중심적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동물들이 겪는 문제가 이렇듯 타자의 입장을 배척하는 인간중심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반대로 대리적 운동주체로서 활동가들의 동물운동은 그들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실천된다.

자연다큐멘터리는 동물의 생태와 자연의 지식 전달의 측면에 있어 그 어떤 교육보다 훌륭한 매체이지만, 결국 전지적 시점의 인간 나레이터들이 나와서 다 설명해주잖아요. ‘얘는 무슨 먹이를 좋아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래서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우리는 보호해야 한다!’ 좋은데... 결국은 인간이 제일 자연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입장에 있는 거고, 나레이션처럼 카메라도 항공촬영이 많고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점 같은 그런 관리자의 입장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저는 보통 자연다큐가 갖는 입장처럼 야생동물이 관리되어야 하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저는 형제자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카메라를 낮게 눈높이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피사체와 카메라 사이에 위계질서가 들어가요. 지금 돼지를 찍고 있는데 카메라 감독이 잘 모르시고 하이앵글로 찍은 앵글이 몇 개 있어요. 그렇게 찍지 말고 최대한 돼지 눈높이에서 찍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해요. <사례 8>

김성한(2008)은 “인간이 아닌 동물과 입장을 바꾸어본다고 했을 때 의인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단지 인간의 눈이 아닌 동물의 눈과 마음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례 8>은 통역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사례 4>가 제기했던 ‘언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현의 방법론을 모색한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이라는 타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 피사체를 대상화하는 전지적 관점 대신 동물들의 감정을 담아낼 수 있는 카메라 각도를 시도하는 것이다. 그는 이밖에도 고속도로를 건너는, 동물원 안에 갇힌,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들이 스스로 했을 법한 생각과 이야기들을 “인간적 관점이 아닌 동물적 관점에서” 담아내기 위한 영화적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는 우리와 다르기에 무시되어 왔던 그들의 목소리를 성찰적으로 “통역”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계획된’ 의인화 작업이다.

주변화된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나 의사와 상관없이 지배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에 의해 규정지어지며 스스로 목소리를 통해 말하기보다는 주류사회의 이해관계와 관점에 의해 말해진다 (양정혜·오창우, 2008). 우리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타자로 그려지거나, 아니면 고분고분하고 사회

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기존의 규범을 잘 따르는 타자로 말해지는 것이다.

동물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은 목소리 없는 동물들을 대신해 그들을 권리의 주체로 만드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주변화된 집단을 이야기의 주체이자 저자로 복원하려는 노력(이희은, 2011), 즉 ‘말해지는 존재’가 아닌 ‘스스로에 관해 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타자의 ‘목소리’라는 것은 이익과 욕구를 단순히 말하는 행위 차원을 넘어, 권력관계 하에서 그들을 차별·지배하는 질서에 의해 해석되고 인정/거부되는 사회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확실하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타자를 위해 저항하는 소수자 운동은 자신의 입장을 그들이 처한 상황에 놓고 사유하는 열린 관점과 함께, 그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득권을 성찰하고 그러한 지배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VIII. 결론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이미 동물권과 동물권 운동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이제는 일반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속에 활발하게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해외의 상황에 비해 아직 초보단계인 한국의 동물운동은 10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부족한 자원과 부정적인 사회 인식에도 동물들의 처우와 권리 개선을 위해 분투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사회적으로 목소리를 확대해가고 있는 동물권 운동(Animal Rights Movement)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간과 동물 간 관계의 속성을 권력관계의 맥락으로 이해하고 또한 활동가들의 경험에 따른 동물권운동의 의미 변화 과정과 그 사회적 의미를 탐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자 하였다.

첫째, 현 사회에서 동물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차별되고 타자화되는가. 그리고 활동가들은 어떠한 계기를 통해 문제의식을 품게 되고 사회적 타자인 동물을 포용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을 하는가.

둘째, 동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억압은 어떠한 방식으로 정당화되고 유지는가. 그리고 동물 지배 구조에 대한 활동가들의 성찰과 저항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셋째, 사회구조에 대한 성찰 외에 활동가들은 운동을 하는 이로서 스스로 어떠한 내적 성찰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자기성찰의 성격은 동물운동의 어떠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가.

넷째, 다른 소수자운동과 동물권운동이 갖는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타자관계에 있어 동물권운동이 갖는 사회적·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현재 활발하게 동물권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 1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인간이 중심이 되는 세계에서 ‘우월한 인간’과 ‘열등한 동물’이라는 위계적 차이관에 기반한 타자화를 통해 동물은 우리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이익은 우리 인간에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동물들이 겪는 ‘고통’은 인정되지 않고 외면 받고 있다. 그러나 동물권 활동가들의 경우 ‘공감’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영역을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상대에게 본인의 입장을 대입하는 동일시를 해보며 동물들의 고통을 유추한다. 이렇듯 고통 받는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느낄 것 인지를 상상하는 과정으로 동물들에 대한 공감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특정한 동물의 고통에 대해 맺어졌던 공감은 동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염려로 확장되며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낳게 된다. 이러한 공감의 과정을 통해, 활동가들은 동물들을 이익이 무시되어 마땅한 - 고통 받아도 상관없는 - 차별받고 배제되는 타자에서 우리 도덕공동체의 성원으로 포용하기 위해, 동물들에 대한 편견을 깨고 긍정적인 시각을 전파하면서 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둘째, 우리가 아닌 집단에 대한 위계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강조하며 이루어지는 차별과 타자화는 그들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등한 관계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게끔 한다. 사람들은 동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해 마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서 - 예컨대 도축과정을 숨기는 방식 등으로 - 현실을 은폐한다. 또한 - 그러한 현실의 은폐에도 불구하고 - 알게 되는 동물들의 고통에 대하여 개개인은 애써 외면하는 태도를 취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합리화 기제로서 ‘생명은 똑같이 소중함에도 우리는 풀을 먹고 있으니, 다른 모든 동물 역시 다 먹어도 된다’는 일관성·하향평준화의 논리를 견지한다. 동물권활동가들은 타자화된 그들을 우리의 도덕공동체 내로 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동물에 대한 지배구조와 그 권력관계에서 인간이 누리는 기득권을 성찰하고 그것에 저항한다. 그 저항은 우리의 일상이 동물을 지배하는 구조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리고,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감수하면서도 관성을 벗어나 자신에게 질문의 화살표를 던질 수 있도록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동물을 지배하는 구조와 그 유지기제를 깨닫고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성찰 외에, 활동가들은 저항을 하며 ‘내적으로’ 겪게 되는 갈등과 자신이 몸담은 동물운동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자기성찰을 하게 된다. 먼저 활동가들은 동물들이 받는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보살피면서도 그 안타까움에 자기를 희생하고 상호관계를 왜곡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한다. 또한 그들은 감정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동물운동의 대상·내용·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타자화되고 목소리 없는 - 심지어 인간과 언어·인식체계가 다른 - 존재의 이해를 대변하는 운동을 하면서 자신이 자기만족이 아닌 ‘동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해 성찰하고 있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것은 바로 ‘나’가 아닌 ‘타자’를 중심에 놓는 사고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을 차별하고 지배하는 메커니즘을 성찰하고 저항하는 과정을 밟으며 활동가들의 시각은 동물권 운동을 ‘단순히 보살피고 보호하는’ 것만이 아닌 ‘권력관계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의 하나’로 받아들이는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그들은 차이에 근거해 차별과 지배의 대상이 되며 아무런 사회적 권력을 갖지 못하는 동물들을 ‘소수자’로 인식하면서도, 동물은 사회적 지위와 목소리 면에서 ‘소수자 중의 소수자’임을 비판적으로 인식한다. 또한 끊임없이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활동가들의 ‘타자중심적 사고’는 - 다른 소수자 운동들은 집단·소속의식을 가진 피억압집단이 스스로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에 반해 - 동물권 운동은 전적으로 제삼자 집단에 의한 대리적 운동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동물들이 겪는 문제가 타자의 입장을 배척하는 인간중심성으로 인한 것이라면, 동물운동은 사회적으로 목소리 없는 존재를 대신해 타자의 입장에서 성찰하고 사유하며 그들을 권리의 주체로 만드는 운동을 실천하고 있다.

18세기 인권 개념의 등장 이후 백인남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다양한 주변 집단의 권리 인정과 차별 반대를 위한 저항이 계속되어 왔다. 이 같은 소수자에 대한 도덕적 고려 및 권리에 관한 논의는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인간의 경계를 넘어 동물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소수자에 대한 억압은 사회적으로는 지배권력을 가진 집단, 근대철학에 있어서는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주체가 우리/나를 중심으로 자신과 ‘다른’ 존재를 타자화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타자화는 그들의 다름을 무시하고 자신의 일부로 포섭해버리거나 우리의 영역에서 배제하는 방식으로 실천된다. 그러나 이는 타자와 동등하게 상호인정을 하는 진정한 소통이 아닌 폭력의 관계일 뿐이다.

타자와 동등하게 상호인정하는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자기중심적 입장이 아닌, 그들이 처한 상황에 자신의 입장을 놓고 사유하는 타자를 향한 열린 관점일 것이다. 특히 동물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차이와 다름으로 인해 느껴지는 거리감이 매우 큰 주변 집단이다. 불확실하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들의 입장을 제대로 해석하고 대변하기 위한 동물운동가들의 관계적 성찰성은 타자와의 올바른 소통을 모색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타자가 겪고 있는 고통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자기반성이다. 동물운동 역시 지배 집단으로서 인간이 갖는 기득권에 대한 성찰이 바탕이 되어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 동물권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타자를 차별하고 지배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정치적 고민 없이 단순히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은 ‘좋은 타자’가 기존 질서와 규범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즉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만 그들을 인정해주겠다는 입장과 다르지 않다. 타자와의 관계에 작동하는 차별과 지배의 기제를 파악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써만 주변의 존재를 억압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우리의 저항은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내희. 2000. “재현체계와 근대성-재현의 탈근대적 배치를 위하여”
문화과학 (24). 문화과학사.
- 고경원. 2007. 나는 길고양이에 탐닉한다. 깔리온.
- 고미송. 2011. 채식주의를 넘어서. 푸른사상.
- 공병해. 2008. “고통의 현상과 윤리적 삶” 인문의학.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휴머니스트.
- 김성한. 2008. “동물의 고통과 공리주의” 인문의학. 인제대학교 인문의학연구소.
휴머니스트.
- 김애령. 2012. 여성 타자의 은유. 그린비.
- 김홍중. 2007. “근대적 성찰성의 풍경과 성찰적 주체의 알레고리”
한국사회학 (41집 3호). 한국사회학회.
- 김효진. 2007. “우리사회 중차별의 극단적 노출”. 숲 (1호). 더불어숲.
- 동물자유연대. 2006. 한국농장동물실태조사보고서.
_____. 201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교육용 실습심의 실태조사.
- 문성훈. 2011.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사회와 철학 (21).
사회와 철학 연구회.
- 민윤영. 2011. “법의 새로운 기초로서 동물권 담론” 법과 사회 (Vol.41).
법과사회이론학회.
- 민은경. 2008. “타인의 고통과 공감의 원리” 철학사상 27집.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 박경태. 2008.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_____. 2009. 인종주의. 책세상.
- 박성희. 2004. 공감학. 학지사.
- 박정순. 1996. “감정의 윤리학적 사활”. 정대현외. 감성의 철학. 민음사.
- 박찬운. 2010.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론” 법조 (59권 1호). 법조협회.
- 박형지·설혜심. 2004. 제국주의와 남성성. 아카넷.
- 배의철. 2012. “동물학대 사례를 통해 본 동물보호법 개정의 필요성”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녹색당+, 카라.

- 보라. 2007. 수컷다움을 요구하는 사회가 낳은 강박. 숲 (1호). 더불어숲.
- 신문수. 2009. 타자의 초상. 집문당.
- 양정혜 · 오창우. 2008. “미디어와 타자의 재현” 사회과학논총 (27집 1호).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오경석. 2011. “제한준머인연대와 미디어의 재현” 다문화사회연구 (Vol.4 No.2).
숙명여자대학교 다문화통합연구소.
- 유동철. 2003. “장애운동의 깃발 : 당사자주의인가, 인권론인가”
시민과세계 4호. 참여연대.
- 유명기. 2004. “소수자, 그 무적의 논리”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올아카데미.
- 유선봉. 2008. “동물권 논쟁 : 철학적, 법적적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Vol.10 No.2)
중앙법학회.
- _____. 2010. “현대적 동물권 운동과 동물해방전선에 관한 고찰” 법학논문집.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수종. 2009. “인권과 소수자, 그리고 욕망의 정치” 진보평론 (Vol. 42). 페이지.
- 윤인진. 2000. “한국사회의 배타성 : 소수 차별의 메카니즘” 사회비평 (25). 나남출판.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 이서윤. 2009. 현대 한국사회에서 ‘애완동물’의 사회학적 의미.
부산대학교 사회학 석사 학위논문.
- 이성록. 2007. 사회적 인간의 본성. 미디어숲.
- 이운상. 2010. “아동성폭력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나눔터(67호).
한국성폭력상담소.
- 이희은. 2011. “소수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의 의미”
한국 사회 미디어와 소수자 문화 정치. 커뮤니케이션북스.
- 임옥희. 2010. 채식주의자 뱀파이어. 여이연.
- 전은경. 2009. “왜 반려동물인가?” 숲 (2호). 더불어 숲.
- 전진경. 2009. “인도적인 동물복지 구현만이 소해면상피증 극복의 길이다!”
숲 (2호). 더불어 숲.
- 정수복. 2002.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아르케.
- 정인석. 2005. 인간중심 자연관의 극복. 나노미디어.
- 주정은. 2009. 보카 늑대의 왕국. 운주사.
- 허남걸. 2005. “동물의 권리에 대한 윤리적 논의의 현황” 불교학보 43집. 동국대.
- KARA. 2007. 인간중심주의에 갇힌 생명과 생태 개념. 숲 (1호). 더불어 숲.
- _____. 2009. 대한민국과 개식용. 숲 (2호). 더불어 숲.

2. 외국문헌

- 고모리 요이치. 2002. 포스트 콜로니얼. 송태욱 역. 삼인.
- 구달, 제인. 2009. 희망의 밥상. 김은영 역. 사이언스북스.
- 그랜트, 캐서린. 2012. 동물권,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인가?. 황성원 역. 이후.
- 기든스, 앤서니. 2001. 현대사회의 성 사랑 에로티시즘. 배은경·황정미 역. 새물결.
_____. 2007. 현대 사회학. 김미숙 등 역. 을유문화사.
_____. 2010.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권기돈 역. 새물결.
- 길리건, 캐럴. 1997.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역. 동녘.
- 더글라스, 메리. 1997. 순수와 위험. 유제분 역. 현대미학사.
- 테자르탱, J. R. 1999. 환경윤리. 김명식 역. 자작나무
- 드그라지아, 데이비드. 2012. “인격은 호모사피엔스에게만 있는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 노승영 역. 시대의창.
- 라이더, 리처드 D. 2012. “실험실의 종차별”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 노승영 역. 시대의창.
- 래쉬, 스콧. 1998. “성찰성과 그것의 분신들” 성찰적 근대화. 한울.
- 레비-스트로스, 클로드. 1998. 슬픈 열대. 박옥출 역. 한길사.
- 레이들로, 로브. 2012. 동물원 동물은 행복할까?. 박성실 역. 책공장더불어.
- 로스펠스, 니켈. 2003. 동물원의 탄생. 이한중 역. 지호.
- 리프킨, 제레미. 1996. 생명권 정치학. 이정배 역. 대화문화아카데미.
_____. 2002. 육식의 종말. 신현승 역. 시공사.
_____. 2005. 유러피언 드림. 이원기 역. 민음사.
_____. 2010. 공감의 시대. 이경남 역. 민음사.
- 메이슨, 제니퍼. 2004. 질적 연구방법론. 김두섭 역. 나남.
- 메이슨, 짐 & 피넬리, 메리. 2012. “동물공장”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 노승영 역. 시대의창.
- 모리스, 데이비드. 2002 “고통에 대하여 - 목소리, 장르, 도덕 공동체”
사회적 고통. 아서 클라인만 외. 안종설 역. 그린비.
- 미드, 조지 허버트. 2010. 정신·자아·사회. 나은영 역. 한길사.
- 바바렛, J. M. 2007. 감정의 거시사회학. 박형신·정수남 역. 일신사.
- 박형준. 2001. 성찰적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의암출판문화사.
- 버치, 찰스 & 캡, 존. 2010. 생명의 해방. 양재섭·구미정 역. 나남.
- 베코프, 마크. 2004. 동물에게 귀기울이기. 이덕열 역. 아이필드.

- _____. 2011. 동물권리선언. 윤성호 역. 미래의 창.
- 사이드, 에드워드. 2007.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역. 교보문고.
- 샤푸티에, 조르주. 2006. 동물이란 무엇인가. 김희경 역. 민음IN.
- 서펠, 제임스. 2003. 동물, 인간의 동반자. 윤영애 역. 들녘.
- 손택, 수전. 2004. 타인의 고통. 이재원 역. 이후.
- 싱어, 피터. 1999. 동물해방. 김성한 역. 인간사랑.
- 스미스, 아담. 2009. 도덕감정론. 박세일·민경국 역. 비봉출판사.
- 아담스, 캐럴 J. 2003 프랑켄슈타인은 고기를 먹지 않았다. 류현 역. 미토.
- 아렌트, 한나. 2002. 칸트 정치철학 강의. 김선욱 역. 푸른숲.
- _____. 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욱 역. 한길사.
- 애런슨, 엘리엇. 2002. 사회심리학. 구자숙 등 역. 탐구당.
- 에피아, 콰메 엔터니. 2008. 세계 시민주의. 실천철학연구회 역. 바이북스.
- 와카쿠와 미도리. 2007. 사람은 왜 전쟁을 하는가. 김원식 역. 알마.
- 조페, 헬렌. 2002.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박종연 역. 한울.
- 카제츠, 잔. 2011. 동물에 대한 예의. 윤은진 역. 책읽는 수요일.
- 커니, 리처드. 2004. 이방인 신 괴물. 이지영 역. 개마고원.
- 킬, 마티. 1996. “생태여성주의와 심층생태학” 다시 꾸며보는 세상.
아이린 다이아몬드. 편저. 정현경 역.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파머, 폴. 2002. “고통과 구조적인 폭력” 사회적 고통. 아서 클라인만 외.
안중설 역. 그린비.
- 피터슨, 데일. 2012. “웃는 동물을 먹는다는 것”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 노승영 역. 시대의창.
- 헌트, 린. 2009. 인권의 발명. 전진성 역. 돌베개.
- 헤르조그, 할. 2011 우리가 먹고 사랑하고 혐오하는 동물들, 김선영 역. 살림.
- 호프만, 마틴. 2011. 공감과 도덕발달. 박재주·박균열 역. 철학과 현실사.

Bourdieu, P. (1992) An Invitation to Reflexive Sociolog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ox, J. (2007) Industrial animal agriculture, part of the poverty problem.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estinger, L. (1957) 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Stanford University.

Fox, M. A. (1999) Deep Vegetarianism. Temple University Press. 1999.

Francione, G. L. (1996) Rain without Thunder. Temple University.

- _____ . (2008) *Animals as Persons*. Columbia Press.
- Garner, R. (1993) *Animals, Politics and Morality*.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B. Luke (2007) *Brutal*.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Lorenz, K. (1974) *On Aggression*. Mariner Books.
- Midgley, M. (1998) *Animals and Why They Matter*. University of Georgia Press.
- Petrinovich, L. (1999) *Darwinian Dominion*. MIT Press.
- Regan, T. (1983) *The Case for Animal Right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_____ . (1991) *The Thee Generation*. Temple University Press.
- Ryder, R. (1998) *The Political Animal*. McFarland.
- Spivak, G. C.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teiner, G. (2008) *Animals and the Moral Community*. Columbia University Press.
- Sumner, W. (1906) *Folkways*. Boston : Ginn.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Meaning of Animal Rights Movement Seen through the Activists' Experiences

Jo Jungheon
Dep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In this paper, I tried to explain the attribute of the power relations between human and non human animals in anthropocentrism, and the social meaning of animal rights movement seen through the activists' experiences. For this work, I've had in-depth interviews with ten activists of animal rights movemen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nimals are excluded from our moral community through otherization based on difference between 'superior human' and 'inferior animals', so that their interests are not considered in our community. Speciesism divides humans and non-human-animals into hierarchy and expels animals out of human areas. But the structure can be challenged by individuals.

Most of Interviewees are motivated to participate the animal rights movement by meeting animal which is suffered. They feel empathy equating themselves to animals and imagining animals' position. After the experience, they try to include animals as members of the moral community considering the interests.

Second, discrimination and otherization to animals creating a difference in hierarchy justify the domination and oppression of them, and make unequal relationship feel natural. Animals' experiences of suffering – for example in the process of slaughter – are concealed in the system because humans feel uncomfortable before the brutal exploitation. Humans avoid their responsibility for animals ignoring their suffering and sacrifice to keep the privilege, and they rationalize the use of animals through the logic of consistency like "all living things are equally precious in our eating grass, so eating all the other animals also are not morally problematic."

The animal rights activists reflect and resist the dominance and human privilege in the system. That resistance is being practiced in a way that provides people the opportunity to reflect our everyday lives associated with the dominance of animals and to escape inertia enduring emotional discomfort.

Third, the activists also reflect themselves and their movement resisting human dominance structure. Firstly, they take warning falling into the self-sacrifice to help the suffered animals. Secondly, they keep considering the methodology of their movement especially to avoid emotional bias. Thirdly, they always are considering if they are thinking and making deci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nimal, because the activists should speak for the voiceless who have very different recognition and language compared to humans.

'Others-centered thinking' is put in the center of all these self-reflexivity of the activists.

Finally, following the process of animal rights movement, Animal problems is interpreted as the context of power-relations to activists, and the attribute of their action are changing from protection of animals to animal rights movement.

They recognize animals as a 'minority' who becomes the object of discrimination and dominance based on difference, and also recognize them as 'the most marginalized' minority group with the lowest social status and voice.

Because a third party act in an agent for animal rights movement (whereas oppressed group itself could be the main agent of the resistance in other minority movements), the activists constantly keep trying to be on the position of animals in 'others-centered thinking'.

On the contrary that anthropocentrism which rejects others' perspectives causes oppression of animals, animal rights movement is trying to make animals the subject of rights in reflexivity and thinking from the perspective of others.

In conclusion, there is a need of our openness toward others thinking on their position rather than self-centered perspective to truly communicate with others.

In addition, understanding and reflecting the interconnection between others' suffering and our privilege in the unequal power relations is required. The resistance to the system oppressing minority can be achieved with understand and rejection to the mechanism of discrimination and dominance.

* Keywords : animal rights, animal rights movement, others, minority, empathy, reflexivity, suffering

연구 윤리 서약서

본인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첫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둘째, 논문작성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2013.01.01

학 위 명 : 사회학박사

학 과 : 사회학과

지도 교수 : 심영희

성 명 : 조 중 헌 (서명)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I, as a graduate student of Hanyang University, hereby declare that I have abided by the following Code of Research Ethics while writing this dissertation thesis, during my degree program.

"First, I have strived to be honest in my conduct, to produce valid and reliable research conforming with the guidance of my thesis supervisor, and I affirm that my thesis contains honest, fair and reasonable conclusions based on my own careful research under the guidance of my thesis supervisor.

Second, I have not committed any acts that may discredit or damage the credibility of my research. The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falsification, distortion of research findings or plagiarism."

2013.01.01

Degree : Ph.D.

Department : DEPARTMENT OF SOCIOLOGY

Thesis Supervisor : Professor Shim, Young-Hee

Name : Jo, Jungheon (Signature)